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은 전 세계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제177차 반 연차 대회에서 이같이 말씀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지지되었으며 주님의 사업은 앞으로 나아갔다. (앞 표지): 힝클리 회장(가운데),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제1보좌(왼쪽),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2보좌. 위: 대회의 토요일 오전 모임 직후 아이어링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 받은 쿠엔틴 엘 쿡 장로가 기자회견에서 여러 매체들과 만났다.



십이사도 정위원회

왼쪽부터 앉은 순서로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엘 톰 페리 장로, 리셀 엠 벨슨 장로,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조셉 비 위스린 장로, 왼쪽부터 서 있는 순서로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장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쿠엔틴 엘 쿡 장로.



핵심인 회장단

왼쪽부터 앞은 순서로 열 시 텡기 장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닐 엘 앤더슨 장로,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왼쪽부터 서 있는 순서로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윌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리아호나

토요일 오전 모임

- 4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6 교회의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 9 함께 견뎌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 11 가정과 가족을 강화함
메리 앤 쿡
- 14 왜 우리가 유일하고 참된 교회의 회원입니까?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 16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요구함
스펜서 제이 쿤더 장로
- 18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21 패튼 여사-계속되는 이야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5 신앙, 가족, 사실, 그리고 열매
엠 러셀 밸라드 장로
- 28 큰 계명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31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브루스 디 포터 장로
- 3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회원과 선교사를 하나로 만드는 도구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장로
- 35 작은 일에서
마이클 제이 테 장로
- 37 속 사람을 살게 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니
키스 케이 힐비그 장로
- 40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43 경전상의 증거
러셀 엠 넬슨 장로

신권 모임

- 46 표준을 높임
엘 톰 페리 장로
- 49 지금 행하십시오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 51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 53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윌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 55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신권 소유자를 도우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59 왕 같은 제사장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2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6 오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0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생활하십시오
쿠엔틴 엘 쿡 장로
- 73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 76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
줄리 비 백
- 78 작고 단순한 일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장로
- 80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83 산에서 뜨인 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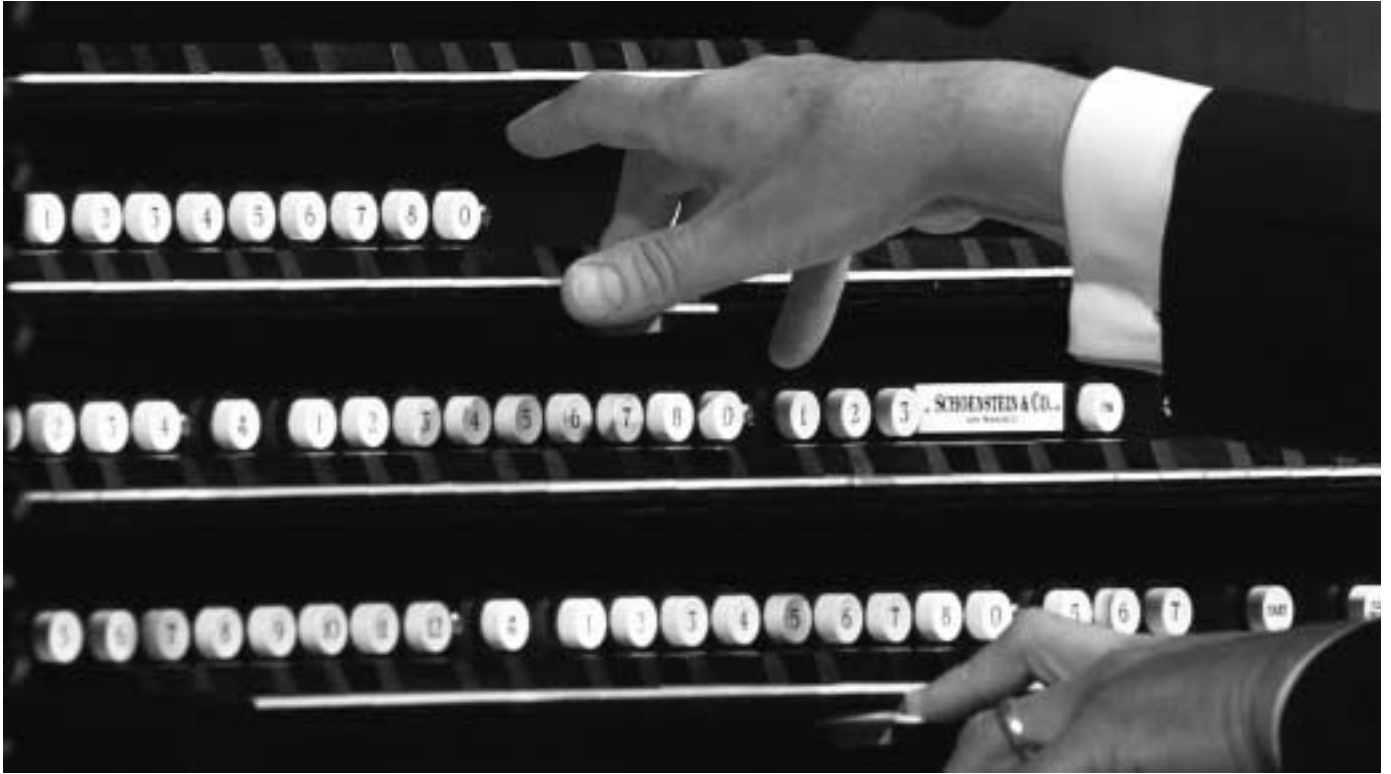
- 86 개인적인 계시: 선지자의 가르침과 모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90 진리: 올바른 의사 결정의 기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93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다니엘 케이 저드

- 95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장로
- 98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로
- 100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장로
- 102 봉사
스터븐 이 스노우 장로
- 104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108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상호부조회 총회

- 109 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줄리 비 백
- 113 내 양을 먹이라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 115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바바라 톰슨
- 118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22 변화시키는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 125 교회 소식
- 128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대회 음악

토요일 오전 모임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81장; “Faith of our Fathers,” 찬송가 (영문) 84장, Longhurst 편집, Sonos 출판; “Come unto Him,” 찬송가 (영문) 114장;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찬송가 62장, Wilberg 편곡, 미출판;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Wilberg 편곡, 미출판.

토요일 오후 모임

“와서 기쁜 노래하라,” 찬송가 15장, Unsworth 편곡, 미출판;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 찬송가 24장, Kasen 편곡, Jackman 출판;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오 내 영혼 가슴 깊은 말,” 찬송가 93장, Dalton 편곡, Plum 출판.

신권 모임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27장; “복음이 지닌 평화,” 찬송가 7장, Staheli 편곡, 미출판;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찬송가 25장, Kasen 편곡, 미출판.

일요일 오전 모임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O Thou Kind and Gracious Father,” 찬송가(영문) 150장; “어린이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6쪽, Perry 편곡, Jackman 출판;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God So Loved the World,” The Choirbook 28장, IRI 출판; “굳도다 그 기조,” 찬송가 35장, Wilberg 편곡, 미출판.

일요일 오후 모임

“아름다운 시온 위에다,” 찬송가 8장, Wilberg 편곡, 미출판; “Our Prayer to Thee,” Parry,

Russell M. Nelson 작사, Wilberg 편곡, 미출판, 솔로: Scott Miller;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헤어지며 찬송 하나 더 하세,” 찬송가 82장, Wilberg 편곡, 미출판.

상호부조회 총회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27장;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Webb 편곡, 미출판;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descant, Webb 편곡, 미출판; “주는 나의 빛,” 찬송가 48장, Kasen 편곡, Jackman 출판.

연차 대회 녹화 자료 구입

여러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모임 녹화 자료는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인터넷 상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대회 말씀을 접하시려면 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Gospel Library”와 “General Conference”를 클릭한 후 해당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사진촬영: 크레이크 다이먼드

대회 사진들

솔트레이크시티 연차 대회 장면을 담은 사진들의 촬영: 크레이크 다이먼드, 월런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레스 닐슨, 스코트 데이비스, 로드 보암, 에밀리 라이스만, 제프리

맥알리스터, 마크 웨인버그, 코디 벨, 카밀라 콤스, 브라질: 로레니 포체토, 캐나다: 로렌트 루퀼스, 덴마크: 리사 알스 클라인 프레드릭스, 앤 마리 알스 린드버그, 인도: 메린다 쿨러, 멕시코: 레이날도 마르티네즈, 페루: 라이언 브라운, 남아프리카: 로드 밀네, 서인도제도: 데이빗 후슨.

연차 대회를 통해 가르치고 배움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에 나온 지침들, 아론 신권 및 청년 참고 지도서, 그리고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은 www.lds.org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www.lds.org로 가서 “Gospel Library”를 클릭하고 “General Conference”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언어를 선택하고 가장 최근의 대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일정

넷째 주 일요일 공과 교제

2007년 11월~2008년 4월: 2007년 11월호

리아호나에 나온 말씀들*

2008년 5월~2008년 10월: 2008년 5월호

리아호나에 나온 말씀들*

*스테인드 및 지방부 회장은 어떤 말씀들을 사용할 지 선택할 수 있으며, 또는 이 말씀을 선택할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인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심사도 정월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윌런드, 디터 에르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편집인: 제이 이 켄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가꾸찌, 제랄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러스 샴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흐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윌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럿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밴츠,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드 고든, 캐리 카스텐, 제니퍼 메디, 엘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라스, 샬리 레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비버안 블스, 조슈아 제이
머기, 캄발리 레이드, 리처드 엠 린니, 돈 엘셀, 제니 토마스, 플
벤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열 튜서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밴 켈렌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캘리 알 이로우, 콜레트 네베카 오운,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바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슬린
히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지니 레이 넬슨, 랜달 제이 픽스토
사건 인쇄: 제프 맥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우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관: 제500호, 제44권, 제1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7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한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장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구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 편집인 혹은 지시기를 찾는 방문객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말리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안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관건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November 2007 Vol. 31 No. 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색인

일화 색인

메리 앤 쿡 자매님의 오빠가 가족들에게 쓴 편지, 11
여섯 살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스테이크 대회에서 할 말을 알려주다, 14
우리와 신앙을 달리하는 여성이 부활에 관한 연차 대회 말씀을 듣다, 21
아픈 아내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남편, 28
"프레드 삼촌"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다, 35
엘 톰 페리 장로가 높이뛰기 선수인 그의 아들에게 바를 더 높이도록 격려하다, 46
가족 조리법 과제 제출을 미루던 소년, 49
카리브해의 고기잡이 돛, 51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미국 내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에게 말씀하다, 55
올림픽 예선전 경기 중 신발이 벗겨진 육상 선수, 59
통가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를 찾다, 59
가정복음 교사들이 스벤을 방문하여 활동화되도록 돕다, 78
한 기자가 헤롤드 비리 회장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았는지 질문하다, 86
곡식이 든 양동이를 흔들면 달려오는 말, 93
할아버지가 교회에 참석하도록 조르는 손자들, 95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장로가 그의 첫째 아이를 잃다, 95
히버 게이 그랜트 회장은 짧은 시절 그가 강한 간증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100
선교사가 간증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다, 100
죽어가면서 더 봉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던 어머니, 102
사탕 하나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던 소년, 102
아들이 여름 휴가에서 최고의 순간은 아버지와 별을 보던 순간이라고 말하다, 104
방문 교육을 가면서 친구를 얻게 된 자매, 113
한 자매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에게 그녀의 딸을 축복해달라고 부탁하다, 118
아웃의 아기를 돌보아주고 도움을 주었던 한 자매, 118

주제 색인

가르침, 73, 76, 93, 104
가정의 밤, 108
가족, 11, 25, 33, 73, 76, 95, 104, 109, 115
간증, 14, 78, 83, 98, 100
감사, 31, 66
개종, 78, 100
결심, 37
결혼, 62
경전, 43, 118
계시, 86, 90
교리, 25
교육, 118
교회 잡지, 108
교회의 성장, 83
기도, 55, 59, 86, 118
기쁨, 18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33
노여움, 62
동정심, 28, 35, 102
모범, 11, 25
목적자, 43, 100
물몬경, 43, 78
미루는 것, 49
방문 교육, 113
복음, 18
봉사, 6, 9, 35, 53, 102, 109, 113, 118
부활, 21
사랑, 9, 28, 70, 73
상호부조화, 109
선교 사업, 33, 35, 46, 70
성경, 43
성신, 37, 55, 66, 93
성야, 16
성전, 11, 14, 37, 95
속죄, 40, 80
순결함, 51, 80
순종, 16
신권, 14, 55, 59
신뢰, 93
신앙, 16, 25, 59, 70, 109
신화, 40
약속, 16
어머니(모성), 76, 109, 115
역경, 9, 53
연차 대회, 108
예수 그리스도, 21, 40, 115
의실물, 51
우선 순위, 104
우정, 113
위안, 95
유혹, 51
의료음, 53
이혼, 62
인격, 90
인내, 9, 18, 98
일, 55

일지, 66
자녀, 76, 115
자애(사랑), 28
자유, 98
정화, 78
죽음, 21
준비, 49, 53, 86
지도력, 6, 55
진리, 90
축복, 66
평등, 6
표준, 46
합당함, 46
확신, 55
회개, 31, 49, 80, 98
회복, 40, 83
회원, 18
희생, 31

연사들 (가나다 순)

고든 비 힝클리, 4, 62, 83, 108
다니엘 케이 저드, 93
더글러스 엘 폴리스터, 100
노널드 엘 홀스트롬, 49
델린 에이치 옥스, 10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80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8
러셀 엠 넬슨, 43
로버트 디 헤일즈, 86
리처드 시 에츨리, 9
리처드 지 스코트, 90
마이클 제이 테, 35
메리 앤 쿡, 11
바바라 톰슨, 115
보이드 케이 패커, 6
브루스 디 포터, 31
스티븐 이 스노우, 102
스펜서 에이 콘디, 16
실비아 레이 윌리드, 113
에릭 더블유 코우퍼쉬케, 33
엔리케 알 팔라벨라, 14
엘 톰 페리, 46
엘 휘트니 클레이튼, 51
엠 러셀 벨라드, 25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95
윌터 에프 곤잘레스, 53
제프리 알 홀런드, 40
조셉 비 위스린, 28
줄리 비 벡, 76, 109
쿠엔틴 엘 쿡, 70
크리스토펴 골든 이세, 78
클라우디오 디 지빅, 98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73
키스 케이 힐버그, 37
토마스 에스 몬슨, 21, 59, 118
헨리 비 아이어링, 55, 66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를 묻겠습니다. 그전에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최근에 돌아가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분은 아주 유능하셨고, 위대한 신앙과 능력의 소유자였으며 우리의 모임들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너무나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 루스 자매님과 자녀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든 비트너 힝클리 형제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 형제를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회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칠십인 회장단에서 찰스 디디에이, 메릴 제이 베이트먼, 로버트 시 옥스,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을 해임합니다. 또한 메릴 제이 베이트먼, 몬트 제이 브러프, 진 알 쿡, 로버트 케이 텔린바흐, 더블류 로프 카 장로님을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해임하며 그분들을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장로님은 계속해서 교회 교육 기구 교육 총감으로 봉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디 렉스 게렛, 로버트 에프 오톤, 웨인 에스 피터슨, 알 콘래드 솔츠, 에이치 로스 위크먼 장로님을 해임합니다.

이분들의 봉사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스티븐 이 스노우,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님을 칠십인 정원



대회 모임 전에 담화를 나누고 있는(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쿠엔틴 엘 쿡 장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회 회장단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지역 칠십인 그리고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앙과
기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이어링 회
장님과 쿡 장로님, 곤잘레스 장로님께서 지
정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의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주님은 교회의 어떤 회원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요, 회장이며 또한 사랑 하는 친구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을 존경하며,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한 그분의 아내 루스 자매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핑클리 회장님께서 새로 지명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지지 받은 저희 모두를 대신해서 저희는 저희가 받는 신뢰에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의 관리역원들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엄숙하고 신성한 절차입니다. 이 공통된 절차는 지도자나 교사가 부름을 받거나 직책에서 해임될 때, 또는 스테이크나 와드, 정원회 및 보조 조직의 개편이 있을 때마다 하

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124:123, 144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20:65~67; 26:2 참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인도하거나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는지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계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어떤 자에 의해 성임되지 아니하였거나 또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음과 교회의 머리된 자들에 의해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려 나아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42:11)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회와 정원회, 와드, 그리고 스테이크는 교회를 전복하려는 험잡꾼들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또 다른 독특한 원리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이끄는 모든 직분은 교회의 회원들로 채워집니다. 이것 또한 경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의 한 구절은 모든 시대의 교회 지도력의 질서를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그 당시나 지금의 기독교 교회의 관습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

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

“곧 세상의 연약한 것들이 나아와 힘 있고 강한 것들을 부수리니 ...”

“...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

“신앙이 또한 땅에서 증가되게 하려 함이요”

“나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게 하려 함이요”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그리고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나는 하나님ियो, 이를 말하였노라. 이들 계명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요,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의 종들에게 그들의 언어의 방식에 좇아 주어진 것이니 이는 그들로 이해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교리와 성약 1:17, 19~24)

저는 주님이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시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 경전 구절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회원들은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습니다.

제이 루오벤 클라크 이세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직책에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합당하게 부름 받은 직책에서 봉사하게 되며 우리는 부름을 구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Conference Report, 1951년 4월, 154쪽) 교회에는 전문적인 성직자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지도자 직책에서 봉사하게 되는 부름은 일반 회원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지도자를 훈련할 신학교를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인도, 가르침, 부름, 성임, 기도, 찬송, 성찬 준비, 권고 및 그 밖의 모든 것은 “세상의 연약한 것들”, 즉 평범한 회원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회가 필요한 성직자를 채우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우



리에게는 그러한 문제들이 없습니다. 일단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조직되고 나면, 그 간중으로 인해 봉사하라는 부름에 기꺼이 응할 충실한 형제와 자매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요구되는 표준대로 생활합니다.

회원들은 침례를 받은 후에 성신을 받습니다.(교리와 성약 33:15; 35:6 참조) 성신은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자신의 직책과 필요사항에 따라 인도와 방향과 교정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요한복음 14:26; 교리와 성약 50:14; 52:9; 75:10 참조)

이 원리는 우리 교회를 세상의 다른 모든 기독교 교회와 구별짓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들로부터 교사와 지도자들을 무한하게 공급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는 독특한 평등함이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다.(교리와 성약 38:24~25 참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사도행전 10:34~35

참조; 또한 로마서 2:11; 교리와 성약 1:35; 38:16 참조)

저는 청년이었을 때, 아주 연로하신 자매님의 가정복음 교사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들려 주시며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어린 소녀였을 때, 브리검 영 회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에서 열리는 훌륭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브리검 시티에 오셨습니다. 그분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초등회 어린이들은 하얀 옷을 입고 교회의 회장이 타신 마차 앞에 꽃을 뿌리기 위해 꽃바구니를 들고 마을로 들어서는 길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꽃을 뿌리는 대신 마차 앞쪽으로 돌을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러브룬드 할아버지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들렸으며 그녀는 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저는 브리검 영 회장이 그 어린 소녀 제니 스티드가 한 말에 가장 먼저 동의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러브룬드 할아버지 또는 훌륭한 다른 어떤 회원보다 자신이 낫다

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자신도 이에 대해 아주 명백히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0:27). “그가 비록 가장 작은 자요 모두의 종일지라도, 가장 큰 자가 되도록 임명되느니라”(교리와 성약 50:26)

오래 전 처음으로 교회 본부의 부름을 받게 되어 제 사진이 신문에 실리자, 제 고등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 상당히 놀라시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야말로, 개구리의 걸 모습만 보고는 그것이 얼마나 높이 떨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네 그려.”

높이 뛰어오르는 대신 진흙에 움츠리고 앉아 있는 개구리의 모습은, 제가 받았던 책임에 직면했을 때 느꼈던 부족함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와 같은 느낌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 낫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 줍니다.

오랫동안 저를 곤혹스럽게 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십육 년 전 저는 서른일곱 살의 세미나리 담당자였고, 제 교회 부름은 린든 와드의 한 공과 반의 보조 교사였습니다.



대회 모임 시작을 기다리며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쿠엔틴 엘 쿡 장로(왼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중앙),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놀랍게도, 저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을 만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 양손을 잡고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라는 총관리 역원의 부름을 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솔트레이크시티로 와서 제일 회장단을 만나 총관리 역원으로 성별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제일회장단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과 그의 보좌이셨던 휴 비 브라운 회장님, 그리고 헨리 디 모일 회장님을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때였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세계 십이사도 보조의 책임들 중 하나는 특별한 증인인 십이사도 정원회와 하나가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증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님을 성별하기 전에 우리에게 형제님의 간증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님에게 그러한 간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제 워드의 금식 간증 모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회장단에 계신 분들이 만족해 하는 것 같았고 저에게 직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으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부름을 받는 사람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그리고 매우 큰 간증과 영적인 힘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지만 마침

내 저는 이미 제가 갖춰야 했던 것들 즉,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한 충만한 복음의 회복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에 대한 변함 없는 간증을 제 가슴속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에 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할지는 모르나 저는 간증이 있었으며 기꺼이 배우고자 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물문경에서 이야기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이는 곧 레이맨인들이 그 돌이킬 때에 나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제3니파이 9:20).

오랫동안 저는 그 단순한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아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다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지니고 계신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요한 복음 16:27)

몇 년 전에 저는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선교부 회장 부부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롬니 회장님은 그들

에게 50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젊은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어느 늦은 오후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롬니 회장님이 밖에 나왔을 때는 아주 캄캄했습니다. 그가 별이 떠 있는 밤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분에게 임했으며 확실한 증거가 영혼에 생겨났습니다.

롬니 회장님은 선교부 회장들에게 50년 전 오스트리아에서 한 젊은 선교사로서 알고 있던 것, 즉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과,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지금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더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면에서 간증이 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50년 전보다 주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리 직분에 지지받은 사람들이 일반 회원보다 교회에서나 자기의 가족들에게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주님께 더 가치가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라도 제 아내와 제가 다른 가족이나 교회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 생각하거나, 교회의 어떤 부름을 다른 부름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들 중 한 명이 와드 선교 책임자로 지지 받았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름은 열심히 일하는 그의 열의에 잘 부합합니다. 그는 선교사의 영을 지니고 있으며 그가 선교 사업을 할 때부터 같고 닷은 스페인어를 잘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의 부름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하는 그 어

함께 견뎌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감리 감독단

와드는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시련을 겪는 이들의 필요사항을 돕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두 해 전에 한 지역 신문의 유머란 기고가가 사뭇 진지하고 시사하는 바가 많은 주제에 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유타에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물몬이 된다는 것은 와드 회원들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5분 이내에 전 와드 회원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은 서로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겠지만 ... 또한 우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요일에 직장에서 텔레비전 정오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승합차 한 대가 교통사고로 완전히 망가졌다. 한 젊은 어머니와 어린 두 자녀가 헬리콥터와 구급차로 급히 응급실로 수송되는 중이

었다. 몇 시간 후에 나는 그 승합차의 주인이 해리만에 있는 우리 집 맞은 편에 사는 젊은 부부 에릭과 지나 퀴글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퀴글리 가족을 교회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밤 이웃에서 있었던 파티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우리 손주들은 그 집 딸들인 비앙카와 미란다와 함께 놀았다.”

“14개월 된 미란다는 심한 머리 부상으로 고통을 겪다가 3일 후에 Primary Children’s Hospital(소아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소식을 와드 회원들에게 빨리 전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사고 직후에 그곳을 지나던 와드 회원 중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경찰과 의료 보조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와드의 전 회원이 이 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와드 회원들은 세 군데 병원을 모두 찾았으며, 직장에 있는 에릭에게 연락을 취했고, 도움을 줄 사람들을 편성했다. 현장이나 병원에서 즉시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돕기 위해 분주했다.”

“48시간 내에, 퀴글리 가족 마당의 잔디가 손질되고, 집안은 깨끗해졌으며, 세탁도 끝나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채워졌다. 친척들에게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지역 은행에는 퀴글리 가족을 위한 신탁 기금 통장이 개설되었다. 그 집에 애완견이 있었다면 회원들은 애완견에게 목욕까지 시켜주었을 것이다.”

기고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말로 끝맺

면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 주는 헌신보다 더 중요한 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의 최종 목표는 가정과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서 우리는 여러분과 동등하며, 여러분도 저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과 부름에 관련해서 똑같은 계시의 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 직분에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은 그 직분에 속한 계시를 받게 되며, 그 계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어떤 회원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서, 통가 누 쿠알로파의 투오타이 팔레투아 형제와 자매 또는 칠레 산티아고의 카를로스 시 푸엔티스 형제와 자매, 또는 네델란드의 피너 달래보우트 형제와 자매, 또는 일본의 타쓰이 사토 형제와 자매, 또는 제가 세계를 다니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신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빛의 인도를 받는 보통의 가족 안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회원들에 의해 앞으로 전진합니다.

저는 이 복음이 참되고 영혼, 참으로 모든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부름에 상응하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제가 제일회장단을 만난 이래로 이 간증을 계속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었습니다. “우리 와드 회원들 간에 서로 지극히 관심을 갖는 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 몇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Well-Being of Others Is Our Business”, *Salt Lake Tribune*, 2005년 7월 30일, C1쪽)

이 비극적인 사고 때문에 염려하던 와드 회원들이 보여준 사랑과 봉사는 이 특정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몰몬경의 선지자 엘마는 장차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가까이 서로의 집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가까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런 다음 엘마가 설명한 대로 그들은 침례 받을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모사이사서 18:8~9 참조) 이 구절은 가장 동정적인 방법으로 돕고 또 돌보기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와드는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시련을 겪는 이들의 필요사항을 돕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종종 와드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감독님은 권고해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멜기세덱 및 아론 신권 지도자, 상호부조회 회장단, 가정복음 교사, 방문교사 및 와드 회원들이 있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 가까이 사는 이웃들과 가슴 아픈 많은 비극을 함께 했습니다. 1998년 10월, 우리 집에서 동쪽으로 세 집 건너에 살고 있던 열아홉 살 된 잭 뉴튼은 끔찍한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2년도 채 되지 않은 7월에는 뉴튼 가족의 집 바로 맞은 편에 살고 있던 열아홉 살의 앤드리아 리처스가 교통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06년 7월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집 길 건너 북쪽으로 두 집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스물여덟 살의 귀환 선교사인 트래비스 배스터 안과 그의 열다섯 살 된 여동생 데시리가 끔찍한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달 후인 2006년 8월에는 바로 우리 옆 집에서 자라났던 서른두 살의 에릭 골드가 요절했습니다. 이웃에 살던 다른 사람들 또한 개인적으로 가슴 저미는 경험들을 겪었으며 그것은 오직 자신들과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사망한 것은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기에는 적은 수의 시련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커보이는 까닭은 긴급한 필요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절친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와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엘마와 구주의 권고를 따르는 회원들, 즉 서로 보살피고 사랑하고 서로의 집을 저 가볍게 하는 회원들,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가까이 슬퍼하는 회원들, 또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는 회원들, 함께 견디는 회원들이 속한 와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는 넘치는 사랑, 봉사, 그리고 모두에게 영감을 준 동정심을 보았습니다. 감독들이 도착하고, 가정복음 및 방문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멜기세덱 및 아론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영적이고 현세적인 필요사항을 돌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일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채우고, 집을 청소하고, 잔디를 깎고, 나무를 손질하고,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했으며, 축복을 해 주고, 더 나아가, 울면서 기댈 수 있는 포근한 어깨를 제공했습니다. 회원들은 어느 곳이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굳건해진 신앙, 구주에 대한 더 큰 사랑, 속죄에 대한 더 큰 감사, 그리고 소속 회원들의 가장 절실한 정서적이고 영적인 필요사항을 채워준 조직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역경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으로 인해 생겨난 많은 감미로운 경험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축복이 고통으로부터도 생겨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찬양드리고 다음과 같은 용의 말을 되풀이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

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기 1:21)

와드 회원으로서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1. 주님의 조직은 정서적 혹은 영적인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이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적절하게 보살핍니다.
2. 역경을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지는 속죄에 대해서 새롭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3. 비극을 직접 겪은 회원들은 종종 비통함보다는 사랑과 동정심, 그리고 이해심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위로하고 동정심을 나타내 보이며 가장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합니다. 또한, 그들은 종종 이와 같은 위안을 주는 일을 가장 잘 행합니다.
4. 가족은 물론 와드는 함께 견딜 때 더 가까워집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5.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좀 더 동정심 많고 걱정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련과 경험들을 통해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과 보살핌을 주는 그러한 조직에 속해 있어서 즐겁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나 슬퍼하는 이와 더불어 슬퍼하는 것,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를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함께 견디는 것”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견뎌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가정과 가족을 강화함

메리 앤 쿡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의 승영을 돕는 일에서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매 주 일요일, 몽골에서 맨체스터, 그리고 미시시피에서도, 교회의 청녀들은 다음과 같은 영감 어린 말씀을 암송합니다. “우리는 …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고,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고, 승영의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게 된다.”(“청녀 주제”,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소책자 2001년], 5쪽)

이것은 청녀 주제이긴 하지만, 교회의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청남 청녀 여러분의 개인적인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이 청녀 주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인 상황에도 말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 모든 가족이 같지는 않지만, 각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요합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웍플릿*, 2001년, 10쪽)

이상적인 가족에서부터 가장 문제가 많은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가족에게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의 유일한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의 축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의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의로운 생활 패턴을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든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삶의 모범은 가족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지난 봄, 본부 청녀 모임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또한 축복해 주는 “네 항목을 포함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청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1) 기도하고, (2) 공부하고, (3) 십일조를 바치고, (4) 모임에 참석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15쪽)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매일 도움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십시오. “가족 중 누가 내 개인 기도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가족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할 때,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모범을 통해 가족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용서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전에서 배운 내용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모임에서, 히클리 회장은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으라”(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16쪽)고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교육은 여러분의 현재의 가족은 물론 미래의 가족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히클리 회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십일조는 돈으로 내지만, 더 중요한 점은 신앙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17쪽) 여러분은 신앙으로 십일조를 바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주님

은 “하늘 문을 열고”(말라기 3:10) 여러분과 가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임, 특히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과 가족을 축복해 줍니까? 성찬을 정기적으로 취하는 것은 여러분이 침례 성약을 지키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고 매주 이 성약을 새롭게 할 때, 여러분은 영의 인도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생활 방식에 전념할 때, 여러분은 평생 동안 축복받을 것이며 영적인 기반을 발전시키고 그를 통해 모범으로 가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테전서에서 바울은 여러분이 보이는 모범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디모테전서 4:1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가족 편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는 자의 모범” 될 수 있는 훌륭한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깨활하고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십시오. ...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 사항에 마음쓰십시오. ...”

“부모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 보이고 순종함으로써 그분들을 존중하십시오. ... 가족 기도, 가정의 밤, 가족 경전 읽기 등을 포함한 가족 활동과 전통에 참여하십시오. 이러한 전통은 가족을 강화하고 단합하게 합니다.”

“친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십시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10~11쪽)

모범은 종종 가장 좋은 교사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중 누가 여러분의 모범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 오빠의 의로운 생활 방식과 모범이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빠와 저는 우리 둘을 위해 큰 사랑을 주시고 희생하신 “홀륭하신 부모님”(니파이전서 1:1)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 가족은 신성한 성전 의식을 받는 축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래 전 12월 말쯤인 어느 날, 우리는 북캘리포니아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던 오빠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있을 때 열어볼 것!”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가 함께 모여 타자로 친 일곱 쪽이나 되는 오빠의 편지를 펴 보았을 때, 거기에는 기도에 대한 오빠의 간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경전에 나오는 영원한 가족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편지에는 금식과 기도가 오빠의 구도자가 침례 의식을 받도록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의 경험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빠는 우리에게 우리 가족 또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스텐포드 와드의 감독님은 몇 달 전에 가정에 큰 영향을 주는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독님의 말씀으로 인해 제 인생에

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은 가족과 함께 성취하고 싶은 목표입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의 집에서 현세와 영원토록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봉되는 겁니다. 저는 두 분을 매우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 오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가족 모두가 함께 가족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대 소녀였던 저 또한, 이 축복이 우리 가족에게 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편지는 제게 의로운 소망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듬해는 우리 가족이 뭔가 변화할 기회였습니다. 이후 여러 달 동안, 우리는 의로운 가족 생활 방식을 확립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기도하고, 성전 의식에 관해 공부했으며, 십일조를 바치고, 가족으로서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빠가 귀환한 직후, 우리는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성전의 거룩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현세와 영원을 위해 가족으로 인봉되었을 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가끔 오빠가 그 힘찬 편지를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의 영원한 진보가 가능했을까 생각합니다. 오빠의 의로운 생활 양식과 모범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모범이 훌륭하지 않다면, 그런 훌륭하지 못한 모범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 우리는 이제 가족들의 생활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전통을 가르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로버트 디 헤일즈,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10쪽)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

을”(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가족은 개인들로 구성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십시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0쪽) 의로운 생활 양식을 확립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의 승영을

돕는 일에서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제 가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합니다. 아멘. ■

왜 우리가 유일하고 참된 교회의 회원입니까?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철십인 정원회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권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이라는 보배입니다.



왜 우리가 유일하고 참된 교회의 회원입니까? 비록 제가 천삼백 만 명의 교회 회원들 모두를 대변해서 이 질문에 답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대답과 일치할 만한, 제 마음속에 있는 몇 가지 대답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생이라는 부

“보라, 영생을 가진 그가 부자니라.”(교리와 성약 6:7)

어린 시절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네 명의 형제자매 이

렇게 다섯 명이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다섯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버시는 적은 수입은 주로 식료품을 사는 데 사용되었으며, 옷을 사는 것은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께 가서, “아빠, 신발 좀 사 주세요. 이 신발을 좀 보세요. 다 낡았어요. 신발에 난 구멍으로 빠져 나온 제 발가락이 보이시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수선해 주마.”라고 대답하시고는 약간의 검은 구두약으로 제 신발에 광을 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아, 다 고쳐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뇨, 아직 발가락이 보이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도 수선할 수 있지.”라고 대답하시며, 다시 구두약을 묻혀 제 발가락에도 약간 발라 주셨습니다. 제 발가락은 제 신발처럼 금새 광이 났습니다. 이같이 일찌기 저는 돈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명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회복된 복음과 구원의 계획의 교리, 그리고 영원한 가족이라는 ‘부’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으며, 이후 아버지께서 지방부 회장으로서는 부름을 수행하기 시작하

셨을 때, 본인의 첫 번째 목표는 성전으로 여행하는 희생을 통해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5일 동안 7,725킬로미터를 가는 여정이었는데, 이 여행 동안 우리는 열악한 상태의 고속 도로, 불편한 버스 등의 어려움과 좌절을 겪어야 했으며, 심지어는 성전까지 가는 길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받게 될 의식들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안고 우리는 계속 여행했습니다.

애리조나 주 메사 시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큰 거리를 향해 내려갔는데 그 거리의 끝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벅찼던 그 기쁨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두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성도들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후, 성전에서 우리는 비록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았지만 이제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어머니라는 확신을 얻었으며, 영원한 가족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을 듣기 위해 온 가족이 다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아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같이 영생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보라, 영생을 가진 그가 부자니라.”(교리와 성약 6:7)

회복된 신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제사장과 “... 왕 같은 [신권 및] 거룩한 나라”(베드로전서 2:9)의 교회입니다.

회복된 교회 덕분에 각 가정에는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신권 소유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아빠, 제게 축복을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묻는 어린 자녀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으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위안과 병 고침의 축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권의 권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으며, 다음날 그 아이가 “아빠, 고마워요. 어젯밤에 푹 잤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권능이 있



는 누군가를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교회야말로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는 지상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권능을 통해서, 저는 제 아들 하나하나에게 신권을 성임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식을 집행하는 그분의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인 또 다른 이유인데, 그것은 신권의 권능이 지상에 회복되어 그것이 우리 가정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권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의 권능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이라는 보배입니다.

간증은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 기도로 그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을 통해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교리와 성약 42:14)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제 아들 다니엘이 여섯 살이었을 때, 그는 제가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해야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어린이들은 모든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아들이, 그게 쉬운 일이라면, 아빠가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 말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렴.”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하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참 좋은 주제구나. 하지만 그들은 기도에 대해 많이 들었을 텐데, 아빠가 기도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것도 아주 쉬워요.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전에,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세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그런 다음 뭐라고 하지?” “일단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 말씀드릴지 생각했다면, 그분께 그것을 말하십시오. 말을 마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말하세요.”

이와 같이 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구주의 실재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저는 저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집에서 내려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그분의 목숨을 빼앗을 권능도 없으면서 사형 선고를 내린 이 세상에 오심으로 보여 주신 사랑에 놀랍니다. 그리스

도께서는 저의 죄와 질병과 고난과 슬픔을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단지 “[그분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누가복음 22:44)라고만 기록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인 이유입니다. 성령이 제 마음을 꿰뚫어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그분은 저의 구주이시고, 저의 쫓겨난 치르셨으며, 만약 제가 그분의 교훈에 따라 생활한다면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께서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제 부친께서도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에 대해 이전보다 더 그분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족 생활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저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저의 충실함에 따라 그분의 중재를 통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으리라는 간증을 주시며 제 영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와 다른 이유들로 인해, 저는 지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교회의 회원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요구함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은 풍성한 약속들을 주시며, 이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남 태평양의 충실한 성도들에게 제 사랑과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는 그분의 신성한 탄생과 하늘에서 물려받은 신성함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의 지시 아래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포함합니다.(요한복음 1:10, 모사이사서 3:8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정중앙에는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 [질 수]”(이사야 1:18 참조)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무덤에서 일어나셨

고, 그의 부활을 통해 온 인류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지식을 포함합니다.(고린도전서 15:21~23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만유의 회복을 위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지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요구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분명해집니다.(베드로후서 1:4) 수많은 약속이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공표되었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이 후기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에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교리와 성약 130:21)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은 풍성한 약속들을 주시며, 이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

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하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주님의 약속 중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됩니다. 용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릴 때” 옵니다.(교리와 성약 58:43; 또한 1:32 참조)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십일조를 충실히 바치는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약속이며(말라기 3:10), “지식의 큰 보화”를 얻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교리와 성약 89:19)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받게 되는 약속입니다.(교리와 성약 59:9; 출애굽기 31:13 참조)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고”(니파이후서 32:3~5) “경전을 [자신]에게 비유”(니파이전서 19:23)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인도와 영감이 약속되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제3니파이 18:20) 우리가 “쉬지 말고 덕으로 [우리의] 생각을 장식할 때”(교리와 성약 121:45~46) 성신은 변하지 않는 우리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금식함으로써 영적으로 자유케 되는 약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금식이 “홍약의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의 “명예의 줄”을 끌려 주고, “모든 명예”를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사야 58:6)

거룩한 성전에서 인봉되고 성약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2:19)

때때로 우리는 세상적인 조급함 때문에 주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보지 못하고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순종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며, 누가 이르

노라, 약속을 하고서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명령하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는 취소하며,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상이 아래에서 숨어 거다리며, 위에서 오지 아니함이니라.”(교리와 성약 58:31~33)

약속들을 멀리서 봄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은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에 관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히브리서 11:4~13 참조) 이 충실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나가는 여정이니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75세 때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와 사라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창세기 12:2)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은 86세 였습니다.”(창세기 16:16)

그 후 주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으며, 아브라함이 거의 백 세, 사라가 구십 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과 함께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창세기 17:17, 19 참조) 그들이 믿지 않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창세기 18:14) 그 후 “사라는 임신하고 ...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창세기 21:2) 훗날 주님은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세기 22:17)

어린 이삭은 장성하여 사십 세에 리브가와



대회 모임 장소로 걸어가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회원들

혼인하였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여”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이때 이삭의 나이 육십 세였습니다.(창세기 25:20~26 참조)

야곱이 자라 적당한 나이가 되자,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그를 라반의 집으로 보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습니다.”(창세기 29:18, 29)

여러분은 라반이 어떻게 어린 야곱을 속여

먼저 레아와 결혼하게 하고 나중에 라헬과 결혼하게 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창세기 29:31)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차례로 낳았습니다. 이때까지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창세기 29:32~35 참조)

점차 커져 가는 부러움과 절망을 느낀 라헬은 어느 날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창세기 30:1)라고 말했습니다. 레아는 그 후에 두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님

사도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간증했습니다.(베드로후서 3:9) 한 시간 짜리 드라이클리닝과 일 분짜리 패스트푸드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때때로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보배로운 약속을 잊어버리셨거나, 연기해 놓으셨거나, 혹은 엉뚱한 사람에게 주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라헬도 그러한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창세기 30:22)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지상에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인 수백만의 요셉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들의 노력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의 축복으로 복을 받을 것 인즉,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아브라함서 2:11)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하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각자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듯이, 여러분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이것은 기쁨의 종교이며 희망과 용기, 구원의 종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며 느꼈던 훌륭한 영으로 인해 아직도 제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이젠 해매는 나그네 아니니.
지금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 형제가 작사한 이 찬송가는 나쁜 소식에 몰두하고 있는 세상의 경향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경전에 예견된 바와 같이 우리는 “처처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있고”(욘서 8:30) “온 땅이 동요

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기절할”(교리와 성약 45:26) 때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인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인생의 경험을 겪습니다. 어떤 경험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어떤 경험은 슬프고 불확실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족의 상황이 비관적으로 보였던 때를 기억합니다.

때는 1944년 겨울,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중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치열한 전선이 점점 더 우리 마을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므로, 어머니는 우리 네 자녀를 데리고 모든 소유물을 남겨 둔 채 생존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해매는 수백만의 피난민 행렬에 합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군대에 계셨지만, 부모님은 혹시나 전쟁 중에 가족이 헤어지게 되면 조부모님의 고향에서 다시 만나기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두 분은 그곳을 안전한 피난처요 가장 큰 희망을 주는 장소라고 여기셨습니다.

밤 동안의 폭탄 투하와 낮 동안의 공습 때문에 조부모님 댁에 도착하는 데에는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두움과 추위입니다.

아버지는 무사히 돌아오셨지만 우리의 미

래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우리는 전후 독일의 폐허 속에서 미래에 대한 암담함과 절망감으로 인해 절박한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주는 치유의 메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우리를 일상의 비참함으로부터 들어올려 주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가시밭 같았고 상황은 끔찍했지만, 복음은 우리의 삶에 빛과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복음의 평이하고 단순한 진리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고 우리의 정신을 밝혀 주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와 우리 주변의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었으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과 그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상의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던 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간증은 때때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나 나약함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여러분을 그러한 곤경으로부터 아주 높은 곳으로 들어올려 줄 신성한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상황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12:9)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약과 의식에 약속된 축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며,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반복



해서 선포했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빛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모세서 1:39)이 그분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는 구속의 계획에서 핵심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구속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속죄로 인해,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은 육체적인 죽음에서 조건 없이 구속되며,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한다는 조건 하에 자신의 죄로부터 구속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0:17~25; 76:40~42, 50~53; 모세서 6:62 참조)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한 참된 복음이며,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

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습니다.”(모사야서 3:17; 또한 사도행전 4:12 참조)

복음 메시지의 핵심 요소들이 모든 경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물론경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서 가장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전들에서 예수님은 직접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할 그분의 교리와 복음을 간결하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교리와 성약 14:7; 또한 제3니파이 11:31~39; 27:13~21; 교리와 성약 33:11~12 참조)

복음은 명확하며 간결합니다. 복음은 인생의 가장 복잡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지만, 심지어 어린아이도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명백함을 기뻐함이니, 이 같은 방법으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하심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는 이해력에

빛을 주심이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따라 그들이 이해하도록 말씀하심이니라.”(니파이후서 31:3)

선지자 조셉 스미스 역시 우리가 복음의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 받아들여야만 하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신앙개조 4조)을 세상에 설명할 때 명확과 간결함이라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속주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니파이후서 31:19~20) 것입니다.

둘째, 회개. 여기에는 마음의 변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니] 회개”, 죄를 버리고 “어린이와 같이”(제3니파이 9:20, 22) 유순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셋째,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겠다는 성약을 맺는 것입니다.

넷째,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 이는 또한 불의 침례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합니다.(모사이아서 27:26; 베드로전서 1:23 또한 참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신의 은사는 권능을 지닌 자에 의해 주어지며 다음과 같은 자비로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니파이후서 32:5)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을 통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니파이후서 32:3)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하늘의 성스러운 인도는 우리가 생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대해 용감하고 끝까지 견디도록 돕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



[했습니까?]

끝까지 견딤이란 무슨 뜻인가?

경전은 우리에게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은 후에는 “끝까지 견[디어]”(니파이후서 31:20)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끝까지 견딤”이란 주로 교회 모임이 끝날 때까지 졸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견디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 청소년 시절에도 이 경전 구절에 대한 저의 이해는 아주 미미하게 발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청소년으로서 저는 그것을 교회의 연로하신 노인 분들께서 그들의 생이 다할 때까지 버티려는 노력과 연관지으며 끝까지 견디시는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기도 습니다.

끝까지 견딤, 즉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과 의식에 충실하게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된다고 가르치는 다른 많은 기독교 교파들과 후기 성도를 구별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명확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4:7)

따라서, 끝까지 견딤은 단순히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나 “버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행동하는 종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도록 도와서 그들이 이 생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온전히 개발하고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끝까지 견디는 것은 암담하고 우울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양시키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종교이며 희망과 용기, 구원의 종교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니파이후서 2:25)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우리 생의 매분, 매시간, 해가 뜨고 다음 해가 뜰 때까지의 매일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개인적인 수련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삶의 방식이며, 일요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된 축복들을 모두 수확하고자 한다면, 복음은 그저 습관이나 전통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

끝까지 견디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고”(로마서 2:7), 계명을 기꺼이 지키려 하며(니파이후서 31:10 참조), 의의 일을 행하는 것(교리와 성약 59:23 참조)을 뜻합니다. 이것은 희생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 우리는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고, 성전 성약을 존중하며, 교회의 부름과 책임을 수행하고 주님과 서로를 기꺼이 충실하게 섬기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한 성품, 비이기심, 겸손을 뜻하며, 주님과 이웃에 대한 고결

성과 정직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악에 대항하는 강한 요새요 피난처로 만드는 것을 뜻하며,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은 아름답게 순화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마태복음 5:44) 법을 배울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오면서 오는 이 생에서의 축복들은 실제적이고 참으로 중대한 것들이며, 앞으로 올 생에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며 고개가 처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의 복음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시며,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옮기울지라도, 나의 친절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제3니파이 22:10), “너를 공홀히 여기리라. 주네 구속주의 말이니라.”(제3니파이 22:8)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구주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편 147:3 참조) 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살고 있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성한 권능을 통해 여러분은 기쁨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패튼 여사-계속되는 이야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의 필요사항을 아셨기에, 위안을 주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녀가 듣기를 바라셨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제 동료였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그리웁니다. 그분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제 사랑을 전하며 그분은 다른 곳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새로이 지지된 총관리 역원인 아이어링 회장님, 쿡 장로님, 곤잘레스 장로님을 환영하며 그분들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합니다.

38년 전, 템플 스퀘어의 테버나클에서 열린 연차 대회에서 저는 어린 시절 제 친구였으며 어린 나이에 요절한 아더 패튼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패튼 여사님, 아더는 살아있습니다.”¹였습니다. 제 말씀은 교회 회원이 아니셨던 아더의 어머니 패튼 여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패

튼 여사께서 실제로 제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희망과 사랑의 영광스러운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더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으며, 제가 전했던 아더에 관한 그 첫 말씀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아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금발 곱슬머리에 항상 환한 미소를 지녔고 반에서 키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유럽의 대부분 지역을 휩쓸던 1940년, 15세의 어린 나이에 징병관들을 속여 해군에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더와 대부분의 소년들에게 전쟁은 커다란 모험이었습니다. 저는 아더가 해군복을 입고 있던 멋진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서 빨리 나이를 먹거나, 키만이라도 좀 더 커서 입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롱펠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찬란히 빛나는 것인가
환상과 열망과 꿈과 함께!
온갖 시작이 담긴 책, 끝이 없는 이야기.
아가씨마다 주인공이라네, 사나이마다 친구라네!²



아더의 어머니는 자신의 거실 창문을 돋보이게 하는 파란 별을 자랑스러이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 활동적으로 군복무하고 있음을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그녀는 종종 문을 열어 제게 들어오라고 하시고는 최근에 아더에게서 온 편지를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가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럴 때면 더 큰 소리로 읽어 달라고 제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아더는 미망인이었던 그의 어머니에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다시 봉투에 담던 패튼 여사의 거칠고 상한 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손에는 힘겹게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시내에 있는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보도를 따라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양동이와 솔이 들려 있었고, 회색 머리카락은 뒤로 넘겨 단단히 말아 올려져 있었으며, 어깨는 일과 나이로 인해 지치고 굽어 있었습니다.

1944년 3월, 전쟁이 격렬해지면서 아더는 구축함인 USS *Dorsey*에서 항공모함인 USS *White Plains*로 전속되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남태평양의 사이판에서 공격을 받았고, 아더는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들 중 한 명

이 되었습니다.

패튼 여사의 집 앞 유리창에 신성하게 자리하고 있던 파란 별은 떼어지고, 그 자리는 파란 별이 상징했던 사람이 전사했음을 나타내는 금빛 별이 대신했습니다. 패튼 여사의 삶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암흑과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미숙한 소년의 입으로 어떤 위로의 말을 해 드려야 할지 걱정하면서, 저는 익숙한 길을 따라 패튼 여사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패튼 여사는 저를 친아들처럼 껴안았습니다. 비탄에 잠긴 어머니와, 그 아들을 대신한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집은 교회의 예배실과 다름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패튼 여사가 제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토미, 난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너는 다니고 있지. 나에게 말해 주렴. 아더는 다시 살게 될까?” 저는 아더가 정말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간증했습니다.

오래 전의 연차 대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패튼 여사와 연락이 끊어졌지만 “아더가 다시 살게 될까?”라는 그분의 질문에 다시 한 번 대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세상의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

는데, 그분은 지금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여러 마을의 먼지 투성이 길을 걸으셨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귀머슴 사람을 듣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부드럽고 사랑스런 확신을 심어주셨던 분이십니다.³

저는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영원한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하늘과 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인생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나는 장자니라.”⁴ “사람도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⁵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⁶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순종하는지 입증하기 위해 이 장엄한 영의 세계로부터 인생의 큰 무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필멸의 생애 동안 우리는 무력한 유아기를 거치고 호기심에 찬 어린 시절을 지나, 사

려 깊은 성숙을 하며 성장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취와 실망, 성공과 실패 등을 경험합니다. 단 맛도 보고 쓴 맛도 봅니다. 이것이 필멸의 인생입니다.

그런 다음 누구나 죽음이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방문객을 불길하고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아더 패튼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래 목숨을 부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계]”⁷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패튼 여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모범으로 가르치셨다고 단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던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피하는 마르다와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⁹

저는 계시자 요한과 사도 바울의 간증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더라]”¹⁰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



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¹¹

저는 영광스런 부활의 아침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¹²

저는 패튼 여사에게 예수께서 그녀와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신시켜 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라”¹³

말씀 중에 저는 패튼 여사에게, 그러한 지식은 그녀의 상심한 마음을 달래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아들을 잃고 관을 내리는 것을 지켜 보며, “잘 가거라, 내 아들이야. 영원히 잘 가거라.”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믿음 없는 자의 상황에 처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머리를 치켜 세우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신앙의 흔들림 없이 눈을 들어 푸른 태평양의 파도가 부드럽게 부서지는 저편을 바라보며 “잘 가거라, 내 소중한 아들 아더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이라고 속삭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더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는 듯하게 테니슨의 시를 인용해 말해 보겠습니다.

해 떨어진 하늘에 저녁 별,
그리고 나를 부르는 맑은 소리 하나
내가 바다에 배 띄우는 날
나를 위해, 구슬피 울지 말지어다.
이 목숨이 바다로 돌아가는 날 ...
황혼 속에 저녁 종소리,

그러면 어둠이 깔린다.
내가 배를 탈 때엔
이별의 슬픔이 없으라.

시간과 공간의 이승으로부터 나를
멀리 그 물결이 실어간대도
나 저생으로 건너 가면
나를 인도해 주는 안내자를 마주하고 싶으라.¹⁴

오래 전에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패튼 여사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녀의 일을 마음에 두고 계시며, 진지하게 기도하면 그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고 간증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셨으며,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평강의 왕자요, 우리의 구주요 거룩하신 구속주이시며, 언젠가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는 패튼 여사께 드린 제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전해져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69년 4월 6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패튼 여사께서 실제로 제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연차 대회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테레스 패튼 여사가 이시간 켈



리포니아에 사는 어느 후기 성도 이웃이, 연차 대회에서 누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연차 대회의 한 모임을 함께 청취하자고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초대에 응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모임을 청취했습니다.

1969년 5월 첫 주에, 저는 놀랍고 기쁘게도 1969년 4월 29일 자로 캘리포니아 포모나 지역 소인이 찍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테레스 패튼 여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토미에게,
토미라고 불러도 되겠지? 너를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위로의 말을 해 주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더는 해군에 입대했을 때 열다섯 살이었고, 1944년 7월 5일, 19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단다.

우리 생각을 해 주어서 고맙구나. 아더가 막 죽었을 때, 그리고 너의 대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두 번이나 위로의 말을 듣게 돼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나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질문들을 품고 있었던단다. 그런데 네가 그 질문에 답해 주었어. 이제는 아더에 대해 마음이 편하단다. …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길 빈다!

사랑을 전하며,

테레스 패튼”¹⁵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196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그 특정한 말씀을 전하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테레스 패튼 여사가 그 대회의 특정 모임에 이웃의 초대를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녀의 필요 사항을 아셨기에, 위안을 주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녀가 듣기를 바라셨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패튼 여사는 오래 전에 작고하셨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망인인 그녀의 필요 사항을 축복하고 돌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패튼 여사의 간구를 들으셨듯이, 우리가 도움을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¹⁶

그분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주

1. Conference Report, 1969년 4월, 126~129쪽.
2. “Moritus Salutamus”,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Henry Wadsworth Longfellow*(1833년), 259쪽.
3. 요한복음 14:6.
4. 교리와 성약 93:21.
5. 교리와 성약 93:29.
6. 예레미야 1:4, 5.
7. 엘마서 9:11.
8. 요한복음 11:25~26.
9. 요한복음 14:2~3.
10. 요한계시록 20:12~13.
11. 고린도전서 15:22.
12. 고린도전서 13:12.
13. 마태복음 11:28~29.
14. 알프레드 로드 테니스, *Poems of the English Race*, ed. Raymond Macdonald Alden에서 “Crossing the Bar”, 1921년, 362쪽.
15.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소장한 개인 서한.
16. 요한계시록 3:20.

신앙, 가족, 사실, 그리고 열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가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질문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1997년에 개척자들의 솔트레이크 계곡 도착 150주년을 기념한 이래로, 전세계적으로 교회에 관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이렇듯 커가는 관심은 교회의 빠른 성장,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과 같은 행사, 그리고 많은 교회 회원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문 분야에서 보여주는 탁월함 덕분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교회뿐만 아니라 회원인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의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교회와 회복된 위대한 복음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이 다

른 질문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한 부분에 관한 질문조차도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일반적인 요청은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귀하의 교회에 관해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조금”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한 후에, 나머지 것들도 모두 말해 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환영하며, 많은 사람이 우리의 교리와 믿음에 관해 더 많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계 전역에서 자비로 봉사하는 53,000명 이상의 전임 선교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심과 단순한 호기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단순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미디어나 다른 외부의 목소리에서 나올 수 있는 불완전한 대답, 부분적인 진실, 또는 거짓 진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회원인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직접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많은 오해와 거짓 정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믿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우리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 공보 위원회는 오늘날

이 교회의 기본사향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제시할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저는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가 찾은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대화의 주제들을 모아 자신만의 목록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 그랬듯이, 신앙개조 사본과 함께 오늘날 이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한 장 분량으로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교회에 관한 기본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제목마다 제가 찾아낸 몇 가지 도움이 되는 간략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설명을 듣거나 읽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주요 주제들은 **사실, 신앙, 가족, 그리고 회복된 복음의 열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들

몇 가지 사실들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몰몬”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별명입니다. 회원들은 종종 “몰몬”, “후기 성도”, 또는 “LDS”로 불립니다. “성도”란 용어는 “회원”을 뜻합니다.
- 두 번째, 이 교회는 첫 번째 선지자이자 회장인 조셉 스미스에 의해 뉴욕 주 북부 지방에서 1830년에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본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으며, 현재의 선지자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입니다.
- 세 번째, 현재 176개 국가와 영토에 천 삼백 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 약 육백만 명이 미국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이 교회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기독교 교파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기독교 종파의 하나로서, 평일에 매일 새로운 예배당을 한 채씩 짓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수입의 10%를 십일조로 냈으로써 예배당 신축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능케 합니다.

- 네 번째, 무보수로 자원 봉사하는 회원들이 지역 모임을 인도합니다. 남자와 여자들 모두가 지명된 지도자의 직분에서 봉사합니다.

- 다섯 번째, 정치 및 정부 기관에서 회원들이 물문을 훌륭하게 대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미국의 양 정당에는 16명의 교회 회원인 국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전역에 있는 회원들이 경영, 의료, 법률, 교육, 미디어, 스포츠 및 오락 분야에서 명망 있는 높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앙

다음으로, 사람들은 강한 전통적인 가치를 지닌 헌신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신앙에 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개조와 함께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조해야 합니다.

- 우리는 영혼의 영원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이심을 믿으며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성찬을 취하는 것과 비슷하게, 일요일 예배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주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같은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그들과 공유하고 있는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핵심이시며, 그 외 모든 것은 이에 부가적인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조셉 스미스, *The Elders Journal*, 1838년 7월, 44쪽) 그래서 교회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초기 교회가 사라졌다가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남성들이 받는 권세인 신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구원의 모든 필수 의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되었습니다.

- 우리는 성경, 즉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모두를 믿으며 또한 이를 사용합니다.

-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지지하고 그것의 진실됨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성역과 신성 및 인간이 받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계시에 대해 증거하는 물문경과 다른 경전들을 믿습니다. 참으로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가족

사람들이 알아 두면 좋은 다음 주제는 어떻게 우리의 신학과 생활 방식이 가족 중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의 간략한 설명들은 우리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잘 모르지만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물문들은 특히 교회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에 관해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정의되는) 결혼에 대해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초기 개척자 시대에 제한적으로 실시했던 일부다처제는 약 117년 전인 1890년에 중단되었습니다.

- 우리 교회의 회원이든 아니든, 가족들은 우리의 예배당에서 갖는 일요일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경전의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 후기 성도 가족들은 보통 매주 월요일

저녁에 “가정의 밤”을 갖도록 권고를 받습니다. 가정의 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가르칠 시간과 서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규칙적이고 안정된 시간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자신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을 갖도록 권고합니다.

- 교회에는 가족을 보조하는 여성,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종교 교육, 기독교인으로서의 봉사, 스포츠, 연극, 음악 및 스카우트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 또한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더 큰 유대감, 동질감, 소속감을 제공하는 대가족, 계보 및 개인 가족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성스러운 의식들은 살아있거나 돌아가신 모든 가족들과 관련이 있으며 이 의식들 중 일부는 성전에서 행합니다.

열매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과 가족의 중요성을 통해 우리를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혹은 삶의 방식은 그것이 가져오는 열매 또는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 미국 통계를 기초로 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종교에 따라 생활하는 물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것입니다.(여기서 물문은 정기적으로 교회와 성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 열매들 중 하나는 장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교에 따라 생활하는 물문들은 더 건강하며 국가의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삽니다. 1833년에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위한 삶의 방식인 “지혜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 둘째, 성전에서 결혼하고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은 미국 및 세계 평균 이혼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 셋째, 우리는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 넷째, 70,000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이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세계 전역에서 자비로 인도주의적 봉사, 지명된 교회 봉사 및 전임 선교사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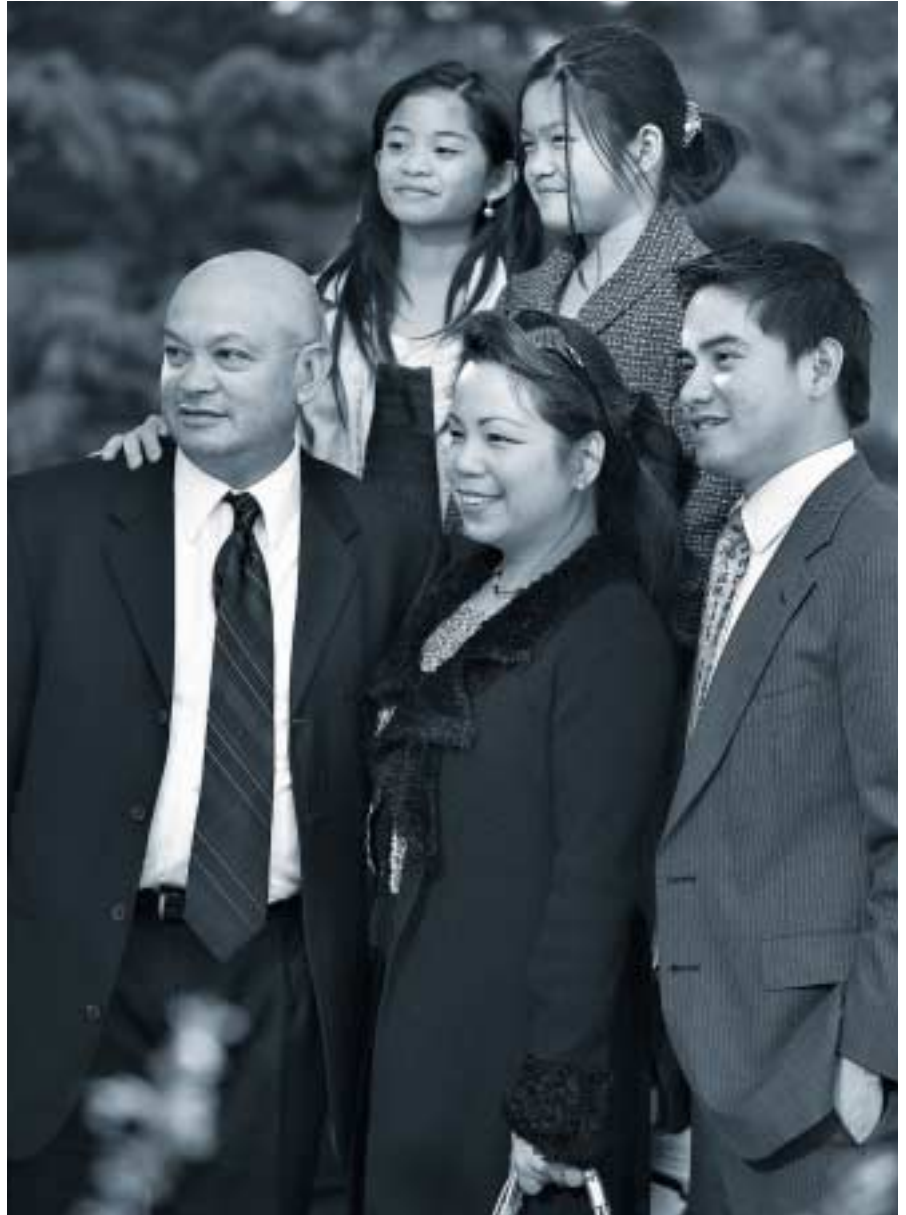
- 다섯째, 우리는 자립과 강한 노동 윤리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회는 재난 복구와 구제를 위해 회원들이 바치는 셀 수 없는 봉사 시간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인도주의적 대업에 상당한 돈, 물품 및 봉사를 계속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바쁜 세상에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에 몇 가지 이상의 중요한 사실들을 읽거나 그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친지들에게 교회에 관해 알리는데 사용할 것으로 무엇을 택하든, 그것들을 적어보고 정확한지 확인해 본 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십시오.

교회가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질문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믿는지, 우리 스스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 버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러한 발전은 더 큰 오해와 편견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회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관해 아주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모르는 사람 혹은 경우에 따라 고의로 오도하거나 중상 모략하려는 사람들이 전하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 우리를 판단하기보다는 회원들을 통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사실, 신앙, 가족 및 복음의 열매 등과 함께 신앙개조에서 찾을 수 있는 기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



습니다.

우리는 또한 때로 사람들의 관심사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가에 의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 몇 가지 기본사항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선교사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3장부터 나오는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개종과 침례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것처럼 몇 가지 간단한 사실들을 준비하여 교회에 관해 조금 알고 싶어하고 훗날 복음의 회복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할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는 일을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간증의 힘은 부인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알고자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저의 확고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큰 계명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 지극히 작은 자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 때,
그것은 그분께 행하는 것입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기 1세기, 고린도에서 날로 성장하고 있던 교회의 회원들은 복음에 관해 열성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또한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다툼을 벌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고소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좌절감을 느끼며 그들에게 더욱 단합하도록 호소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논쟁하고 있던 많은 질문에 관해 답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편지 말미에서 “가장 좋은 길”¹을 그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²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직설적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의 은사를 지니고, 모든 비밀을 이해하고, 모든 지식을 지닐 수 있으며,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만한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³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⁴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을 경멸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할 때조차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번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으로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⁵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관해 대대적으로 토론한 적이 있었고 600개도 넘는 계명을 찾아냈습니다.⁶ 그것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학자들에게도 힘든 일이었으므로, 그들은

분명 갈릴리 출신의 목수 아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것은 자신들의 큰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⁷

그날 이후, 이 영감에 찬 선언은 여러 세대를 거쳐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닌 사랑의 크기는 우리 영혼의 고귀함을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경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⁸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니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영이 큰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1840년, 선지자 조셉은 십이사도들에게 서신을 보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신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를 생각하며 온 인류를 축복하고 싶어합니다.”⁹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¹⁰는, 큰 계명의 나머지 반을 성취하게 됩니다.

두 계명이 모두 필요한데, 이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들어 줄 때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¹¹

사랑은 제자가 걷는 길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끝입니다. 그것은 위로하고, 권고하고, 치료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것은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장막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를 영생의 영광과 장엄함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보기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항상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가 그토록 많은 추종자를 얻고 유지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것은 제가 사랑의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¹²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나부 근처에 살고 있던 형을 찾아 그곳으로 온 열네 살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소년은 돈이나 친구도 없이 한겨울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소년이 형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호텔처럼 보이는 큰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들어오 너라, 애야, 우리가 너를 돌봐 주마.”라고 말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소년은 제안을 받아들여, 그 집으로 들어가 먹고, 몸을 녹이고,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음날, 혹독하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13 킬로미터를 걸어 형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집 주인은 어린 소년에게 잠시 더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는 곧 마차가 도착할 테니 그 마차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년이 자기에게는 돈이 없다고 말하며 제안을 거절하자, 그 사람은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이 계속 그를 돌봐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훗날 소년은, 그 집 주인이 다름 아닌 몰몬 선지자, 조셉 스미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일생 동안 사랑에 찬 이 행동을 기억했습니다.¹³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의 음악과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최근 메시지에서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온 한 연로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시력을 잃어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해 온 방법으로 자신을 더 이상 가꿀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을 받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톱을 적절한 각도로 눈 가까이 가져가면 그녀가 자신의 손톱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으로 인해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행복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오 년 이상 매니큐어를 발라 주었습니다.”¹⁴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예입니다. 때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시인과 작가들이 만들어 낸 극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종,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단순한 행위를 통해 나타납니다.

참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것은 영

원히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해 지니고 계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같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때에도, 우리의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자신을 포기한다 해도, 그분은 결코 그러시지 않을,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휘둘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우리가 장차 달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화시키는 복음이며, 그것은 지상에 사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상속하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갈고 닦아 줍니다.

이렇게 우리를 갈고 닦는 방법은 우리가 지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누



대회를 통해 듣게 될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고대하고 있는 인도 뉴델리의 두 자매

그러뜨리지 못할 고통도, 제거하지 못할 쓰라림도, 변화시키지 못할 미움도 없습니다.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는 “인생의 고통과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¹⁵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공간은 사랑의 정신으로 채워지는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쁨도 큼니다. 끝으로, 그러한 사랑의 발전은 인생에서 참된 성공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숙고하십시오. 그분의 명어를 메십시오. 이해하고 순종하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¹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순종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적게 찾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고양시킬 것들을 찾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정화됩니다. “큰 변화를” 경험하여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어지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¹⁷ 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더 조화롭게 만들고 더 영성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여러분의 성스러운 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성취하는 그 밖의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밖의 모든 것들은 활기차게 되고 생기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도록 영감을 주고 가르칠 때, 순종은 봉사와 자기 희생의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안에서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책임을 완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자신의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른 태도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¹⁸

마지막 날에 구주께서는 우리가 받았던 부름의 종류에 관해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재산이나 명성에 관해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돕고, 굶주린 이를 먹이고 마시게 했는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문했는지, 혹은 연약한 이를 도왔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¹⁹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 지극히 작은 자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 때, 그것은 그분께 행하는 것입니다.²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구주의 생애를 숙고해 보면 됩니다. 성찬 상징물을 취할 때,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랑의 모범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²¹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구주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 … 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²² 했습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므로²³, 우리는 소망의 밝은 빛과 자신감과 안도감을 갖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거쳐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²⁴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²⁵라는 새 계명을 주셨을 때, 예수께서는 이생에서의 행복과 다음 생에서의 영광에 대한 원대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은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사랑은 발전시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크게 향상시켜 줄 특성입니다.

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미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주셨으며, 가르치고, 위로하고, 영감을 주는 성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경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더욱 풍요로운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고린도전서 12:31.
2. 고린도전서 13:1.
3. 고린도전서 13:1~2 참조.
4. 모로나이서 7:47.
5. 마태복음 22:36.
6. 프레드릭 더블류 퍼렐, *The Life of Christ*(Salt Lake City: Bookcraft, 1994년) 528~529쪽.
7. 마태복음 22:37~40.
8. 고린도전서 8:3.
9. *History of the Church*, 4:227.
10. 갈라디아서 5:14.
11. 갈라디아서 6:2 참조.
12. *History of the Church*, 5:498.
13. Mark L, McConkie, *Remembering Joseph, Personal Recollections of Those Who Knew the Prophet Joseph Smith*, 2003년, 57쪽.
14. "이타심" 2007년 9월 23일, *음악과 진리의 말씀*, <http://musicandthespokenword.com/messages>에서 볼 수 있음.
15. *Oedipus at Colonus, the Oedipus Cycle*에서, Robert Fitts와 Robert Fitzgerald 공동 번역,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1949년), 161~162쪽.
16. 요한1서 5:3.
17. 모사이야서 5:2 참조.
18. 요한복음 13:35 참조.
19. 마태복음 25:31~40 참조.
20. 마태복음 25:40 참조.
21. 요한복음 3:16.
22. 교리와 성약 19:18.
23. 요한복음 15:13 참조.
24. 고린도전서 2:9; 또한 이사야 64:4 참조.
25. 요한복음 13:34.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브루스 디 포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합니다.



저는 조셉 비 워스린 장로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1897년에 시인 루드야드 키플링은 교만에 대해 대영제국에 전하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글을 썼습니다.

소동과 외침은 사라지고,
대장과 왕들은 떠나는데,
그 옛날 그대의 희생은 그대로네,
우리 겸손하고 상한 심령.”
(*God of Our Fathers, Known of Old*, 영문 찬송가, 80장)

키플링이 그 옛날 희생으로서 통회하는 심령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아마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 왕의 말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17절). 다윗의 시는 구약 시대에서조차도 주님의 백성은 번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경륜의 시대에서 요구된 희생 제물들은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메시아의 속죄의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앰올레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라, 이것이 율법의 온 뜻이니, 곧 모든 것이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을 가리킴이라 ...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엘마서 34: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번제를 폐할지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하나도 받지 아니할 것이니라 ... 이에 너희는 상한 마음 ... 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제3니파이 9:19~20).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왜 희생으로 간주됩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구주의 생애에서 완벽한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생을 사셨습니다. “내가 하늘



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6:38).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 내게 배우라”(마태복음 11:29). 그리고 속죄에 수반된 최후의 희생을 치를 때가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고도 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 드린 구주의 완전한 순종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완전한 모범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상한 마음이란 경건의 영원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이 모두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요구하는 희생은 모든 형태의 교만을 버리는 희생입니다. 숙련된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상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주님의 손안에서 반죽이 되어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역시 회개의 전제 조건입니다. 리하이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즉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아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나니 … 보라, 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율법의 목적이 부응될 수 없느니라” (니파이후서 2:6~7).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바랄 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은 “회개함에 이른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린도후서 7:10)을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려는 소망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화평을 맛보고자 원할 때 옵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반항이나 원망 없이 기꺼이 행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렇게 유순해진 상태에서 속죄는 효력을 발휘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회개한 사람들은 양심의 평안과, 하나님과 화해한 기쁨으로 그들을 채워주는 성신의 성결케 하는 권능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성한 속성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거할 때, 우리에게 상한 마음으로 생활하도록 가르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 받을 때, 상한 마음은 유혹에 대항하는 신성한 방패가 됩니다. 니파이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였으나 심령이 통회하오니, 지옥의 문이 내 앞에서 내내 닫혀 있기를 원하나이다!”(니파이후서 4:32) 베냐민 왕은 만일 그의 백성들이 지극히 겸손하게 산다면, 그들이 항상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하게”(모사야아서 4:12)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칠 때 세상적인 매력은 간단히 그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받으신 고통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구주께서 모든 인간을 위한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분은 “만물 아래로 … 내”려 가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6) 골고다에서 그분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이사야서 53:12)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완전한 사랑으로 그분의 큰 심장은 문자 그대로 터질 듯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주와 그분의 고통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도 구주에 대한 감사로 벅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 전부를 그분께 희생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화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이사야서 61:1)실 것이며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난게 감미로우며 … 순결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난게 순결한”(엘머서 32:42)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회원과 선교사를 하나로 만드는 도구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선교사와 회원들은 ... 복음을 전파하는 노력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두 명의 자매 선교사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했고, 잘 준비된 그들은 경전 읽기와 성구 표시하기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새 물문경과 색연필 한 세트를 가져왔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 우리의

일일 가족 물문경 읽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성구를 보게 되면 각기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작은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선교사들이 이 활동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에 나와 있는 성구 학습 활동이란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선교 사업을 위한 이 위대하고 강력한 도구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의 선교사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지도서는 실로 선교 사업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토론의 개념을 완전히 익히도록” 한다는 헝클리 회장의 위대한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성신이 인도하시는 영향력에 따라 복음의 개념들을 자신의 표현으로”(선교사 봉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19쪽 참조) 가르칩니다.

선교사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숙지

하면서 선교 사업을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중요한 교리와 원리들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일할 때만 “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는 고대 및 현대의 사도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선교사들과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선교사들의 언어를 이해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선교 사업을 행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듣도록 권유하는 것을 보고 관찰합니다. 선교사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침례 받아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도록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권유합니다.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돕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교사들이 신앙을 가진 것처럼 신앙을 가져야 하고, 선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하며 선교사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선교사들과 함께 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또 한 가지 방법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숙지하면서 선교 사업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맥케이 회장님께서 “모든 회원은 선교사”(Conference Report, 1959년 4월, 122쪽)라고 말씀하신 이래로 회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권유를 실천하는 데 더 훌륭한 도움을 주는 지도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선교사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한 권씩 갖고 있습니다. 이 지도서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강한 간증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



대회 모임에 참석한 캐나다의 선교사들

이 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봉사에 대한 소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iii 쪽)의 소제목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가?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가르치는가?

물문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더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기 원하고 선교사들을 돕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유용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들을 찾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배우고 회원으로서 구도자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선교사들과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실천하라는 강력한 권유가 왜 예수 그

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배우며, 우리의 비회원 친구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개종의 과정을 경험할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매일 경전 공부와 더불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공부합니다. 그들은 원리와 기술을 배우고 그것들을 적용합니다. 특히 그들은 선교 사업에 영의 인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선교사들이 학습하듯이 우리들도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주의 깊게 공부하고 선교사들이 매일 하는 선교 사업을 관찰해야 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교회의 전임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르치는 원리와 교리는 와드 선교사와 지도자들이 주님의 왕국 건설을 추구할 때 그들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이 자료들을 자주 공부하면 그들은 회원 선교사로서 책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임 선교사들과 단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xi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모든 회원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소개된 이래 ... 많은 훌륭한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특별한 선교 도구를 보다 능숙하게 사용하게 될 때 가장 훌륭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힘, 리야호나, 2005년 5월호, 31쪽)

이 지도서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경전 공부와 함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 선교사들을 가정에 초대하여 여러분과 가족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원리와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 이따금 가정의 밤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사용하십시오. 청소년 자녀들이 선교사가 가르치듯 가족을

작은 일에서

마이클 제이 테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고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사 랑스럽고 훌륭한 필리핀 성도들의 안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더욱 심오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참으로 흥미롭게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인이 던진 질문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¹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답은 엘마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될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²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고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함

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적들을 설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봉사는 인종, 피부색, 사회적 지위, 또는 인간관계와 무관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³ 는 계명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봉사를 하려면 꿈꿈히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봉사 계획들도 도움을 주지만, 오늘날 세상에서 필요한 봉사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서로 간에 맺고 있는 매일 매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와드에서 찾게 됩니다.

시 에스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등장하는 교활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악마 워우드에게 주는 다음과 같은 충고는,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과멸시키려는 사람의 영혼에는 약간의 선의와 약간의 악의가 공존 한다. 잘된 일은 그가 날마다 만나는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돌리고, 멀리 있고 그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푼다는 것이지. 그래서 악의는 정말 실체가 되고 선의는 대개 상상 속에 존재하게 된다.”⁴

귀에 익은 다음 찬송가의 가사는 완전한 처방을 제시합니다.

가르치게 하십시오. 우리 집에서는 가끔 자녀들이 놀랄 만큼 훌륭한 공과를 가르치곤 합니다. 저희는 자녀들이 간단한 원리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 토론에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 복음 교사들은 정해진 학습 과정에 대한 보조 자료로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요약되어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복음 교육 원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 회원들이 사용하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교회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모든 복음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경전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스코트 장로님은 지역 교회 지도자들에게 “... 회장단에서, 신권 집행 위원회에서, 와드 평의회에서”(리아호나, 2005년 5월호, 31쪽) 이 자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훈련 모임, 말씀, 영적인 말씀, 공과, 노변의 모임, 개인 학습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 선교사 지도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는 것을 간중드립니다. 우리는 이 책을 더욱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교사와 그들의 사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와 회원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노력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나은 주님의 손 안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와 같이 나는 땅의 사방에서 나의 백함을 받은 자 곧 나를 믿으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모두를 모으리라”(교리와 성약 33:6)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임 과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중드립니다. 아멘. ■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궁핍한 사람 도왔나
 슬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줬나
 우리 실수하지 말고 남의 짐을 즐겨
 짊어집시다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위로하세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깨어나 일해 봅시다 말로써만 하지 말고
 선행은 한량 없이 기쁘고 사랑과 큰 의무의

축복일세”⁵

다음은 제가 목격했던 일들인데, 이 일들은 단순한 봉사의 행동이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를 돕도록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홀로 헤매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들은

인내와 사랑으로, 모범을 통해 도움을 줍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길을 택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신권 지도자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주고 도전하도록 격려했으며 저를 위해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전임 선교사로 나가 있던 누나는 제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썼으며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선한 남성과 여성들의 지지와 도움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가장 보람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편 의상 프레드 삼촌이라고 부를 사람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제가 여섯 살이었을 때, 프레드 삼촌은 악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이웃이었는데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가 즐기던 취미 중 하나는 우리 집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요리를 매우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작은 지부의 독신 회원들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느 날 프레드 삼촌이 정신이 맑았을 때, 이 독신 회원들은 그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고, 또한 그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사건은 제게 공포였습니다. 그는 이제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방문이 몇 번 더 있은 후, 그들은 마침내 프레드 삼촌을 설득하여 선교사 토론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임선교사로 봉사하고 영예롭게 귀환했으며, 학업을 계속하고,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는 이제 의로운 남편이요, 아버지이며 신권 지도자입니다.

다. 오늘날 프레드 삼촌을 보면 그가 예전에 여섯 살 난 소년에게 악몽 같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믿기 힘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기회에 대해 언제나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영향을 준 가르침은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돕고자 했던 어머니의 열의였습니다. 저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우리 음식과 옷 그리고 심지어 돈을 받아 들고 집을 나서는 것이 몹시 싫었습니다. 저는 어렸고,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러한 광경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에게도 충분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남에게 주는 것일까? 우리의 필요사항부터 살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자격이 있지 않은가?

오랫동안 저는 이러한 질문으로 고민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마침내 어머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어머니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⁶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 대단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마음을 고양시키며, 용기를 불어넣고, 붙들어주며, 미소 짓게 하는 일상의 단순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봉사할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 창세기 4:9; 모세서 5:34.
- 모사야서 18:8~9.
- 교리와 성약 81:5.
- The Complete C. S. Lewis Signature Classics* (2002), 201쪽.
-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 찬송가, 182장.
- 교리와 성약 64:33.

속 사람을 살게 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니

키스 칼튼 힐비그 장로
철심인 정원희

우리가 빛과 지식으로 생각을 채우기 위해 성신을 초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즉 속 사람을 가르치고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



데 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회원들에게 성도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특성과 행동들을 열거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짤막한 권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 글을 쓰기 약 500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물문경의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저버리겠으며 ...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 성신의 은사를 부인하며 성령을 소멸 ... 하겠느냐?”¹

바울과 야곱의 시대로부터 여러 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 생활에서 성령을 방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매혹적인 손짓은 우리의 관심을 험착하고 좁은 길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십대년 청년 성인인든 혹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성령의 속삭임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무디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 즉 성신의 역할은 우리의 필멸의 생활에서 언제나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그분의 영의 아들과 딸들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와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영생의 축복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승영을 향한 여정이 길고 힘들고 때로는 외로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우리가 결코 홀로 여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앙, 회개, 침례의 선결 조건을 갖추는 모든 이에게 동반자이자 인도자인 성신을 마련해 주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끝없이 앞으로 그리고 위로 뻗어나가는 경사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 에너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탄의 사악하고도 파괴적인 저항이 계속 되기 때문에 성신의 지속적이고 지혜로운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속삭임을 방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소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속삭임과 축복을 생활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은 특권에 훨씬 못 미쳐 생활하고 있습니다.”²

값진 진주에서 모세는 아담이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은 후에, “속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³

우리가 빛과 지식으로 생각을 채우기 위해 성신을 초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을 가르치고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⁴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강화되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과 열정을 갖게 되며, 그것들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

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신을 받은 후에 얻게 되는 특권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 대가는 미리 결정되거나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불금”, 즉 개인적인 노력을 아주 낮게 책정했다면, 성령이 주고자 하는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개인적인 헌신을 높게 책정했다면, 성령으로부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불금”은 물론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영적 노력과 행동에 대한 더 큰 결심이며 참여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현재 우리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헌신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나는 교회 참석이나 부름보다 스포츠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가?
2. 나는 한가한 날에 성전에 참석하는가, 아니면 쇼핑하러 가는가?
3. 나는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봉사를 하기보다는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지는 않는가?
4. 나는 매일같이 신문은 읽으면서 매일 경전을 읽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가?

현재 여러분의 선택과 우선 순위의 적합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줄 다른 질문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현재 어떤 수준의 영적 발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자산입니다. 끊임없는 성신의 동반을 누리고 성신의 영향력을 더 온전히 받기 위해 영원한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예”라면,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데 드는 최초 비용은 바로 더 큰 영감을 받고, 더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



는 대가를 더 많이 치르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우리가 다음으로 헌신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더 꾸준히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더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서 성신의 영향력도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손에 펜을 들고 새로운 통찰을 메모하고 영적인 느낌을 기록하면서 경전을 “탐구”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배운 것을 개인 생활에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영은 우리의 속 사람을 살게 할 것이며, 새로운 이해가 교훈에 교훈을 더하듯 올 것입니다.

영을 소멸하지 않고, 그의 임재하심을 초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취해야 할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주의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약속이 교리와 성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⁵

형제자매 여러분, 그 순서를 유념하십시오. 우리는 구주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킬 때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진지하게 간구합니다. 그러면,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하늘의 인도를 받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금식하고, 성찬식 동안 성약을 새롭게 하며, 성전에 참석할 때, 우리는 영을 더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신은 그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성전은 개인적인 계시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곳입니다. 참석할 수 있는 한 자주 가서 깊이 경청하고 영원에 관한 영광스러운 약속과 기대에 대해 숙고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더 잘 이해하며 성전을 나서게 됩니다. 성신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내릴 때 영원한 안

목을 갖게 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속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견딘다면, 영생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불순종이나 태만을 통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성령으로 살며”⁶ 성신의 거룩하고 중요한 역할을 증진시키도록 합시다. 저는 우리가 진심으로 영을 구할 때, 조용하지만 중요한 성신의 작용을 통해 더욱 충만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야곱서 6:8.
2. Brigham Young,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32쪽.
3. 모세서 6:65.
4. 팔리 피 프랫, *Key to the Science of Theology*, 9th ed.(1965), 101: “성신의 은사는 ... 모든 지적인 능력을 일깨우며, 모든 천성적인 감성과 사랑을 증대시키고, 확대하고, 확장하고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품을 지혜의 은사를 통해 율법에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해준다.”
5. 교리와 성약 88:63~64.
6. 갈라디아서 5:25.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독립된 개체이며 세 분의 신성한
인격체라는 것이 경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벨라드 장로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상반된 우리 시대의 경향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대의 사람들에게 이 후기의 사명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¹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의 경이로움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권유할 때, 한 가지 그들이 궁금하게 여기지 않았

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대체로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두 가지 교리적 쟁점, 즉 신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성경에 추가될 수 있는 지속적인 계시의 원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신앙을 변명할 필요는 없지만, 오해를 받는 일도 원치 않습니다.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분명히 선언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저는 오늘 방금 언급한 두 가지 교리적 쟁점 중 첫 번째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신앙개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² 우리는 신화를 구성하는 이 신성한 세 분이 목적과 방법과 간증과 사명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동일한 자비심과 사랑, 공의, 은혜, 인내, 용서, 그리고 구속과 같은 신의 속성으로 충만함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니기에 경전에 결코 언급되지 않은 삼위일체설, 즉 그분들이 하나의 물질로 결합되어 있는 세 가지 인격체라는 믿음을 제외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하고 영원한 특성에 있어서 그분들이 하나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Harper's Bible Dictionary*(하퍼 성서 사전)에는 “4~5세기경 교회 대 평의회에서 정의한 삼위일체의 공식 교리는 [신약전서]에 나오지 않는다.”³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신에 관한 현대의 기독교적인 견해를 고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신약시대 이후의 기독교 역사와 다르며,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약시대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니케아 종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큰 쟁점이었던,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주장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 성직자, 철학자, 고위 성직자들의 열띤 논쟁을 통해 나온 결과가 (이후 125년 동안 세 번의 주요 종교 회의 끝에)⁴ 바로 니케아 신조였던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후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으로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차례에 걸친 신조의 진화와 개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제정된 다른 신조들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신은 추상적이며, 절대적이고, 초월적이며, 무소부재하며, 동체이며, 영원히 공존하며, 불가해하고, 육신 지체 또는 감정이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그 신조에 따르면, 세 분 모두 개체이지만 동시에 한 분입니다. 이는 종종 “삼위일체설의 신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들은 세 분의 독립된 개체이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세 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신성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비평가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혼란스러운 개념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점을 생각



하면, 4세기의 수도사들이 ‘아 슬프도다! 그들이 내게서 나의 하나님을 빼앗아 갔구나. ... 내가 누구를 숭배하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도다.’⁵ 하고 부르짖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을 닮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 즉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⁶라고 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종교의 교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교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교리를 존중합니다. (이것 역시 신앙개조의 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화에 관한 4, 5세기 당시의 견해를 고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초기의 기독교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음에도 신화에 관해

4, 5세기의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독립된 개체이며 세 분의 신성한 인격체라는 것을 틀림없고 명백한 다음의 사건들, 즉 방금 언급한 위대한 구주의 중재 기도, 요한의 손을 통해 받은 그의 침례, 변형의 산에서의 경험, 그리고 스테반의 순교 등 네 가지 예에서 경전자체 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신약전서에 나오는 이러한 예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많은 예들⁸을 볼 때, 예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⁹라고 말씀하신 뜻을 묻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¹⁰ 예수께서는 적대자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¹¹ 물론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 어린 순종심을 항상 갖고

계셨으며 이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즉 하나님] 이시니라”¹²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¹³

예수께서는 “아버지시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¹⁴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¹⁵라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포함하여 그 모든 세월 동안 누구에게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셨습니까? 완전하게 일치된 신회의 구성원들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라는 경전상의 증거를 인정하는 것이 다신론의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성한 분들의 속성에 관해서 예수께서 내려주신 위대한 계시의 일부입니다. 어찌면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코”¹⁶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기독교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고대 선지자와 사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 육신을 갖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¹⁷ 경전에 근거를 둔 이 믿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문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불편하다면,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육신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는 교리)과 속죄, 육신의 부활이 모든 기독교의 중심 교리이며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됩니까? 육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왜 인류의 구속주께서 사망의 권세와 무덤으로부터 그분의 육신을 구속하시고 현세는 물론 영원토록 다시는 영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까?¹⁸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필멸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두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독교 사상에 관해 궁금해 하였던 분들 중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지시 아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동정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고, 생애 동안 제자들은 물론 적들도 목격할 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힘을 갖고 계셨지만, 그분 역시 잠시 필멸의 상태에 계셨기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기꺼이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고, 아담으로부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있을 모든 슬픔과 질병, 모든 마음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무덤을, 영적으로는 지옥을 이기셨으며, 인간의 가족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부활의 과정을 완성하기



페루 우앙카요에서 두 명의 어린 소녀가 일요일 아침 모임을 시청하기 위해 출발할 준비를 마치고 집 밖에서 있다.

위해 아버지께 올라가신 후에, 구세계와 신세계에 있던 수백 명의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되풀이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공덕과 자비와 영원한 은혜¹⁹에 의지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리에 대한 저의 간증을 덧붙이자면, 복천년의 통치를 준비하시면서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육신을 가진 예수께서 이미 한번 이상 지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820년 봄,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바로 그 교리들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열네 살 소년은 기도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드린 진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로운 육신을 가진 개별 인격체로서 소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된 신약의 복음으로 되돌아가는 시점이자,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다른 선지자들이 전한 진리의 회복을 알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의 증언이 참되며 하늘은 똑같은 확신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진리의 성신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²⁰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말뿐만 아니라 행위에서도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29:14.
2. 신약개조 1:1.
3. Paul F. Achtemeier 편집, *Harper's Bible Dictionary* (샌프란시스코: Harper and Row, 1985), 1,099쪽.
4. 콘스탄티노플, 서기 381년; 에베소, 서기 431년; 칼시돈, 서기 451년.
5. Owen Chadwick, *Western Asceticism*(1958), 235쪽에서 인용.
6. 요한복음 17:3.
7.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로빈슨의 *Are Mormons Christian?* 71~89쪽 참조. 또한 로버트 밀레트의 *Getting at the Truth* (2004), 106~122쪽 참조.
8. 예를 위해, 요한복음 12:27~30, 요한복음 14:26, 로마서 8:34, 히브리서 1:1~3 참조.
9. 요한복음 5:19, 14:10.
10. 요한복음 6:38.
11. 요한복음 15:24.
12. 마태복음 19:17.
13. 요한복음 14:28.
14. 마태복음 26:39.
15. 마태복음 27:46.
16. 빌립보서 2:5~6.
17. 데이비드 엘 포울센, *Early Christian Belief in a Corporeal Deity: Origen and Augustine as Reluctant Witnesses*, *Harvard Theological Review*, 83:2, (1990년), 105~116; *The Doctrine of Divine Embodiment: Restoration, Judeo-Christian,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BYU Studies*, 35권, 4번 (1996년), 7~94; 제임스 엘 쿠겔, *The God of Old: Inside the Lost World of the Bible* (2003년), xi~xii, 5~6, 104~106, 134~135; 클라크 피녹, *Most Moved Mover: A Theology of God's Openness* (2001년), 33~34쪽 참조.
18. 로마서 6:9, 갈라서 11:45 참조.
19. 니파이전서 10:6; 니파이후서 2:8; 31:19; 모로나이서 6:4;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로마서 3:24 참조.
20. 요한복음 17:3.

경전상의 증거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복의 경전은 성경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보완합니다.



우리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 쿠엔틴 엘 쿡 장로님, 그리고 윌터 에프 콘잘레스 장로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그분들의 새로운 부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서 우리나라는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봉사와 온정의 모범이 크나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역사와 교리에 대해 궁금해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몰몬경을 비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¹

몰몬경이나 다른 거룩한 경전을 무시하는

일은 세계 큰 근심이 됩니다. 그런 근심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경전상의 증거”로 정해보았습니다.

정의

‘경전상’이라는 용어를 성경과 회복에 대한 경전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² 교회 회원들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³ 회복의 경전에는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도 포함됩니다.

사전에는 증거라는 명사가 “사실 또는 사건의 증명, 즉 증언”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⁴ 증거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될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는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⁵ 이 말은 신성한 교리가 하나 이상의 경전상의 증거로써 확인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인해줍니다.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함

성경과 몰몬경, 이 두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셨으며, 온 인류를 위해 속죄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셨다고 가르쳐줍니다. 두 경전은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고 가르쳐줍니다.

경전상의 증거들은 서로의 권위를 확증해

줍니다. 이 개념은 한 선지자가 오래 전에 몰몬경이 “너희로 [성경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 바, 만일 너희가 [성경을 믿으면 너희는 [몰몬경]도 믿을 것이요”라고 기록했을 때 이미 설명되었습니다.⁶ 각 경전은 서로를 가리킵니다. 각 경전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⁷

몰몬경에 대한 사랑은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경전은 성경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보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과 행복의 계획에 관한 영원한 본질을 확립해줍니다. 몰몬경은 십일조⁸, 성전⁹, 안식일¹⁰, 신권¹¹과 같은 성경상의 교리들을 회복하고 또 강조합니다.

한 천사는 몰몬경¹²이 성경의 진리를 입증해 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¹³ 그는 또한 우리 시대에 접하게 되는 성경 기록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처음에 그것을 기록했을 때만큼 완전하지 않다고 밝혀주었습니다.¹⁴ 그 천사는 몰몬경이 성경에서 삭제된 명백하고 귀중한 것들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¹⁵

몰몬경에 있는 한 예언은 경전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개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고를 생각해보십시오.¹⁶ “너희는 민족이 하나 이상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인 내가 만인을 창조하였음과 … 내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다스리며, 나의 말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너희는 두 민족의 증거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같이 기억한다는 증거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즉 내가 한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와 같은 동일한 말을 하나니 … 두 민족의 증거 또한 함께 하리라.”¹⁷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경전상의 이야기는 동방구와 서방구 양쪽에서 일어난 것들입니다.¹⁸ 동방구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헬에서 거룩한 아기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¹⁹ 서방구에 있던 니파이는 전세의 메시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니파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 내일은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게 한 모든 것을 이룰 것임을 세상에 보일 것임이니라.”²⁰

두 번째 증거인 몰몬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가버이 다루었으므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 [너희가] 회개하고 … 몰몬경과 내가 … 준 이전의 계명들[성경을] 기억하여 …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까지 [너희들은] … 정죄 아래 머물러 있으리니”²¹

주님께서서는 다른 회복의 경전들을 주셨고²², 그 말씀들 또한 성취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²³ 이런 경전상의 증거들을 통해 거짓 교리는 무너질 것입니다.²⁴ 이러한 경전상의 증거를 통해 성경에 있는 교리들이 재확인되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회복의 경전은 성경을 분명히 설명해줌

회복의 경전은 어떻게 성경을 명확하게 설명해줍니까?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구약전서에 있는 것부터 몇 가지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 땅에서 말하며 네 목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성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목소리가 티끌에서 지껄이리라”²⁵ “땅에서” 나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티끌에서 지껄이리라”는 표현보다 몰몬경을 더 잘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까?²⁶

그러나 구약전서에서 몰몬경을 예고한 선지자는 이사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²⁷

오늘날 지상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성경(유다의 막대기)과 몰몬경(에브라임의 막대기)을 하나로 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전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가르침에 대한 경전상의 증거 역시 몰몬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헬에서 있었던 기적적인 아기의 탄생²⁸, 산상수훈²⁹, 구주의 극심한 고난³⁰ 등이 그 예입니다. 부활의 교리는 성경보다 몰몬경에 더 자주 언급됩니다.³¹

바울은 성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너희가 …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³² 그 교리는 주님의 회복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다른 경전상의 증거에 의해 명백해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³³ 그 귀하고 강력한 은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후에 있을 영광의 세 등급에 관해 언급하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 다르도다”라고 가르쳤습니다.³⁴ 사후의 영광에 대한 그런 관찰은 다른 경전상의 증거에 의해 명확해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계시해주셨습니다. “해의 영광이 하나인 것같이 해의 영광의 세계에 속한 영광은 하

나니라.

“그리고 달의 영광이 하나인 것같이 달의 영광의 세계에 속한 영광은 하나니라.

“그리고 별들의 영광이 하나인 것같이 별의 영광의 세계에 속한 영광은 하나니라.”³⁵

이 왕국들 중에 가장 높은 곳인 해의 영광은 그 왕국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하여 성결하게 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른 왕국 곧 달의 왕국이나 아니면 별의 왕국을 상속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³⁶

이 영광의 세 등급은 사후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 영혼의 불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멸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³⁷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속죄라는 이 중요한 낱말은 흥겨운 신약전서에 단 한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³⁸ 그러나 몰몬경에는 39번이나 나옵니다.³⁹

신약전서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⁴⁰ 한 특정한 천사가 몰몬경에 대한 책임의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⁴¹ 바로 모로나이 천사입니다! 이상의 예들은 회복의 경전들에 의해 분명해진 성경상의 많은 교리들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⁴²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회복의 경전을 나눕니다. 몰몬경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대 미 대륙 백성들에게 친히 행하신 성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다음과 같은 영원한 진리를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

“… 나의 음에 관한 경전이 이루어졌느니라.



서인도 제도 선교부 과들루프 섬에서 봉사하고 있는 16명의 프랑스어 권 선교사 전원이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듣기 위해 모였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

구주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

“...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구속을 가져다주려 함이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임이라 ... 내가 내 목숨을 버렸고, 또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시어다.”⁴³

그러한 주님의 선언에는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로 와서 사랑이 가득한 그분의 팔에 영화롭게 안기기를 바라십니다.

경전상의 증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큰 변화를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⁴⁴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복음이 이

후기에 회복되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님께서는 이 시대의 주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완전한 책명은 물론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다.
2. 베드로(사도행전 3:19~21 참조), 요한(요한계시록 14:6~8 참조), 바울(에베소서 1:10 참조)은 회복을 미리 보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한 만유의 회복이”(교리와 성약 27:6)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3. 신앙개조 1:8.
4.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년), “Witness”, 1439쪽.
5. 고린도후서 13:1.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8:16과 이터서 5:4에 있음.
6. 몰몬서 7:9.
7. 이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가지게 되리라.”고 선언하셨다.(교리와 성약 5:10)
8. 엘마서 13:15; 제3니파이 24:8~10 참조.
9. 니파이후서 5:16; 야곱서 1:17; 2:2, 11; 모사이아서 2:5~7 참조.
10. 모사이아서 13:16~19; 18:23 참조.
11. 니파이후서 6:2; 모사이아서 18:18; 엘마서 6:1; 13:1~3, 6~11; 제3니파이 18:5; 모로나이서 3:1~4 참조.
12. 물론경은 “모든 족속과 방인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과, 만인이

그에게로 와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니파이전서 13:40) 준다.

13. 니파이전서 13:40 참조.
14. 니파이전서 13:28~29 참조.
15. 니파이전서 13:40 참조.
16. 니파이후서 29:6.
17. 니파이후서 29:7~8.
18. 주님께서 “무수한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추가로 경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9. 누가복음 2:4~6 참조.
20. 제3니파이 1:13.
21. 교리와 성약 84:54, 57.
22. 교리와 성약 135:3 참조.
23. 조성, 마태복음 1:31~35 참조.
24. 니파이후서 3:12; 에즈라 태프트 벤슨, “그리스도의 새 증인”,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8쪽 참조.
25. 이사야 29:4.
26. 이사야는 후기에 있을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들”(이사야 29:14) 미리 보았다. 이사야의 다음 말씀이 고대 미 대륙의 주민들 귀에 울려 퍼졌다.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 잃은 바 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회복하시려 두 번째로 다시 그의 손을 펴시리니, 그런즉 그는 나아가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니파이후서 25:17) 그 기이한 일에는 물론경의 출현과 복음의 회복이 포함된다. 물론경에는 이사야의 말씀이 빈번히 인용되었다. 그런 인용에 대한 공부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반복되지는 않는다. 물론경에 있는 이사야의 433 구절 중에서 234절이 성경의 구절과 다르다.
27. 에스겔 37:16~17.
28. 니파이전서 11:13~20; 엘마서 7:10 참조.

표준을 높임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준을 무난히 지킬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그 표준을 높여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달에 북미 서부 지역 선교부 회장들의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는 특권을 받았었습니다. 참석한 선교부 회장들 중에는 제 아들인 리 회장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유럽 중부 지역 회장단에서 장기간의 임무를 마치기 전에 선교부 회장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임무로 아들이 봉사하는 지역을 지나는 길에 잠시 몇 번 들러 만나본 것을 제외하고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 지가 삼 년이나 되었습니다.

모든 선교부 회장 부부들과 함께 친목을 위한 저녁 식사 모임을 한 후, 아들 내외와 우리 부부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제가 묵던 호텔 방으로 갔습니다. 물론 우리의 대화는 선교 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핑클리 회장님이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기준을 높이

고 요청하신 이래로 자신의 선교부의 선교사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선교 임지에 도착하는 선교사들이 이전보다 분명히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우리가 함께 겪었던 한 가지 경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리는 고등학교 시절, 육상 팀에서 단거리 달리기와 높이 뛰기를 했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 경기에서 전 세계는 딕 포즈베리라는 무명의 높이 뛰기 선수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를 향해 대각선으로 도움 단기를 한 다음, 바 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배면 자세로 바를 뛰어 넘는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그 기술은 포즈베리 플랩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리는 이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졌지만 새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그것을 연습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그 애가 지하실에서 포즈베리 플랩을 연습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애는 의자들을 쌓아 두 개의 임시 지주를 만들고, 착지 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파를 사용했으며, 그 의자들 사이에 걸쳐놓은 빗자루 위를 뛰어 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소파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없을 것이 분명했으므로 저는 그가 실내에서 높이 뛰기 하는 것을 중지 시켰습니다. 대신에 아들을 테리고 스포츠 용품 가게에 가서 착지에 쓸 폼 패딩과 높이 뛰기용 지주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포즈베리 플랩을 시

- 29. 제3니파이 12~14장 참조.
- 30. 모시아야서 3:7 참조. 주님의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기사가 후기 선지자에게 주어졌다.(교리와 성약 19:16~19 참조)
- 31. 부활이라는 낱말은 흥정역 성경에서 40개의 구절에서 나온다. 몰몬경에서는 56개의 구절에 나온다. 또한 Jeffrey R. Holland, *Christ and the New Covenant: The Messianic Message of the Book of Mormon* (1997년) 238~241쪽 참조.
- 32. 사도행전 19:2. 성신의 은사의 필요성에 관한 베드로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38 참조.
- 33. *History of the Church*, 5권, 499쪽
- 34. 고린도전서 15:41.
- 35. 교리와 성약 76:96~98; 또한 131:1 참조
- 36. 교리와 성약 88:21~22
- 37. 모시아야서 16:10; 엘마서 42:23; 몰몬서 6:21 참조.
- 38. 로마서 5:11 참조.
- 39. *Atonement(속죄)*: 28번; *atone* 또는 *atoning*, 8번; *atoneth(속죄하다)*: 3번. 여러 구절에서 속죄라는 낱말이 한 번 이상 나온다.(니파이후서 9:7; 엘마서 34:9; 42:23 참조)
- 40. 요한계시록 14:6.
- 41. 교리와 성약 27:5; 128:20 참조.
- 42. 신약전서에는 이렇게 언급되었다.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16) 그 교리는 몰몬경에서 분명해진다. 몰몬경에는 미 대륙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기록이 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그 양이라.”(제3니파이 15:21)
- 죽은 자의 침례에 대한 바울의 지식에 관해 한정된 기사가 신약전서에 있다.(고린도전서 15:29 참조) 그 신성한 교리는 오직 회복의 경전들에서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124:29~30, 41; 128:1, 11~12, 16~18; 138:47~48 참조)
- 43. 제3니파이 9:15~16, 18, 20~22.
- 44. 제3니파이 9:14; 교리와 성약 30:8 참조.

협해 본 후에 이들은 예전에 사용했던 기술인 웨스턴 롤 오버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는 뒤뜰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계속 높이 뛰기를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직장에서 돌아온 저는 아들이 높이 뛰기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바 높이가 얼마나 되니?”라고 물었습니다.

그 애는 “1.74미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높이이지?”

아들은 “주 육상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으려면 그 높이를 뛰어넘어야 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잘 되고 있니?”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매번 성공했어요. 아직까지는 실수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바를 올린 다음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꾸나.”

그 애는 “그러면 바를 떨어뜨릴 지도 몰라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를 올리지는 않는데 어떻게 너의 가능성을 알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는 바를 1.79미터로 올리기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1.8미터로, 그 애가 항상 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올려갔습니다. 아들은 최소한의 표준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높이 뛰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비록 바가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될 수 있는 한 최고의 높이 뛰기 선수가 되기 위해 바를 계속 올리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 경험을 추억하면서 저는 앤리셀 벨라드 장로님이 2002년 10월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교회의 청남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가 되라는 목표를 주신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벨라드 장로님은 선교사 봉사의 최소한의 표준이 높아졌다고 발표하셨고, 아론 신권 청남들에게 이 새롭고도 더 높아진 최소한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아버지, 감독, 스테이크 회장들에게 청남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돕는 것에 관해 지침도 주셨습니다.(“가장 위



멕시코 메리다의 이 어린 소년들은 자신들이 신권을 받고 선교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6~49쪽)

그 신권 모임의 폐회 말씀에서 핑클리 회장은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벨라드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선교사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의 청남 청녀들이 벨라드 장로님이 제시한 목표를 받아들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로 봉사하게 될 사람들의 합당

성과 자격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7쪽)

2002년 12월 11일자 서한에서 제일회장은 단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 원리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은 교회 회장의 영감을 통해 부름 받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특권이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에게는 이 성스러운 봉사를 위해 영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러

한 조건에 대해 의심 없이 추천될 수 있는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회원들을分辨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 전임 선교사에게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명예롭게 면제되며, 추천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보람 있는 다른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을 수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표준을 높였습니다. 이제 선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준은 엄격한 도덕적 합당성, 신체적 건강 및 체력,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들을 포함합니다. 모든 높이 뛰기 대회에는 경기를 시작하는 최저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 뛰기 선수는 더 낮은 높이에서 시작하겠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선교 사업에 봉사하기 위해 더 낮은 표준을 허락해 주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 최소한의 표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최소한의 표준에 일단 도달했다면 그 후에는 표준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오래 전 제 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표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가능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할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표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도달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는 계속해서 표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온전한 가능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준비할 때 표준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선교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신체적 표준은 예비 선교사의 신체적 건강 및 체력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 추천서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매일 12시간에서 15시간 일할 수 있는지, 매일 10 내지 13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는지, 자전거로 매일 16에서 24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매일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선교 사업



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전임 선교사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신체적 표준을 더 높이는 일에는 다른 신체적인 조건들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신체적 외모를 향상시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특정한 형태의 복장을 갖추어 단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깔끔한 두발, 말쑥한 면도, 깨끗한 흰 셔츠와 넥타이, 잘 다림질 된 양복, 잘 닦인 구두를 신는 것이 포함됩니다. 전임 선교사의 외모를 갖추어 전임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적인 준비에서도 표준을 더 높이십시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지적으로 읽고, 말하고, 쓰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양서들을 읽으면서 주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넓히십시오. 공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런 후에 여러분의 향상된 공부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학습에 적용하십시오. 물론경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수업 참석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이 훌륭한 종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배우는 경전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얻으십시오. 종교 교육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공부하십시오. 특히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제3장에 역점을 두고 공부하십시오. 교회에서 말씀하거

나 가정의 밤 공과를 가르치도록 요청 받을 때 마다 이 기본 교리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교리와 성약 11편 2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네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 선교사로 나가기 전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진리를 얻음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표준을 더 높이 세울 수 있는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선교 사업이 정서적으로 고된 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을 지원하던 주위 환경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현재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 예를 들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일 등은 선교사 행동 규칙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거절과 낙담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정서적 한계에 대해 배우고, 선교사로서 직면하게 될 여러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행하면 여러분의 표준을 아주 높이 올릴 수 있으며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정서적인 문제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자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헝클리 회장님께서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예비 선교사들은 또한 선교사로 봉사하는데 필요한 사회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휴대폰을 쓰며, 직접 대면하는 대신 휴대폰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화함으로써 점점 더 자신을 남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많은 부분이 사람들을 마주 대하며 이야기하는 일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성 발달 면에서 더 높은 표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한 직업을 얻으십시오. 더 큰 동기부여 방법으로, 시간제 또는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 최소한 자신의 선교

지금 행하십시오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지금이야말로 인류의 구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로운 변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세 자녀의 아버지이며 오늘 저녁 이 신권회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저의 장남이 11살이었을 때, 그는 학교에서 자신의 가족이 만들어 먹는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의 조리법을 제출하는 숙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춘계 바자회에 기증하기 위해 제 아들을 비롯한 6학년 학생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요리책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마감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발표하셨을 때 제 아들 브렛은 나중에 시작해도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즉시 결론을 내리고는 그 일을 마음속에서 지워 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 초에 선생님께서 금요일이 마감일이라고 학생들에게 상기시켰을 때 브렛은 목요일 밤에도 얼마든지 그 과제를 쉽게 끝마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더 재미있는 다른 일들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마감일인 금요일 아침,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준비한 조리법을 교실 앞쪽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태만했던 브렛은 그 과제를 잊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당황한 브렛은 가까이 앉아 있는 급우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 친구는 “내가 조리법을 하나 더 가져왔어. 원하면 그걸 써도 돼.”라고 말했습니다. 브렛은 재빨리 그 조리법을 받아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는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준비 부족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모두 모면했다고 느끼면서 말입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을 한 후 저녁에 있을 교회 모임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년간 감독으로 봉사했던 저는 불과 며칠 전에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저희 가족은 저희가 가진 종교의 신조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회원으로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에 들어서자 제 아내 다이앤이 “여보, 잠깐 이것 좀 보셔야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책장이 한 장 접혀 있는 제본된 책 한 권을 제게 건넸습니다. 얼핏 보니 책 제목이 *노엘라니 학교의 인기 조리법-1985*였습니다. 표시가 된 쪽을 펼쳐보자 다음과 같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홀스트롬 가족의 인기 조리법-바카르디 럼주 케이크.”

우리 중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개종되는 것을 미루다가 단순히 우리를 창피하게 하는 것 훨씬 이상의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

사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선교 사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지불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위대한 축복, 즉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축복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적인 합당성은 선교 사업에서 최소한의 영적 표준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는데 모든 면에서 합당함을 의미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킬 방법을 저지름으로써 매우 특별한 이 부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가르침이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개종은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나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선교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훌륭하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권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여러분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구속은 성스러운 메시아의 뜻 안에 성스러운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과 아무도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을 가르칠 수 있다.”(니파이후서 2:6, 8 참조) (2004년, 2쪽)

많이 받은 이에게 많이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모든 영적, 신체적, 정서적인 자질을 갖춘 젊은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가 될 준비를 갖추고 앞으로 나아오라는 권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준을 무난히 지킬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그 표준을 높여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더욱 효과적으로 이 위대한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이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을 떠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여러분 앞에 놓인 영광스런 봉사를 위한 준비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면서도 게으름, 두려움, 합리화, 혹은 신앙의 결핍 때문에 온전한 영적 참여를 미룹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할거야”라고 자신을 설득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으며, 마침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조차도 진보의 손실과 필연적인 퇴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만의 정도를 부분적으로나마 진단하기 위해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는[는]”(교리와 성약 88:118) 태도, 즉 우리가 배운 바가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지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이미 예전에 다 들은 내용인데”라는 태도로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여 태만이 자신의 인격의 일부가 되도록 허락하십니까?

회복된 교회의 초창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라면 어떠한 것도 순종하겠다고 성약을 맺었던 어느 한 저명한 구도자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즐거이 말씀을 받았으나, 즉시 사탄이 그를 유혹하였고 … 세상의 염려가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저버리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40:2) 이 말씀을 주님께서 명백한 어조로 말씀해 주신 다음 구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의 율법을 받고 행하는 자, 그가 나의 제자니라.”(교리와

성약 41:5)

엘마는 감정에 복받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참으로 고통스럽기까지 한 큰 염려를 가지고 바라노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너희 죄를 던져 버리고, 너희의 회개의 날을 미루지 말고”(엘마서 13:27)

엘마의 친구이자 선교 동반자였던 엠올레크는 이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공포했습니다. “이는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또 이제 너희가 것처럼 많은 증거를 가졌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회개의 날을 끝까지 미루지 말라.”(엘마서 34:32~33)

제가 아론 신권 교사 직분이었을 때, 몇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제 침실 창문 밖에서 마당 일을 하시면 아버지의 소리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항상 제 방 창문 아래서 일을 시작하셨는지 파악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소음을 무시하려고 한 동안 노력한 후에 결국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 둘레 마당 손질을 돕는 한 주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아침에 시간에 맞춰 빨리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몇 번 있고 나서인

지, 아니면 제가 일하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의 반복적인 격려가 필요했던 다른 비슷한 사건들 때문인지,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저와 함께 마주 앉아 게으르기로 유명한 동물인 나무늘보 사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교리와 성약을 펴고 제게 다음 구절을 읽게 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내가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이라. 무릇 범사에 강요당하는 자는 게으르고 현명하지 못한 종이니, 그러므로 그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26) 그날 이후로 그 사진과 교훈은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 왔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사용하신 효과적인 격려 방법 중 하나는 “행하십시오”라는 간단 명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시간 엄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지금 행하십시오.”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셨습니다.

김볼 회장은 또한 “태만은 승영을 놓치는 길”이라는 심오한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인간의 가장 심각한 결점 중 하나는 해야 할 일을 뒷날로 미루기, 즉 개인의 책임을 현재에 받아들이지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은 채 정신적이고 영적인 나태와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2006년, 4~5쪽])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과정, 즉 쉬운 길을 원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실제로 이런 길을 발견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주 호놀룰루 시위의 녹지대 계곡 뒤편에서 운전을 하면서 위쪽 표지판을 쳐다보니 바로 그곳에 이지 스트리트, 즉 쉬운 길이란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 발견이 제 인생을 변화시켜 줄 혜택을 가져다 주리라 꿈꾸며 저는 그 행복한 순간을 간직하고자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카메라 눈을 통해 바라보면서 초점이 분명해지자, 제 마음 속의 상징적인 초점도 분명해 졌습니다. 크고 노란 표지판을 바라보며 저는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이지 스트리트에 들어서자

노란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

태만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므로 편한 길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태만은 죄로 가득 찬 무거운 짐과 만족감이 결여된 공허함만을 낳습니다. 현세적인 목표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목표는 태만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바로 신앙을 행사할 때입니다. 지금 이 바로 의를 행하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지금 이 바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인류의 구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로운 변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호소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그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침례 및 확인을 받지 않으신 분들.
- 아론 신권이나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신 분들 중 범법 때문에, 혹은 아무런 임무도 수행하지 않아서 신성한 맹세와 성약(교리와 성약 84:33~39 참조)에 반하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
- 과거에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나 현재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 회원들.
- 다른 교회 회원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회에서 멀어진 회원들.
- 회개하지 않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 남을 속이는 이중생활을 하는 분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변화할 수 있으며 바로 지금 당장 변화할 수 있다고 간증드립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워질” (앨마서 31:38)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쉬지 말고 덕으로 우리의 생각을 장식[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청결하게 하려는 우리의 진실된 노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년 전 어느 화창한 아침에 카리브해의 해변을 따라 걷는 동안, 아내와 저는 모래 위에 정박해 있는 여러 척의 작은 어선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어선을 보려고 멈추었을 때, 저는 고기 잡는 법에 관해 뭔가 알게 되었는데, 이후로 그것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어부들은 그물, 낚시줄, 또는 낚시 바늘을 사용하는 대신 철망으로 만든 단순한 덫을 사용했습니다. 덫은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어부들은 덫의 각 측면에 약 2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을 낸 뒤 잘린 철사를 안으로 구부려 물고기가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덫이 어떤 원리로 물고기를 잡는

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부들은 미끼가 있는 덫을 가져다 바다 밑바닥에 내려 놓습니다. 저녁거리가 될 만한 물고기가 덫 근처에 와서 미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덫의 측면에 난 구멍을 찾아 잘린 철사 사이를 간신히 비집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덫에 걸린 물고기는 잘린 철사 줄을 비집고 덫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었지만 끝이 날카로운 철사 사이로 다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고기는 이렇게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돌아와 덫을 물 속에서 끌어올리면, 덫에 걸린 물고기는 곧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됩니다.

그와 비슷한 덫에 걸려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전서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다윗 왕이었으며, 그에게 일어난 일은 경전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실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사무엘하 11:1~2).

다윗은 그 여인의 이름이 밋세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인이었던 그녀의 남편 우리아는



집을 떠나 그들의 왕인 다윗도 함께 있어야 했던 전쟁터에서 나머지 군대와 함께 암몬 백성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범했으며,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그들의 간음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마음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우리아는 돌아왔지만, 그는 양심상 동료들을 두고 혼자 밧세바를 만나러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도록 배치했습니다.(사무엘하 11:3~17 참조) 이 일련의 끔찍한 결정들은 우리아에게 죽음을,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왕국 전체에 불행을 가져 왔습니다. 이를 줄여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사무엘하 11:3~27 참조)

여러분은 어떻게 다윗이 이 밧에 걸렸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왕궁의 옥상 뜰에 있었으며 아래 이웃 마당을 내려다 보면서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미끼였습니다. 겸손, 순결, 훌륭한 판단력은 다윗에게 즉시 몸을 돌리고 바라보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겼으며, 상황은 급속히 나쁜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그리

고 최악의 상황으로 변해 갔습니다. 다윗은 밧에 걸렸으며, 그에게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자극적인 메시지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에 치명적인 외설물이라는 밧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밧과 마찬가지로, 외설물이라는 밧 또한 들어가기는 쉽지만 빠져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설물의 해로운 영향력을 겪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볍게 볼 수 있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리 나쁘지 않아.” 또는 “알게 뭐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또는 “단지 호기심이 나서 그래.” 그러나 그들은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신앙을 부인할 것이요, 영을 가지지 못하리니,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쫓겨날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42:23) 정확하게 이러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보았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었으며, 영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그저 고개를 돌리기만 했더라도, 그의 나머지 생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외설물을 보는 사람들은 영을 잃을 뿐 아니라 통찰력과 판단력도 잃습니다. 다윗 왕처럼 그들은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합니

다.(니파이후서 27:27 참조) 자존심이 사라지고, 달콤한 관계가 악화되며, 결혼 생활이 시들해지고, 무죄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인 결과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아 왔던 것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더 극단적인 이미지를 찾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그것을 부인하면서 서서히 중독되어 갑니다. 결국 다윗처럼 도덕적인 표준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행위로 타락합니다.

세계 전역의 대중 문화가 타락하고 변질되면서, 저속한 것이 점점 대중매체, 오락, 광고, 인터넷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표준에 근거한 인기는 무엇이 옳은지 또는 심지어 무엇이 위험하지 않은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저울입니다. 어떤 영화나 텔레비전 쇼가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보여지는 영상과 행위들은 외설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어떤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그리 좋지도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은 영화를 보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권 소유자들의 생활은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구주와 그분의 교회의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제3니파이 12:8). 복음의 약속은 우리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해주며, 심지어 고귀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청결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성약을 통해 그러한 약속을 받습니다. 의롭게 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에 더 가까워 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이 궁극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는 청결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역경의 시기에 우리를 지탱해줄 복음 원리들을 우리 영혼에 새기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께서 저와 제 아내가 페루 리마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그곳에 도착한 지 겨우 며칠 후인 2007년 8월 15일 강력한 지진을 목격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지진의 엄청난 힘 때문에 52,0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아홉 명이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이카 스테이크와 피스코 스테이크의 회원들, 까네테 지방부와 친차 지방부의 회원들이 이 지진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회원들은 물론 비회원들에게도 즉각적인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재난 지역에 있는 회원들은 음식과 의복을 받았고, 정오가 되기 전에 교회는 페루의 민방위 비상 대책 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보냈습니다. 집을 잃은

많은 회원들은 집회소로 대피했습니다. 이 지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권 조직은 불행에 당한 사람들에게 구조를 펼치는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 스테이크 회장들과 지방부 회장들은 감독들과 더불어 회원들을 도우러 나갔습니다. 이 신권 지도자들이 나가 있던 그 처참한 상황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전기가 나가 불은 들어오지 않았고, 파괴의 잔해가 도처에 흩어져 있었으며, 땅은 아직도 흔들렸습니다. 이 훌륭한 신권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은 후, 무너진 건물에 둘러싸여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는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도자들은 그날 밤과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강한 여진과 쓰나미의 경고를 무릅쓴 채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회원을 찾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폐허의 잔해 한 가운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저는 당장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지도자들을 찾으러 달려 나갔습니다.” 그는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무엇이 이 지도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돕게 했습니까? 분명 그것은 구주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신권 지도자로서 그들의 부름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진 발생 도중이 아닌 그 이전에 그들의 삶에 새긴 복음 원리 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1서 3:2~3)

여러분이 외설물이라는 탓에 걸려 있다면, 지금이 바로 구주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을 때입니다. 빠져 나올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완전한 회복은 여러분의 완전한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즉시 감독님에게 가십시오. 그의 영감 받은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삶에 영이 다시 찾아오도록 회개의 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치유 권능은 외설물 중독자를 포함해 모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구주에게로 향하고 감독님의 조언에 따르면, 필요한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로나이가 가르쳤듯이 구주께서 유혹에 저항할 힘과 중독을 극복할 힘을 찾으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고 악한 은사나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말라.”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리니, 그의 은혜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모로나이서 10: 30, 32)

“쉬지 말고 덕으로 우리의 생각을 장식[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청결하게 하려는 우리의 진실된 노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교리와 성약 121:45) 구주의 구속의 사랑과 그분의 속죄에 담긴 청결하게 하는 권능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문이었으며, 그들 마음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불로 새긴 복음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3 참조)

지진의 가능성은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진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진의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신권의 지휘 아래 그 순간의 어려움은 극복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회원들이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 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다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교회 봉사는 조직적으로 서로를 돕기 위한 예비 학교였습니다.

똑같은 일은 우리 생활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진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강타할지 모릅니다. 페루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 땅이 요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유혹, 죄, 실직이나 심각한 질병과 같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할 시간은 바로 오늘이지, 위기가 찾아 왔을 때가 아닙니다. 역경의 시기에 우리를 지탱해줄 복음 원리들을 우리 영혼에 새기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순결의 법을 어기도록 강요한 보디발의 아내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대답하기까지 그의 영혼에 무엇을 심었겠습니까?(창세기 39:9) 니파이는 주님의 명을 받았을 때 “가서 행하겠나이다. 이는 … 내가 앞이니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의 영혼에 무엇을 심었겠습니까?(니파이전서 3:7)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한 일은 영이 그들의 영혼에 복음의 원리들을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를 영혼에 새기는 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을 의의 원리에 깊이 접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요동에 대비할 때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듯 원리에 접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악한 영향들을 잘라냄으로써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원리들은 우리가 선지자의 가르침과 경전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뿌리내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니파이는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교리의 정수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니파이전서 11:1)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라”(교리와 성약 43:34)고 지시하신 대로 행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성한 교리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 집으로 가서 … 깨달을 수 있도록 … [그분]이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 내일을 위하여 … 마음을 예비하”십시오.(제3니파이 17:3)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교리와 그 원리에 접하는 일은 악한 영향에 대한 주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일 경우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강요하여 우리가 장차 임할 요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신 구주께서는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변화에 더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 줄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혹 만일 네 형제가 너로 범죄하게 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그를 끊어 버리라.”(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가복음 9:40)

다행스럽게도, 구주께서는 친히 우리의 손을 찍어버리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의 지진에 대비할 수 없게 만드는 영향들을 오늘 우리의 생활에서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제게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 분명한 충고가 있습니다. “이는 네가 네 형제 없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와 네 형제가 지옥에 던져[지닌] ... 것보다 나음이니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가복음 9:41) 주님께서는 니파이에게 위험한 영향이 되어버린 그의 형제들을 떠나라고 경고하실 때 같은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니파이후서 5:5 참조)

그처럼 끊어버린다는 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텔레비전 쇼, 인터넷 사이트, 영화, 문학, 게임 또는 음악과 같은 모든 악한 영향에 해당됩니다. 우리를 구주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같은 원리를 새기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나쁜 영향력에도 굴하지 않게 도와줄 것입니다.

교리와 그 원리를 접하는 일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를 복음의 가치에 깊이 뿌리 내린 신권 소유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 올 시련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약속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 ...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예레미야 1:18)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카에 있는 린다 크루자도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맹위를 떨친 그 밤이 지난 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침 일찍 따스한 햇살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밤에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로 우리를 위로해주셨다.”

오늘이 바로 용기를 낼 시간이며 우리의 영혼을 구주의 가르침에 깊이 접하게 하겠다고 결심할 시간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다면 부족한 부분은 그분께서 채워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께서서는 충실한 신권 소유자를 도와드립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에 말이나 느낌으로, 혹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렵게 보이는 부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확신과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오 늘 저녁 저는 세상 어딘가에 있을 어떤 한 소년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신권 소유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열서너 살 때 그러한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갖는 선교부 지부의 작은 지부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족은 스테이크와 큰 와드와 예배당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정원회에 속한 모든 소년은 신권 소유자의 임무에 관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와드에서는 성찬을 전달하는 방법도 매우 복잡했습니다. 저는 성찬을 전달하거나 준비할 차례가 오면 분명 실수를 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저는 혼자 있기 위해 예배당 밖으로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갖고 그분을 위해 봉사할 때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도움과 확신을 얻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50년 이상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에서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도움을 구하려고 똑같은 간구를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오래 전에 그 예일크레스트 와드 예배당 밖에서 제가 받은 응답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권 직분에서 봉사하라는 부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동일한 응답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에 말이나 느낌으로, 혹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전해질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힘들어 보이는 부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확신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확신은 위협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때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며칠 사이에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뉴저지에서 살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성년 군중이 뉴저지 주에 있던 저희 집 앞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위험해 보였던 사람들 속에서 홀로 서서 그들을 대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듣지 못했으나 잠시 후 그 사람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제가 기적을 보았었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에게서 지명을 받아 한 무리의 성년 사람들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평온과 화해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기독교 종파들간의 경쟁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미국내 교회 지도자들과 미니애폴리스에 모였던 교회의 목사들에게 말씀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연사로 지명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 주제는 '왜 조셉 스미스를 통해 참된 교회가 회복될 필요가 있었는가'였습니다. 모임을 불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저는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모임을 갖기 전날 밤 그 도시에 도착한 저는 프로그램 일정을 보고는 핑클리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임이 사흘간 진행될 것이고, 여러 연사들이 동시에 말씀을 할 것이며, 사람들은 어떤 연설을 들을지 각자 선

택할 수 있다고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저의 두 번째 연설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짐을 싸서 매우 일찍 돌아오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회장님의 생각을 여쭙었습니다. 회장님은 "장로님께서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새벽 무렵, 저는 회복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조셉 스미스에게 일어났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믿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조셉 스미스에게 일어났던 일이며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 사이에 연설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하라는 방향만은 분명히 받았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연설이 있는 후 목사님들이 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 명씩 한 명씩 줄을 섰습니다. 그들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생의 한 시점에서 존경하는 우리 교회 회원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지역 사회에 재난이 닥쳤을 때 스테이크 회장이 와서 교회 회원들에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시민들에게도 도움을 주었던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지도 못하며 또한 앞으로도 만나리라는 가능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와 감사의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흘간의 모임이 끝날 무렵, 점점 더 많은 청중이 복음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그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원들의 삶에서 선행, 즉 회복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며칠 밤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일과 다른 기억들이 다음과 같은 확신과 더불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내가 언제나 너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잔잔한 물가에서 너를 이끌던 때를 기억하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

가 네게 상을 차려 준 때를 기억하라. 이를 기억하고 악을 두려워 말라.”(시편 23장 참조)

새로운 집사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을 돌보셨습니다. 새로운 정원회 회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 양육이 힘겨우신 아버지 여러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때, 그분은 권능과 영으로 여러분보다 앞서 가셨고 여러분의 오른쪽에도 왼편에도 원편에도 계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4:88 참조) 신앙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리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임무를 받아 도움을 간구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될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이 금요일 이른 아침에 제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함 때문에 기도를 드리듯이 저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고 얻은 그 응답은 분명하고 매우 직설적이며 정말로 꾸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네 자신을 잊어라. 네가 봉사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라.” 저는 이점에 대해 간증드릴 수 있는데, 성신을 통해 응답을 받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시간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봉사하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과 그 가족의 필요 사항, 소망, 그리고 아픔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그 사랑의 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져서 여러분이 속한 정원회나 가족의 경계를 넘어 세계 전역의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잊고 여러분의 봉사의 손길이 닿는 원 안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봉사는 마음속에서 부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봉사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봉사의 손길이 닿는 사람의 수가 심히 적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섬



기고 봉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은 여러분이 봉사를 통해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신권 임무 지명을 받아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저도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업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신권의 권능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움직이며 무언가를, 대개는 힘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잊으라는 권고의 말씀뿐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될 무언가를 하라는 성신의 분명한 속삭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가족을 방문하는 일처럼 분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자녀를 꾸짖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자녀를 꾸짖는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든 무엇이 성공인지 기억할 경우 여러분은 그 일을 더 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이 그들의 가슴속에 간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어떠한 폭풍우나 유혹이 닥쳐와도 그들이 하나님

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영은 여러분이 신권의 권능으로 가르치고 꾸짖는 일을 인도할 것입니다. 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영이 여러분에게 꾸짖을 때와 꾸짖는 방법, 그리고 꾸짖은 후에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일 방법을 알려 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21:43~44) 여러분이 어떤 신권 봉사를 하든, 그것은 사람들이 속죄가 그들에게서 역사하게 할만큼 진리에 대한 간증을 그들의 생활과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얼마나 훌륭하게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 혹은 도움을 주었는지에 의해 측정되고 인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봉사하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잊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봉사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정도에 따라 성공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봉사를 베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속죄의 권능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봉사와 회개에는 늘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행하도록 부름 받은 일의 본질입니다. 구주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일이 쉬웠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분이 제자들에게 쉬운 일을 부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한 봉사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 일이 쉬울 리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상한 마음”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한 마음에 대해 오늘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경전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에 대해 종종 말하지만, 더 자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를 설명할 때 “상한 마음”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봉사하라는 부름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추구하는 회개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간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신앙은 마음속에, 즉 상한 마음속에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결정해 봅시다. 우리의 부름이 무엇이든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일들에 당당히 맞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공이란 사람들 마음속에 간증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간단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사실입니다. 간증을 강제로 심어 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누구에게 이 일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이기로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삶에 영이 거하도록 하여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보는 영의 열매를 그들의 삶에서도 맺고자 하는 소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은 성신을 불러옵니다. 어떤 것들은 성신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성공을 바라는 신권 소유자라면 누구도 자신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는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육욕을 불러 일으키는 영상을 보려는 선택은 성신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외설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인터넷을 비롯

한 기타 매체의 위협에 대해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고 또한 클레이튼 장로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설물이 너무나 만연하여 일상 생활에서도 영을 거스르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주저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눈을 돌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도 동일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평소 언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주님을 대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상스럽거나 불경스러운 말은 영을 거스릅니다. 외설이 더 만연해졌듯이 상스럽고 불경스러운 말들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말하는 상스러운 말들과 교양 없는 농담이 특정 장소, 특정 집단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도처에서 이러한 언어가 사용되며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더라도 자신이 말하는 것은 바꿀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미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 저는 2년간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해병대 대령, 육군 대령, 그리고 백전노장의 해군 사령관과 함께 한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시뿐 아니라 평화 시에도 자신들만의 거친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그들의 말은 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성신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저는 당시 지방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성신의 영

향력으로 가르칠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겨우 중위였습니다. 그들은 제 상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언어가 변했습니다. 서서히 불경스러운 언어가 사라지고 상스러운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실 때는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곤 했지만, 그것은 보통 저녁 시간이었으므로 저는 선교 사업을 이유로 그 자리를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악한 것을 보지 않고 입에 담지 않으려는 충실한 신권 지도자를 도우십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제 인생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교리와 성약 121:45)

제 간증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감미로운 확신을 주시며 그분을 위해 더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왕 같은 제사장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의 특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웅대한 건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바라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천 개의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이 이 대회를 위성중계로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하나의 끈이 우리를 묶어 줍니다. 우리는 신권을 지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위임을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영예롭게 하는 우리들은 역사상 이 특별한 시기를 위해 예비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호칭, 즉 “왕 같은 제사장”에 합당해질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러한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의 특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모두에게 **통찰력이라는 특성**을 계발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한 작가는 역사의 문은 작은 경첩으로 열리며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격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 자신은 수많은 작은 결심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들을 인생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평가하며, 미래를 내다볼 능력을 계발해야 합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 여러분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날을 그려볼 능력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성스러운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 집사, 교사, 제사로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때 여러분은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할 준비, 즉 부름을 받아들이고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소년과 모든

남성이 **통찰력이라는 특성**을 지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의 특성으로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원리는 **노력이라는 특성**입니다. 노력하고 싶어하는 것만으로는, 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행함으로써 오며 생각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목표를 마냥 뒤로 미룬다면 목표가 성취되는 것을 영영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로지 내일만을 위해 산다면, 오늘 당신에게는 수없이 많은 무의미한 어제들만이 남을 것이다.”¹

1976년 7월, 육상선수 게리 비오크룬드는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할 미국 올림픽 선수단에 선정되어 10,000 미터 경주에 참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힘겨운 예선 경기의 절반이 지날 무렵 왼쪽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포기하고 달리기를 멈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했을 경주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상 챔피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발 한 짝이 없는 채로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달렸던 것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출발선에서와는 달리 자신의 경쟁자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 쪽 신발은 벗겨지고 한 쪽은 신은 채로, 그는 거칠게 포장된 육상 트랙을 달려 3등으로 경주를 마쳤고, 금메달을 놓고 벌이는 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의 원주 기록은 그때까지 자신의 기록 중 최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비틀거리고, 지치고, 힘들 때, 혹은 마음의 상처와 실망으로 고통 받을 때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일이 생길 때, 저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며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집사 정원회 회장이든, 교사 정원회 서기든, 신권 고문이나 반 교사, 혹은 감독이든, 적어도 인생에 한 번은 교회의 어떤 직책에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예를 들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제가 솔트레이크시티 6~7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 받았을 때, 저는 겨우 스물두 살이었습니다. 와드에는 1,080명의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루어야 할 모든 사안을 처리하고 와드의 모든 회원들이 소속감과 보살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그 책임이 막중하긴 했지만 저는 이 임무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하기 시작했고 다른 분들이 했던 것처럼 저도 봉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부름과 임무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저는 제가 1950년부터 1955년까지 감독으로 봉사했을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집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때 와드를 구성했던 골목 골목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1,080명의 회원들이 살고 있던 모든 가옥과 아파트 중 오직 세 채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 한 집에는 잔디가 무성했고, 나무는 제멋대로 자라고 있었으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두 집 중 한 집은 판자로 둘러쳐 있는데 사는 사람도 없었고, 또 한 집은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다음 그곳에 상당히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각 집과 각 아파트,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회원 한 명 한 명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건물과 가옥들은 사라져 버렸지만, 각 처소에 살던 가족들에 대한 기억은 매우 생생했습니다. 저는 시인 제임스 배리의 “인생의 12월에 6월의 장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억을 주셨네”²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부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노력이라는 특성은 모든 신권 소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원리는 **신앙이라는 특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래 전, 시편의 저자는 아름다운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³ 즉,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야사다시피 우정은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헨리 8세*에서 왕과의 우정 때문에 세도를 누리고 오만했던 율시 추기경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우정이 다하자 율시 추기경은 권력을 잃었고 결국 명성과 특권도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은 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그는 그의 종 크롬웰에게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오 크롬웰, 크롬웰!

내가 왕을 섬겼던 열정의 절반만으로도
내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지금 늙은 나를
적들 앞에 무방비로 버려두지는 않으셨을 것일

저는 오늘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신앙이라는 특성**이 자리할 것임을 믿습
니다.

저는 이 목록에 **유덕함이라는 특성**을 더하
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⁵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제가 아론 신권 소유자였을 때 솔트레이크
시티 태버네클에서 열린 신권회 모임을 기억합
니다. 제일 회장님께서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
씀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지금껏 한 번도
잇은 적이 없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
의 요지는 성적인 죄나 그 밖의 죄를 범하는
자들은 눈 깜박할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일 회장님
은 생각이 행동을 앞서며, 죄를 짓는 것은 이
미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이라
고 강조하셨습니다. 죄를 피하는 방법은 우리
의 생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선언하
셨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느니라”⁶이라고 알려줍
니다. 우리는 반드시 **유덕함이라는 특성**을 지
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왕국의 선교사가 되
려면 그분의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해야 합니
다. 우리는 주의 영이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
는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도라는 특성**을 더하고
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고자
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진정한 신권 소유자의
특징입니다.

주님께 가족기도와 개인기도를 드릴 때 그
분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다. 히브리인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권고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



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⁷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항상 기도하라는 권고를 등한
시해온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사탄
은 가장 악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을 볼 때 두려워 떴다”⁸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물리적인 악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인간이 무릎을 꿇었을 때보다 더 위
대해지는 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소망
말하든 안 하든
가슴 속에 약동하는
보이지 않는 불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생명, 진리, 길이니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
가르쳐 주옵소서⁹

우리가 **기도라는 특성**을 발전시킬 때, 우리
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통찰력을 가집시다. 노력을 다
합시다. 신앙과 유덕의 본보기가 되고 기도가
항상 우리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
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간구이며, 이 모든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Meredith Willson and Franklin Lacey, *The Music Man* (1957년) 참조.
2. Laurence J. Peter comp., *Peter's Quotations: Ideas for Our Time* (1977년), 335쪽 참조.
3. 시편 118:8~9.
4. 3막, 2장, 455~458줄.
5. 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6. 잠언 23:7 참조.
7. 히브리서 11:6.
8. In William Neil, comp., *Concise Dictionary of Religious Quotations* (1974년), 144쪽.
9. “기도는 영혼의 소망”, 찬송가, 61장.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주님께서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고 살도록 축복하시고 영감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곳 컨퍼런스 센터나 멀리 바다 건너 교회 등 곳곳에 모여 있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저녁 화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다소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있는 잠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언 16:32)

우리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화를 낼 때입니다. 운전 중 화를 내는 것은 분노의 증오스러운 표현입니다. 저는 수감자 대부분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그들이 화가 났을 때 무언

가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나 있을 때 그들은 욕설을 퍼붓고, 자제력을 잃고,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냄으로써 몇 년간의 뉘우침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찰스 더블류 펜로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 교회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영국에서 약 11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해임되었을 때 시온으로 여행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소유물을 팔았습니다. 그를 지켜본 일부 성도들은 그가 교회 재산을 취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그를 분노하게 했으며, 그는 이층의 자기 방으로 올라가 앉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Karen Lynn Davidson, *Our Latter-day Hymns: The Stories and the Messages* [1988년], 323쪽 참조)

감정을 다스려라, 오 나의 형제여
격동하는 충동적인 영혼을 길들여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지혜롭게 제어하라

감정을 다스려라, 냉정하고
침착한 마음에 힘이 있으니
분노는 이성을 잃게 하고
맑은 시력을 눈멀게 하네

감정을 다스려라,
친구나 원수를 비난하지 말라
비록 비난의 물결이

진리의 홍수처럼 물려올지라도
비판하기 전에 변명을 들으라
그러면 빛이 비치리니
얕은 시냇물 아래에
더러운 것이 숨어있음을 보리라
감정을 다스려라, 오 나의 형제여
격동하는 충동적인 영혼을 길들여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지혜롭게 제어하라
(School Thy Feelings, 영문 찬송가, 336장)

오래 전에 저는 철도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철도원이 정처 없이 플랫폼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차를 다른 선로로 옮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모자를 길 위에다 내던지고는 그 자리에서 경충경충 뛰면서 마치 술 취한 선원처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유치한 그의 행동을 보고 웃었습니다. 제가 웃는 것을 보고 그도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조용히 기관차에 탑승하여 빈 차량을 끌어다 빈 선로로 이동시켰습니다.

저는 전도서에 있는 한 구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전도서 7:9)

화는 모든 악한 행위의 근원입니다.

저는 조간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결혼 25주년을 축하할 수도 있었던 미국인들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시점에 이르기 전에 이혼하거나, 별거하고, 또는 배우자와 사별했다.”(Sam Roberts, “Most U.S. Marriages Don’t Get to Silver”, *Deseret Morning News*, 2007년 9월 20일자, A1쪽)

배우자와의 사별은 물론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혼이나 별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은 대개 분노의 쓴 열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말대로 사랑에 빠집니다. 각자

는 서로의 눈에 훌륭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느라 재정적으로 무리를 하며 결혼을 합니다. 한 동안은 모든 것이 더 없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행동이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결함이 커다란 결점 찾기로 확대되며, 그들은 관계를 깨고, 별거한 후, 심한 증오와 비통함을 갖고 이혼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많은 경우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순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비극이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는 분노의 쓴 열매입니다.

저는 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제 영원한 동반자는 3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6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여행을 했고 모든 대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행동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몇 년 전에 구입한 어떤 작은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었습니다.

“한번은 신문에서 비방의 대상이 된 사람이 에드워드 에버렛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 에버렛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신문을 산 사람 중 절반은 그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 다. 그 기사를 본 사람 중 절반은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 다. 그것을 읽은 사람 중 절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한 사람 중 절반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 다. 그것을 믿은 사람 중 절반은 여하튼 개의치 않는 사람들입니다.’”(Sunny Side of the Street”, 1989년 11월; 또한 Zig Zigler, *Staying Up, Up, Up in a Down, Down World* [2000년], 174쪽 참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를 과대 평가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원한이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경우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통스러운 지병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주의력을



멕시코 메리다의 한 소년과 아버지가 함께 대회를 시청하고 있다.

소진케 할 수 있습니다. 기 드 모파상은 이것을 묘사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것은 장날 마을에 내려졌던 오치퐁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던 그는 길에서 넘어졌는데 그 때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노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평소 적대감

을 갖고 있던 마구업자가 보았습니다.

같은 시각에 돈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시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오치퐁이 주운 것이 지갑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것을 주운 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는 그 고소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의 몸을 수색했으나 나온 것은 노끈 조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한 비방으로 괴로워했으며 결국 그것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제일회장단

2007년 10월



토마스 에스 몬슨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헨리 비 아이어링
제2보좌



보이드 케이 팩커



엠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멜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홀트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일 홀랜드



디이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테이머트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엠 쿡

침심인 회장단



닐 시 앤더슨



디터드 크리스토퍼스



닐 앨 맥스웰



보이드 케이 팩커



클라우디오 엠 우흐도르프



스타인 이 스노우



퀸틴 에프 쿡

칠십인 제임 정원회



카를로스 아이치 아이체



데이비드 에스 벅스터



제임 영 보한



스티븐 에드 칼월드



앤드루 시 첼튼



제리 제이 코우먼



스텝슨 제이 콘디



벤하민 데이 오오스



존 비 에반스



찰스 디디에이



데이비드 호프 호판조



제임스 이 켄슨



크리스토펜 쿤돈 이씨



시 스코트 그로우



브루스 시 하펜



도널드 홀 롱스토클



토미 클라크



제임스 윌 민던



크리스 알 멘드홀츠



스티븐 지 엘라스



대니얼 에이머



크리스 에이 할러그



랜디 지 힐러리



케이 이 켄슨



윌리엄 케이 켄슨



다니엘 홀 켄슨



체러스 켄슨



톰 비 켄슨



요시히로 가자베



로버트 기븐스



스티븐 비이 켄슨



고영용



체벌드 에 린드



로버트 미스크 이씨



톰 키 칼라라



에릭 디틀루프 카스퍼카케



존 엠 맥드넬



리처드 제이 맥이너즈



댄 맥이너즈



마커스 비 나워



데니스 비 오코넬



글렌 폴 페이스



로버트 시 푸스



윌리엄 디틀루프 린리



윌리엄 에이저 룰



윌리엄 디글라스 영웨이



윌리엄 엠 스노우



제임스 디 페린스



톰 비 피어퍼



브루스 디 포터



칼 비 프랫



댄 지 쿼린스



제임 오 사머얼슨 이씨



데니스 조이얼스



마이클 제이 테



로버트 엠 투퍼



톰 케이 시버트스키



윌리엄 할 워커



로버트 에스 워드

칠십인 제이 정원회



마빈 비 아널드



윌리엄스 할 콜리너



크레이그 에이 카든



크레이그 시 크라스너



데이비드 크라스너



토미 클라크



제임스 윌 민던



크리스 알 멘드홀츠



스티븐 지 엘라스



대니얼 에이머



로버트 기븐스



스티븐 비이 켄슨



고영용



체벌드 에 린드



로버트 미스크 이씨



로버트 시 푸스



윌리엄 디틀루프 린리



윌리엄 에이저 룰



윌리엄 디글라스 영웨이



윌리엄 엠 스노우



톰 케이 시버트스키



윌리엄 할 워커



로버트 에스 워드



로버트 에스 워드

감리 감독단



리처드 시 에플링
제1보좌



키스 디 맥달린
제2보좌



키스 디 맥달린
제2보좌



육대효노 테노리요



프랜시스 제이 배커스



제임스 비 워트먼



윌리엄 디 맥케이



윌리엄 디 맥케이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어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정신은 점점 더 쇠약해졌으며, 12월 말경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그는 1월 초에 죽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는 계속 헛소리를 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노끈 한 [조각], 노끈 한 [조각]. 보십시오, [사장님], 이게 그것입니다.’

(“The Piece of String”, <http://www.online-literature.com/ Maupassant/270/> 참조)

기자들이 어떤 사람의 생일날 인터뷰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그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결혼할 때 만약 다들 일이 생기면 우리 중 한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 있자고 했습니다. 내가 장수를 누린 비결은 결혼 생활을 통해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분노가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환전업자들을 몰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마태복음 21:13) 하지만 이것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표출이라기보다는 꾸짖음의 형태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께 감정을 자제하고 얼굴에 미소를 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감사와 존경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결혼생활과 가족 관계는 보존될 것이며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 큰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화평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아무런 비통한 느낌도 없이, 우정과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영감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물론경의 선지자들은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어다”라고 권고합니다.¹ **제요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절함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 늘 아침 방송 모임에서 구주에 관한 노래를 불러 주신 합창단께 감사드리며 또한 합창단이 부른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라는 곡은 바로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께서 작사하신 곡인데, 그 가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웰 형제 옆에 앉아서, 그 형제님한테 지긋이 기대며 “아이들은 잘 크고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파우스트 회장님도 그 자리에 앉으시면 언제나 그 질문을 하셨죠.”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답변에 놀라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진행된 음악과 진리의 말씀에서 묘사된 제자의 특성에서 파우스트 회장님은 언제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늘 파우스트 회장님과 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는 매일마다 그날에 있었던 몇 가지 일에 대해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교회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집 근처에 사시던 장인 어른이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데미의 파이프를 어깨에 매고 작업복을 입은 채 아주 빠른 걸음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이 우리 집 아래쪽에 흐르는 개울물을 우리 집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장치를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부드럽게 이야기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 하기 위해 서둘러 저를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이 우리를 위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경험을 주는 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 그것을 기록해라.”

집안으로 들어간 저는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종이 몇 장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속으

로 들었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어떻게 목격했는지, 먼 훗날에 제 자녀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하시던 일은 꼭 그분이 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그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은 제자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즉 자신의 가족에게 봉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봉사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이 언젠가 필요로 할 때 그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몇 줄씩 적었습니다. 피곤하다든가 다음날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루도 기록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하기 전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명상하곤 했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임하신 것을 본적이 있는가?” 제가 그 일을 계속하는 동안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뒤돌아 보면서 그날의 바쁜 순간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증거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또 자주 일어났고, 저는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상의 것이 제 가슴속에 자리 시작했습니다. 간증이 커졌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오는 힘에,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정결케 하는 힘에 더욱 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신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 즉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알아채지 못했거나 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들조차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들은 이제 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들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제게 주신 일지 복사본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 일에 대해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에 관해 읽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일들을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제 요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철함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간증은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면 일지를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어떠한 기록도 나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여러분과 그들은 함께 축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때때로 부르는 노래를 기억할 것입니다.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에 네가 놀라리.”²

기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세의 삶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

리스도와 함께 했던 전세의 생활이 어떠한지 기억할 수 없으며, 육안이나 논리적인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는 데에는 성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악한 세상에서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셨으며, 기적적이고 분명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늘 경고해 왔었고 또 항상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 모세도 많은 축복을 받은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³

풍족히 축복 받은 이들에게 기억하는 일은 언제나 제일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나님께 충실



한 이들은 보호 받고 변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과 더불어 그 근원에 대해 잊어버리는 유혹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축복들이 우리가 의지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왔다고 느끼기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거듭 되풀이하며 한탄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 지와 또한 그 변하기 쉬움을 볼 수 있나니, 참으로 우리는 주께서 그 크고도 한량없는 선하심 가운데 무릇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변영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참으로, 또한 우리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변영하게 하사, 실로 그들의 발,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금과 은과 각양각색의 온갖 귀한 것들을 얻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살려 두시며,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원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선포하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또한 요컨대, 자기 백성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때

에, 참으로 그때가 곧,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으며, 거룩하신 이를 그들의 발 아래 밟는 때 임을 우리가 알 수 있나니 - 실로 이는 그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심히 큰 변영 까닭이라”

그리고 그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어찌 그리 교만 중에 자고하기를 속히 하며, 참으로 어찌 그리 뽐내면서 온갖 불의한 바 행하기는 속히 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권고에 귀를 기울이기는 그들이 어찌 그리 더디 하며, 참으로 지혜의 길로 행하기는 어찌 그리 더디 하느고!”⁴

슬프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는 이유는 변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찢어질 듯한 가난으로 힘들어 하거나 우리의 적이 우리를 크게 치거나 병이 낫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의 원수가 하나님은 없으며 만약 존재하더라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신도 유아기와 시련의 시기 등 전생애 동안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신 축복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잊어버리는 끔찍한 질병에 대한 간단한 치료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들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영광 중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 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들을 위해 성취되었으며,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⁵

간증을 키우고 유지 시키며 기억하는 열쇠는 성신을 동반자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바로 성신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성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한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가지 간단한 방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방식은 성찬 기도문에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구주를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⁶ 그런 약속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또한 그 약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지킨다면 속죄를 통해 결국엔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가족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신입니다. 그와 같은 간증을 이제 막 갖기 시작했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봉사하고 그분

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의를 느낍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봉사 에 힘을 실어주는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또한 주님의 손길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너무나 분명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속죄의 힘을 통해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경험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어도 모르는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상에 태어날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그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나 이 세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 주노니,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랴도 사람들을 설득하여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고, 그를 부인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이면, 너희는 그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이는 실로 이러한 방식으로 악마가 일함이니, 이는 그가 아무도, 실로 단 한 사람도 설득하여 선을 행하게 아니하며, 그의 사자들도 그러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도 그러함이라. ...”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지런히 탐구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할지니, 만일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⁷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회원으로 확인될 때 받는 성신의 은사에 대한 권리를 받기 전에, 그리고 성신이 침례 전에 진리를 확인시키기 전



에도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그들의 유년기부터 그들에게 선행을 하도록 권했으며 악에 대항하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들의 근원을 인식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경험들은 기억합니다. 그 기억들은 선교사들이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머릿속에 되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울 때 그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했던 그 기억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성신이 그들에게 증거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경험으로 계명을 지키고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종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서 “성신을 받으라”라는 말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힘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대회에서 나눈 진리를 들으면서 가졌던 따뜻한 느낌은 성신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성신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구주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영화로운 아들입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여러분은 기도하고 명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셨을까? 내가 내 삶에서나 자녀들의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았을까”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날의 기억을 보존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참됨을 알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제게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사이아서 2:41; 알마서 37:13; 힐라맨서 5:9.
2.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3. 신명기 4:9.
4. 힐라맨서 12:1~2, 5.
5. 요한복음 14:25~26.
6.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7. 모로나이서 7:16~17, 19.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생활하십시오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두려움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할 때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아이어링 회장님과 그분의 가족에 대한 저의 사랑과 지지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목요일 늦은 오후 핑클리 회장님께서 제게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느낀 만화경 같은 어지러운 느낌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여러 밤을 지새우며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핑클리 회장님께서 선지자이시며 또 교회 회원들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의 영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참으로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리려는 것만으로는 제 느낌을 다 전하지 못

할 것입니다. 1996년 4월에 제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았을 때도 부름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었습니다. 당시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왕국에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구주의 신성을 증거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며 제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화평이 찾아왔으며 그 느낌은 구주에 대한 저의 사랑과 그분에 대해 증거하게 하는 영적인 경험들로 제게 머물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교리와 성약 107:23 참조)

교리와 성약 68편 5절과 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오 너희 나의 종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주의 약속이니라. 그런즉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서 있을 것임이니, 너희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임을 증거하리라.”

제가 이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동안 성신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깊이 느낀 점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디모데후서 1:7)

저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을 다 바치신 휘장 저편의 조상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온 생애 동안 구주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은 가족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아내 메리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녀의 영적인 힘, 의로운 모범, 유머 감각과 사랑에 찬 내조는 평생토록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세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커다란 만족을 준 근원이었으며 그들과 함께 아홉 명의 손자들 역시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기도와 선한 생활은 아내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페리 장로님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캐시 벨리 지역의) 유타 주 고간에서 보낸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볼 때, 저는 신앙으로 가득 찬 의로운 어머니와 사랑이 많은 아버지, 제게 훌륭한 모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상담자였던 형,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 준 여동생이 있는 훌륭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제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재능 많고 헌신적인 교회 지도자와 교사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도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영국 선교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 사업은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감하고 담대한 선교부 회장님의 영향력은 회복된 복음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몇 주전 저는 교회 본부에서 수년 전에 제가 영국 글로스터에서 가르친 한 자매님이 보내신 생일 카드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분과의 연락이 끊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매님은 남편과 더불어 아주 활동적인 회원이고 여섯 명의 자녀와 스무 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으며 그들 모두 성약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다. 제가 받아본 것 중 최고의 생일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내와 저는 제가 캘리포니아 주 팔로알토에 있는 법학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유타를 떠났습니다. 졸업 후에는 유타로 돌아올 계획이었으나 영은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에서 33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봉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회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굳은 의지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준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후기 성도들에게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지난 11년 반 동안 칠십인으로 봉사한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원회를 떠나면서 저는 동료 총관리 직원 형제님들에게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충성심, 그분들의 충실함과 선행에 대한 제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

지하는 형제님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저는 영예로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분들의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보여준 선한 삶과 모범, 인내, 가르침, 친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 충만한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총관리 직원으로서 봉사하면서 제 마음은 온 세상에 있는 후기 성도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에서 2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1961년 4월, 당시 십이사도 보조이셨던 힝클리 회장님은 마닐라에 최초로 선교사들을 파견하셨습니다. 당시 필리핀에는 필리핀인 신권 소유자가 단 한 명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거의 600,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쉽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구주를 사랑합니다. 복음은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

니다. 그분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지 모릅니다.

저희는 또한 태평양 군도에서 3년간 봉사했습니다. 전 세계의 폴리네시아인 중 25%가 교회 회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영성은 전설적입니다. 한 번은 쿡 자매와 제가 통가 제도에 위치한 바바우란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대회의 일반 모임에서 선지자를 따르는 것에 대해 말씀을 막 마쳤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는 한 명만 있으신 영리한 축복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비교적 작은 섬인 바바우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만 가끔 심하게 가물 때가 있습니다. 섬에는 가파른 언덕 아래 섬을 따라 굽이지는 해협과 흡사한 길다랗고 작은 만이 있습니다. 가물 때문에 섬에 물이 부족해지면 생명을 유지할 신선한 물을 얻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그들은 산악 내부에 형성된 바위 사이를 흐르는 지하수가 바다 속 몇몇 장소에서 솟

아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통가 남자들은 작은 배를 띄우고 물이 나오는 위치를 찾기 위해 배 한 끝에 지혜로운 마을 어른 한 분을 태웁니다. 배에 탄 긴장한 젊은이들은 물통을 들고 바다 속 깊이 뛰어든 준비를 하고 서 있습니다. 그들이 물이 있을 만한 지점에 도착하면 어른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긴장한 젊은이들은 배에서 뛰어내려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깊이 잠수하여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물을 물통에 채웁니다. 이 연로한 축복사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수에 비유하였으며 지혜로운 어른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분은 그 물은 깨끗하고 신선하며 가뭄이 들 때 생명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축복사님은 선지자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모두 알고 싶어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신선한 샘물을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선지자의 말씀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비공식 기록에 의하면 핑클리 회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을 강화하고 가정에서 가족이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 원리가 참되다는 간증을 얻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게 해줄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을 키우는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을 때에도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저희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해롤드 비리 장로님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할 경우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1. 선지자를 따르다.
2. 우리 마음과 가정에 참된 복음의 영을 만든다.
3.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빛이 된다.
4. 성전에서 가르치는 의식과 원리를 기억한다. (교리와 성약 115:5; 해롤드 비리, "Your Light to Be a Standard unto the Nations," *Ensign*, 1973년 8월호, 3~4쪽)

저희가 이 권고에 따랐을 때 저희의 신앙은 증가되었으며 두려움은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에서 종교적인 원리들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자녀들을 의롭게 양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원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우리의 선교 노력입니다. 금년 8월 1일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기 전에 저는 선교사 부에서 6년 동안 봉사했으며, 마지막 3년간은 선교사 집행 평의회 의장으로 봉사하신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 아래서 집행 책임자로 봉사했습니다.

몇몇 선교부 회장님들은 저희에게 많은 훌륭한 회원들이 그들의 이웃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위장을 하고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이며 무엇을 믿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이 회복의 메시지를 알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구주]를 일컬음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는 아시아에서 언급된 훌륭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회원들이 이 축복을 성취하려면 “발을 움직이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선교 사업을 위한 지도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2004년 10월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핑클리 회장님께서는 이것을 시작하셨을 때 선교사들에게 교리를 배우고 영으로 원리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회원들이 이 일에 심도 있게 관여했습니다. 벨라드 장로님과 저는 이 훌륭한 지도서가 만들어지도록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감이 흘러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오십만 부 이상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회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기초이며 선교사들은 능력 있고 영적인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클리 회장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회원들은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생활하며 친구와 동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부름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딸 캐스린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와드에서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지난 주에 그 와드에 참석하여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리”라는 주제의 초등학교 성찬식 발표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린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초점을 맞춘

노래를 부르고 성구와 이야기들을 암송하는 것을 들으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딸에게 부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자신의 부름이 부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후 회장단은 사랑과 신앙과 기도를 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곧 특정 어린이 혹은 가족에 대해 영적인 느낌이 왔습니다. 불화는 사랑으로 대처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했을 때 초등학교에 경건과 화평이 함께 했으며 복음의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인생 여정의 교차로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첫째 원리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교차로를 빙빙 돌 뿐이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멍에를 지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운 까닭입니다.(마태복음 11:30)

하늘 아래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사도행전 4:12 참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야 하며 그분이 오실 때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우리의 얼굴에 그분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요한1서 3:2; 앨마서 5:14 참조) 두려움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할 때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6:34~36 참조) 우리가 매일 누리는 생명의 은사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칠십인 회장단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19 95년 9월 23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회와 세상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중 다음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¹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권고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빠르고 정신 없는 생활 방식, 과도한 일과 업무 때문에 부모의 관심은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가족들에게 시간을 내주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²고 가르치셨지만 그것이 단지 가족들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물건들, 혹은 음식을 집에만 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가르침을 줄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³ 선지자 리하이이는 그의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을 잘 이해했습니다. 니파이이는 “[그의]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⁴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주님은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⁵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세기 동안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돌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적이 우리의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모든 가르침들을 적용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께서서는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1. 가족 기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므로 매일 그분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2. 가정의 밤: 파우스트 회장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정의 밤은 우리가 현재 인생에서 어떤 시기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월요일 저녁이면 가족이 함께 모이는 데 방해가 되는 다른 모든 활동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개인 및 가족 경전 연구: 우리는 이 기본적인 습관을 통해 자녀들이 그들의 신앙과 간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⁶

파우스트 회장님의 현명한 권고를 따를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족들의 신

앙과 간증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가족 선언문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⁷

가족이 복음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을 가르치고 인도하려면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경배하는 영이 가정에 충만할 때, 그러한 태도와 영은 각 가족 구성원의 삶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가족 선언문은 구주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급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⁸ 그분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⁹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며,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꼭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삶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즉 우리의 시간을 내주고, 항상 그들의 삶에 함께하며, 봉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상냥하며, 우리의 가족과 구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삶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거나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최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함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한 글을 읽었습니다. 올해 7월, 브라질은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비행기 사고를 겪었습니다. 승객, 항공사 직원, 승무원, 그리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해 199명이 사망했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글은 사고로 사망했던 한 객실 승무원의 남편이 항공사의 대화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그 글은 노마 코넬 마택의 시를 기초로 했으며, 제목은 “내일이 오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이 그대가 잠든 것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란 것을 알았더라면,
 그대를 좀 더 꼬옥 안아주고, 주님께 그대를
 보호해 달라고 간구했을 텐데,
 이것이 그대가 문을 걸어 나가는 것을 보는
 마지막이란 것을 알았더라면,
 그대를 안고 입맞추며, 그대를 다시 불러 한
 번 더 안아주고 입맞춰 주었을 텐데,
 이것이 그대가 기도하는 것을 듣는 마지막이란



것을 알았더라면,
 후에 매일매일 들을 수 있도록,
 그대의 모든 몸짓, 모든 표정, 모든 미소,
 모든 말들을 녹취해 두었을 텐데.
 이것이 마지막이란 것을 알았더라면,
 그대가 내 사랑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대신
 일 분 또는 이 분을 더 내어 "사랑하오."라고
 말했을 텐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이란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기회가 오겠지. 오늘은 그냥 보내도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대와 하루를 보내며 곁에서 함께해 주었을
 텐데.
 물론 잘못을 고칠 날이 올 테고
 잘못을 바로잡을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만
 아, 물론 우리에게 "사랑하오."라고 이야기할
 다른 날이 올 테고
 서로에게 "도와줄까요?"라고 말할 또 다른
 기회가 분명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에게서 그 기회가 없군요!
 그대가 내 곁에 없고, 오늘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날이군요. 안녕.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싶어요.

그대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내일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의 손을 꼬옥
 잡아주고 여러분의 느낌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내일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은 왜 안
 되나요?
 왜냐하면, 만약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미소 짓고, 대화하고, 포옹하고, 입맞추는
 시간들을 좀 더 갖지 않았던 것을 평생토록
 후회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당신은 너무 바빠서,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가족을 꼬옥 안아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가까이 두고 싶은지 속삭여 주세요.
 시간을 내어
 "미안해요."
 "부탁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는
 "별 것 아니랍니다."

"괜찮아요."라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만일 내일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은 오늘 무엇을 했어야
 했더라고 후회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 또한
 오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¹⁰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에
 게 오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심을 압니다.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선지자였으며,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이 지상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75:28 참조.
 2. 교리와 성약 75:28 참조.
 3. 교리와 성약 68:25.
 4. 니파이전서 1:1.
 5.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6. "가족이 직면하는 도전",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3쪽 참조.
 7.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8. 요한복음 13:34 참조.
 9. 요한복음 15:13.
 10. www.heartwhispers.net 참조. 허기를 받아 인쇄함.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모성에는 영원한 영향력과 힘이 있습니다.



물 문경에는 아주 용감하고 용기 있으며 강한 2,000명의 모범적인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그들은 진실하고 진지한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었음이라.” (엘마서 53:21) 이 충실한 젊은이들은 그들의 어머니께 공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엘마서 56:48)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로나이 장군, 모사이야, 몰몬, 그리고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의 어머니들 역시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어머니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이 필

요합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에베소서 6:12)¹ 하는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과 성약을 맺을 때, 이들은 자녀들의 유익에 지대한 영향력과 힘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문화권에서 아이들은 점점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지만², 복음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대회에서 지지되었던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유효함”을 선언하셨습니다.³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되며 “영원한 관점에서 아이들은 소유물이나 지위, 명성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보화”라고 가르치셨습니다.⁴

하나님의 충실한 딸들은 아이 갖기를 원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브(모세서 4:26 참조), 사라(창세기 17:16 참조), 리브가(창세기 24:60 참조), 마리아(니파이전서 11:13~20 참조)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로서 미리 예입되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필멸의

삶에서 아이를 낳을 책임을 지지 않을지도 모르나, 구약전서의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사무엘상 1:11 참조) 여성들이 일생 동안 모성에 부여하는 가치와 현세에서 얻는 모성의 속성은 부활할 때 그들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0:18 참조) 이 지상에서 그같은 축복을 구하며 받기 위해 애쓰는 여성들은 영원토록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받았습니다. 영원은 필멸보다 훨씬 깁니다. 모성에는 영원한 영향력과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신성한 의식과 성약을 존중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신성한 의식과 성약을 존중합니다. 저는 이 지상에서 가장 빈곤한 몇몇 지역의 성찬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들은 먼지가 날리는 길을 수십 마일씩 걷고 낡은 대중 교통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경 써서 가장 좋은 일요일 복장을 갖추었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딸들의 머리를 빗으로 단정히 빗겨서 아주 말쑥하게 만든 뒤 깨끗하고 다림질된 옷을 입혀 데리고 왔습니다. 또 그들은 아들들에게 하얀 셔츠를 입히고 넥타이를 매게 했으며 선교사와 같은 두발상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성찬식에서 성약을 새롭게 맺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성약을 맺었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만일 자신의 자녀를 성전에 가도록 준비시키지 않는다면, 바라는 영원한 목표를 향해 자녀들을 준비시키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양육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양육자입니다. 이것은 행복의 계획에 따른 특별한 임무이자 역할입니다.⁵ 양육한다는 것은 기르고 돌보며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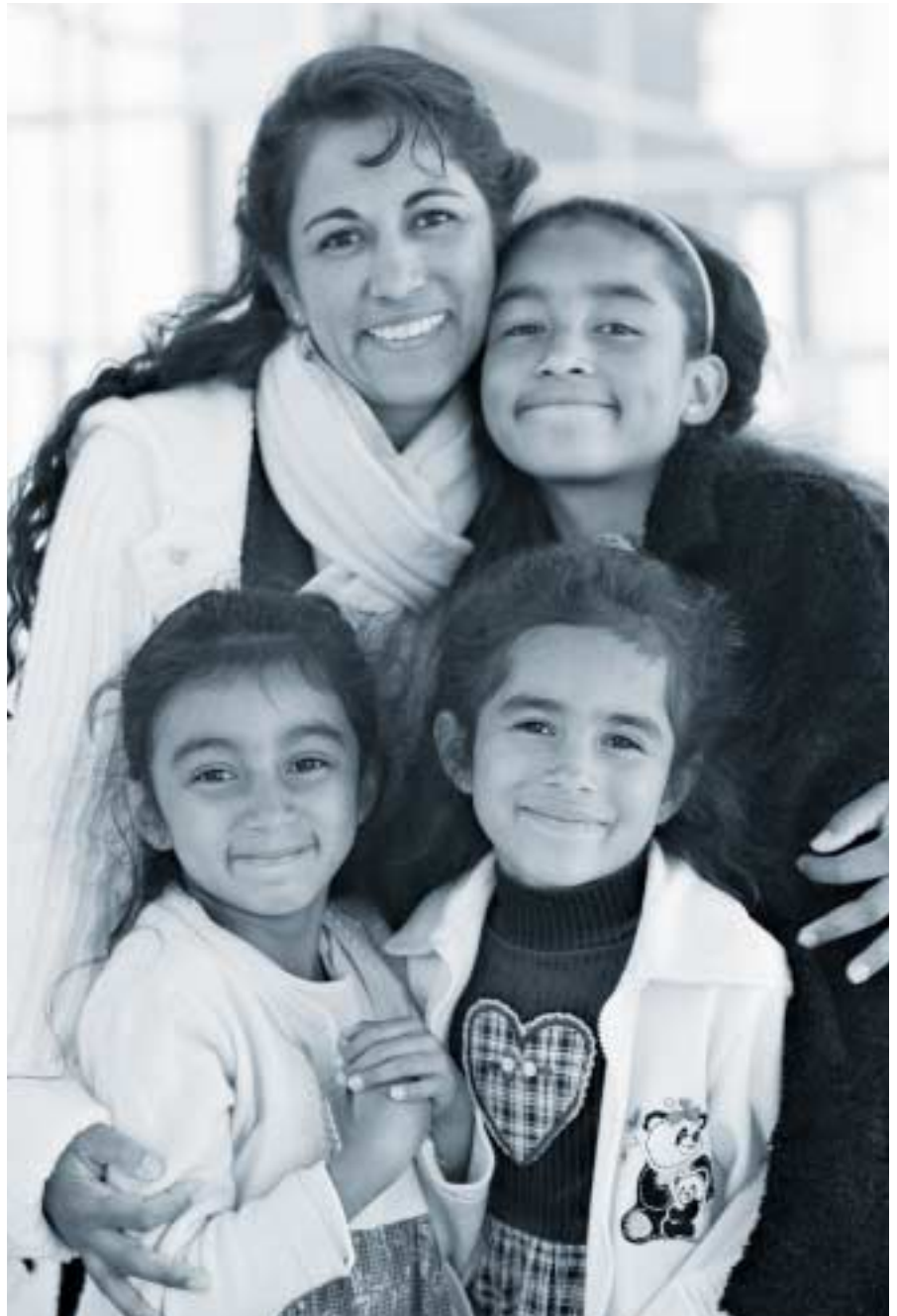
다. 양육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사입니다. 가사에는 요리, 세탁, 설거지와 정돈된 집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가정은 여성이 대부분의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후기 성도 여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주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사 일을 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자녀들이 따라야 할 본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어머니는 총명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정을 만드는 기술이 없다면 여성이 받는 모든 교육은 헛될 것입니다. 성장은 “질서의 집”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며 여성들은 그들의 가정을 주님의 집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109편 참조) 양육에 필요한 것은 조직, 인내, 사랑, 그리고 노력입니다. 양육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참으로 여성에게 부여된 가장 강력하고도 영향력 있는 역할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지도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지도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등한 동반자로서 그들은 가정이라는 위대하고도 영원한 조직을 이끕니다. 이 어머니들은 가정의 미래, 선교 사업, 성전 결혼, 그리고 교육을 위해 계획합니다. 그들은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을 위해 계획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도록 키우며 지도자의 모습에 대한 일차적인 모범이 됩니다. 이들은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거나 세상적인 자녀 양육 방법을 따름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이 현명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활동에 선별적으로 참여하며 그 결과, 그들의 한정된 힘을 아껴서 가장 중요한 곳에 그 영향력을 극대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교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언제나 교사입니다. 그들은 베이비시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의무는 끝이 없습니다. 가르



침을 잘 받은 한 친구는 저에게 자신이 교회에서 배운 것은 집에서 이미 다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족 경전 공부, 기도, 가정의 밤, 식사 시간, 그리고 그 외 모임에서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들의 가정을 예비 선교사 훈련원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의 미래 선교사들이 지니게 될 저력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선교사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복음 원리들은 처음 배우는 가르침이 아니라 복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들이 가지는 영향력이지 힘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덜 허용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덜 허용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견지에서 볼 때 나쁜 결과를 낳을 일들을 덜 허용합니다. 이 어머니들은 집에서 매체의 영향력을 줄이려 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 혹은 자녀들이 집에서 멀어지게 하는 활동들을 줄이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세상적인 재물을 덜 취하고 덜 소비하는 대신에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며, 일하고, 독서하고, 이야기하고,

작고 단순한 일

크리스토편 골든 이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날마다 드리는 기도의 성스러운 힘과 물문경의 확신시켜 주는 영향력,
그리고 성찬을 취할 때 진실하게 헌신하는 자세를 다시 한 번 발견하기
바랍니다.

웃고, 노래하고, 모범이 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이런 어머니들은 조심스럽게 선택하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세계에 전파할 자라나는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향후 50년간 주님의 왕국을 건설할 일꾼들이 될 미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들의 영향력이지 힘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은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이 의로운 아들과 딸들의 세대를 준비시킬 것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또한 강하고 흔들림이 없으며 힘들어 낙담하는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후기 성도 여성들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받은 선지자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그분은 교회의 여성들에게 “주님의 계획 아래 있는 올바른 합당한 것을 위해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서도록” 명하셨습니다.⁶ 그분은 진리의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우리 자신의 집에서 시작하라”⁷고 부탁하셨습니다. 후기 성도 여성들은 가족을 지명하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일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이 이 일을 할 것이며 복음의 진리를 “알았”던 어머니로 알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앨마서 56:48)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고든 비 힝클리,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1쪽 참조.
2. 제임스 이 파우스트, “가족이 직면하는 도전”,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쪽.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4. *To the Mothers in Zion* (팜플릿, 1987년), 3쪽.
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참조.
6. 고든 비 힝클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0쪽.
7. 고든 비 힝클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0쪽.



누 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¹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복음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가장 약한 자의 능력으로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²

물문경의 선지자 앨마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 주께서는 아주 작은 방편으로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느니라.”³

최근에 저는 약 45년 동안 저활동이었던 스탠이라는 한 형제님의 삶에서 이러한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았으며 아내와 아들이 교회의 충실

한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들 때문에 자신은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달 그를 방문하는 가정 복음 교사들을 환영했습니다.

2006년 2월에 스탠에게 새로운 가정 복음 교사가 지명되었습니다. 스탠이 복음이나 영적인 것에 관련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방문은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다음 방문에서도 스탠이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해졌지만 그들이 처음 받은 인상을 바꾸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방문 때는 스탠의 표정과 행동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스탠은 가정 복음 교사들이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심오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토론에서 스탠은 그의 아내와 함께 하루에 물문경을 한 장씩 읽기 시작했던 지난 달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알 맥쿱기 장로는 스탠이 경험한 이런 형태의 깨달음을 다시 얻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묘사했습니다. “이 축복된 책 한 권을 받은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그는 다 읽을 때까지 계속 읽었고, 그의 굵주린 영혼은 생명의 떡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그 책을 간과할 수도 없고 그 책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생명의 물이 그의 영혼에 있는 불모의 사막으로 흘러 들어가듯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분리시켰던 메마르고 공허한 느낌을 사라지게 합

니다.”⁴

가정 복음 교사들은 몰몬경의 놀라운 힘과 우리가 이 성스러운 책을 읽을 때 주님의 영의 영향력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미치는지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선언을 더욱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⁵

스탠의 배움에 대한 갈망과 회복된 복음의 재 발견 때문에 곧 그는 하루에 몰몬경을 한 장 이상씩을 읽게 되었으며 그의 느낌과 동기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진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실제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 된 자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 대신에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⁶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 또한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 여러분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⁷

2006년 8월에 스탠은 늘 충실했던 아내와 함께 45년 만에 처음으로 와드 성찬식에 과감히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젊은 제사 신권 소유자의 간단한 성찬 기도문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던 스탠은 가장 성스러운 이 의식의 깊이와 의미에 대해 뭔가를 느끼면서 몇 주 동안 빵과 물을 취하지 않고, 깊고도 고통스런 명상에 잠겼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수년 전 감동적인 간증을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성찬식은 교회의 모든 모임 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모임입니다. 구주께



서 성찬을 처음으로 소개하셨던 그 중대한 날 밤에 구주와 그분의 사도들이 함께했던 모임을 생각할 때, 제 가슴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고 또 감동받습니다. 저는 그 모임이 태초 이래 가장 엄숙하고 훌륭한 모임 중 하나라고 여깁니다.”⁸

스탠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며 교회에 참석하고 가정 복음 교사들로부터 적절한

권고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의 손을 뻗어 소중한 성찬을 취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 기쁜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성찬을 합당하게, 깊이 생각하며 경건히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신의 권능으로 인해 “신성한 성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⁹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탠이 다시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면서 그

는 부름을 받았고 몇 달 후에는 장로로 성임 되었습니다. 2007년 7월, 스텐과 그의 아내 는 주님의 집에서 제단을 사이에 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원한 법에 따라 현 세뿐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지속되는 결혼을 하 였습니다.¹⁰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기도의 성 스러운 힘과 몰몬경과 거룩한 경전의 확신시켜 주는 영향력을 다시 한 번 발견하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성찬을 취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주께 진실하게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 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¹¹

매우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 력과 주님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인해 “작고 단 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스러운 원리들에 관 한 저의 개인적인 간증과 확신을 덧붙이며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27:13~18; 교리와 성약 14:7 참조.
2. 마태복음 11:28~30; 야곱서 4:14; 앨마서 37:44; 교리와 성약 133:57~58 참조.
3. 앨마서 37:6~7.
4.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년), 414쪽
5. *History of the Church*, 제4권 461쪽.
6. 누가복음 11:11, 13; 영문 경전 각주 13a에 있는 조셉 스미스 역 참조.
7.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년), 468쪽.
8. Conference Report, 1929년 10월, 60~61쪽.
9. 베드로 후서 1:4; 또한 제3니파이 18:1~14 참조.
10. 마태복음 19:3~6; 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11. 모로나이서 6장 참조.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영적인 목적은 죄와 죄에 대한 욕망, 죄의 흔적과 횡포, 이 모두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몰몬경 이야기를 읽어주시던 기본종은 추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린 상상력 속에 경전 이야기를 생생하게 불어넣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성스러운 기록의 진실함에 대한 간증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 미 대륙을 방문하신 일과 풍요 땅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어머니의 설명을 기억합니다. 단 순하고 일관된 모범과 간증을 통해 어머니는 구주와 그분의 후기 교회에 대한 제 신앙의 첫 번째 불꽃을 지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몰몬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며 그분

의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담고 있다는 것을 (교리와 성약 27:5 참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몰몬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건 중 하나인 신세계에 나타나신 구주에 대해 되짚어보고 무리에게 주신 성신의 성결케 하는 능력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영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신세계에서의 구주의 성역

삼 일 동안 신세계에서 이루어진 성역 기간 동안 주님은 그분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의 제자들에게 신권 의식을 베풀도록 권세를 주셨으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 하시며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 시간이 끝나갈 때, 주님은 그의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간결하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제3니파이 27:20)

이 구절에서 주님이 요약하신 기본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필수 요소들입니다. 첫째는 “악에서 돌이켜 그

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에게로 향하”(경전 안에서, “회개”, 300쪽)에 하는 회개입니다. 구속주에 대한 신앙의 영적 은사를 적절하게 구하고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게 됩니다.(니파이후서 2:8 참조) 회개는 구주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는 달콤한 열매이며, 하나님께로 향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분께 나아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성전에 함께 모인 무리들은 문자 그대로 구주께 “하나씩”(제3니파이 11:15) 나와 주님의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고 그들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도록 허락 받았습니다. 이를 경험한 각 사람들은 그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이심을 분명히 알고 증거하였”(15절)입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백성들에게 성스러운 성약을 통해 그분께로 나아오라고 가르치셨으며 그들이 “성약의 자손”(제3니파이 20:26)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침례 의식(제3니파이 11:19~39 참조)과 성신을 받는 것(제3니파이 11:35~36; 12:6; 18:36~38 참조)의 영원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며 그분의 회복된 복음의 성약과 의식들을 통해 그분께로 나아오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침내 풍요 땅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분이 정한 때에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교리와 성약 88:68)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요한복음 17:3 참조)

성약과 구원의 의식을 통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성신을 받음으로써 성결케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기 위한 선행 요건이자 준비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성신의 성스러운 영향력에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

침례의 문은 험착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는(모사이야서 3:19 참조)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필멸의 여정이 된 목적은 단순히 지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 중심적인 관심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로마서 6:4)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며(히라맨서 3:35 참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고린도전서 2:16)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 성신의 성결케 하는 능력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명령 받고 가르침 받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신에 의한 불의 침례는 “[우리들을] 세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개종시킵니다. 그것은

영혼을 깨끗이 하고 치유하며 정화시킵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물의 침례, 이 모든 것은 성신에 의한 불의 침례를 위한 예비 및 선행 요건이지만, [불의 침례는] 완성입니다. 불의 침례를 받는 것은 그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정결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Learning for the Eternities*, comp. George J. Romney [1977년], 133 쪽; 또한 제3니파이 27:19~20 참조)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고 항상 그의 영광 함께하도록 노력할 때, 성신은 우리의 영혼을 마치 불로써 하듯 성결케 하고 정제합니다. (니파이후서 31:13~14, 17 참조)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우리 인생에

서의 나쁜 영향들을 피하고 극복하며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또한 그것은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하게 되며 더 나아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복음의 유일한, 또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모사야서 5:2) 했듯이 성신에 의해 개심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성약의 책임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나은 자기 수양을 통해 온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능케 된 우리의 소망, 동기, 본성에 생긴 근본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적은 죄와 죄에 대한 욕망, 죄의 흔적과 횡포, 이 모두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고금을 막론한 선지자들은 (1) 악을 피하고 극복하는 것과 (2) 선을 행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강조해 왔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던진 다음의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시편 24:3~4)

형제자매 여러분, 손은 깨끗하지만 마음은 청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두 가지가 다 요구된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저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는 과정과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 삶에 미치는 사탄의 영향력과 죄를 극복함으로써 손이 깨끗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선을 행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강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받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합당한 소망과 선행들은 필수적이긴 해도 절대로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대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남아프리카의 회원들

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도록 **정화와 구속의 권능**을 주고, 우리 자신의 힘에만 의지할 때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결과 강화의 권능**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무한한 속죄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죄인과 성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물문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속죄에 관한 베냐민 왕의 훌륭한 가르침들을 봅니다. 그가 가르친 단순한 교리는 백성들을 땅에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이는 주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속된 상태에 있어, 실로 땅의 티끌보다 못함을 보았고, 이에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오 공홍히 여기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사 우리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니이다.”(모사야서 4:2; 강조 추가)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끗한 손을 암시하는 죄 사함과 청결한 마음을 뜻하는 본성의 변화, 이 두 요소를 가진 축복을 발견합니다.

베냐민 왕은 그의 가르침을 끝맺으며, 영적 진보의 이 두 가지 기본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러한 일을 위하여—즉 **매일 너희의 죄 사함을 간직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나는 너희가 각 사람이 가진 바에 따라 너희 재물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노니”(모사야서 4:26; 강조 추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즉 매일매일의 죄 사함과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청결하며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베드로전서 1:19)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피를 흘리신 그분 앞에 설 때, 깨끗한 손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이 메시지를 듣거나 읽는 어떤 이들은 제가 설명하는 영적 진보가 자신들의 삶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는 적용되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향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영적 발전에 대한 주님의 방침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니파이후서 28:30)** 더하는 것입니다. 작고, 꾸준하고, 점진적인 영적 진보가 주님께서 우리가 밝기를 바라시는 단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견도록 준비하는 일은 이생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며 일생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가끔씩 열심히 하는 영적 활동으로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들이 지속적인 진보를 이루도록 북돋아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흠 없었던 고대 교회 회원들이 **“많되, 심히 대단히 많았”(엘머서**

산에서 뜨인 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주님께서는 그분의 복음이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가수는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릅니다. 오케스트라는 같은 음악을 반복해서 연주합니다. 그러나 연사는 매번 새로운 말씀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통념을 깨고 제가 다른 모임에서 말씀했던 것을 일부 되풀이 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지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176개의 국가와 자치령에 1,3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시현에서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그분의 복음이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리라는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다니엘 2:31~45; 교리와 성약 65:2 참조) 이 위대한 기적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84년 전인 182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9월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9월 21일과 22일 밤이었습니다.

소년 조셉 스미스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을 때, 나는 한 줄기 빛이 내 방에 들것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빛이 점점 퍼져 마침내 내방은 한낮보다도 더 밝아지더니 홀연히 누가 내 침대 곁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

“그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 이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고 말하였다.”(조셉 스미스-역사 1:30, 33)

소년이었던 그는 틀림없이 자신이 들은 말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눈에

13:12)던 몰몬경의 선례는 저에게 격려와 위안을 줍니다. 저는 이 고대 교회의 회원들이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남자와 여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혐오감 없이는 죄를 바라볼 수 없었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12절)습니다. 영적 진보의 이 원리들과 과정은 우리 각자에게 언제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로나이의 마지막 제언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성도가 되며, 악을 피하고 극복하며, 선을 행하고 선하게 되며,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얻는 요건은 몰몬경 전체에 걸쳐 되풀이되는 주제입니다. 사실 몰몬경 끝에 나오는 모로나이의 마지막 권유는 이 주제의 요약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죽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

“그리고 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그의 권능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나니, 이 피 흘림은 아버지의 성약 안에서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으로서 너희를 거룩하며 흠 없게 되게 하는 것이니라.”(모로나이서 10:32~33)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구주의 속죄를 통해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추구하여 거룩하게 되고 흠 없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흠 없는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며 선을 행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강화시키십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그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시골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이웃들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부모님은 생활고와 싸우는 농부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된 노동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조셉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일컫는 말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177년 전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놀라게 됩니다. 1830년 교회가 조직되었을 당시에는 여섯 명의 회원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숫자였고 이들 모두가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주요 도시에 회원이 있으며 북미에서 네 다섯 번째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온의 스테이크들은 미국의 모든 주, 캐나다의 모든 주, 멕시코의 모든 주, 중미 각국, 그리고 남미 전역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영국과 유럽 전역에도 있습니다. 이곳은 다년간 수천 명이 교회에 들어온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발트해 연안 제국과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곳까지 뻗어있습니다. 러시아의 광대한 지역에도 뻗어 있습니다. 몽고와 그 아래의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와 인도네시아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연차 대회는 위성과 다른 수단을 통해 92개의 언어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은 전 세계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비길 데 없이 훌륭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다”(요한복음 17:3)

조셉은 14세의 나이에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시현을 통해서 다른 곳에 기록된 인간의 경험들과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 지상에 나타나셨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나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형의 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나, 그분의 모습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스테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구주를 보았으나 그 두 분은 스테반에게 말씀하시거나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서반구의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세 번 들렸으나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1820년 조셉이 숲 속에서 기도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두가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 중 한 분이 조셉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7)

이러한 일은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즉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의 요소가 한 곳에 모이게 될 복음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서막을 여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상의 인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긴 역사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구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 점차 배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땅이 또 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

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이사야 24:5)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은 인간들은 그분을 정의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식 있는 성직자들은 서로 논쟁했습니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는 이 학식 있는 사람들을 소집하여 중대한 회의를 열고 그들이 신의 참 속성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다양한 관점의 절충안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서기 325년의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때 이후로 니케아 신조와 그 후의 신조들은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들에게 신의 속성에 관한 공식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신조들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1820년, 비견될 수 없는 그 시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들은 그에게 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으며, 그도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볼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으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개별적인 인격체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실체였으며 가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육신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우리는 신의 속성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1842년 조셉이 신앙개조를 썼을 때, 그는 제 1조로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1:1)고 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예언적으로 설명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참된] 증인들”이 이후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히브리서 12:1 참조)

그 첫 번째 증인으로 모로나이가 판을 가지고 왔으며 그것은 물몬경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유례없는 놀라운 일입니까.

금판에 관한 조셉의 이야기는 환상적입니다. 그것은 믿기 어렵고 이의를 제기하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만지고 읽을 수 있도록 여기 있습니다. 조셉이 말한 것 외에는 이것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짧은 시간에 번역을 하였으며 그것은 500페이지가 넘는 출판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 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고린도후서 13:1)

성경은 수세기 동안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훌륭하고 보배로운 책입니다. 이제, 그

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하는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기도를 통해 그것에 관해 묻는 사람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그것이 참됨을 알게 되리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유일한 책임을 알고 있습니다.(모로나이 10:4 참조)

뉴욕 주 팔마이라의 시골 인쇄소에서 초판이 나온 이래, 몰몬경은 1억 3천 3백만 부 이상이 출판되었으며, 105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20권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초판 한 권이 10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저렴한 보급판도 그 안에 쓰여진 말과 메시지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비평가들은 몰몬경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몰몬경에 반대하는 말을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몰몬경은 그들 모두보다 오래 보존 되었으며, 오늘날 몰몬경의 영향력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 그 다음으로 신권이 회복되었는데, 이 신권은 구주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것을 소유했던, 부활한 사람들에게 의해 주어졌습니다. 이 일은 조셉이 겨우 스물세 살이었던 1829년에 일어났습니다.

신권의 회복이 있은 후,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때 조셉은 아직 스물다섯 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조직 또한 전통적인 기독교 종파의 조직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교회는 대개 평신도에 의해 운영됩니다. 자원 봉사가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해외로 퍼져나가면서, 수천 명의 충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노력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저는, 비록 나이 어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몸소 성임하신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기이한 일들에 놀랍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학자들은 이 사업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크게 발전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선견자요 계시자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는 구주께서 팔레스타인의 길을 걸으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을 지상에 회복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도구로 이 세대에 오도록 예임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선지자 조셉의 부름과 그의 업적과 영원한 진리에 대한 순교자로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간증을 인봉한 것에 대해 거듭 간증드립니다. 여러분 각자도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첫번째 시현과 그 뒤를 이어 일어난 사건들의 진실성을 받아들이느냐는 준엄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정당성은 첫번째 시현의 진실성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이 참되다면,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말한 것들이 참됨을 간증드리며, 하늘의 축복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문이 열려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과 그분은 이 약속을 성취하실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의 축복과 사랑을 남기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개인적인 계시: 선지자의 가르침과 모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개인적인 계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역사적인 대회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일회장단의 한 보좌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을 지지하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을 지지하며, 또한 윌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님을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분들께 저의 사랑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시와 예언의 영을 좇아”¹ 살아 계시는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

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일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업에서 계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계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 줍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 즉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실재성, 회복된 복음의 진실성,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계시에 대해 제가 아는 것들의 대부분은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보여준 모범에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 오후 저는 이러한 개인적인 모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어 우리 삶에서 개인적인 계시의 축복을 구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래 전, 지역 대표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저는 매리온 지 롬니 장로님이 어느 스테이크를 재조직하는 일을 돕도록 지명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랫동안 조용히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의 대화는 우리가 지명 받은 일의 영적인 중요성이란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롬니 장로님은 제게 주님께서 계



시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버트, 저는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롬니 장로님은 또한 우리가 가고 있던 그 먼 곳에 있는 도시에 도착하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신권 소유자들을 접견한 뒤,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이며, 그러면 성신은 주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이 누구인지 알려주실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일이 저의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약속 하셨으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자가 영생에 합당한가를 입증해 보이도록 우리를 이 지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² 어떻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알고, 복음을 배워 그에 따라 생활하며, 의롭게 끝까지 견디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해져 그분들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어떻게 구합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혜보다 성령에 의존하려고 권고했습니다.³ 성령을 얻으려면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례 받고 약 3주 후, 은밀한 기도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게 내려와 ... 제가 느낀 기쁨과 행복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거룩한 신권의 회복, 그리고 충만한 복음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⁴

저는 기도가 개인적인 계시를 위한 확고한 기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대표로 있는 동안 저는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에게서도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스테이크를 재조직하도록 지명 받았는데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을 접견하고 기도한 후, 패커 장로님은

함께 건물 주변을 걷자고 하셨습니다. 함께 건물 주변을 산책하면서 그분은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는 중요한 원리, 즉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가르치신 다음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라, 너는 그것을 네 생각으로 연구해야만 하느니라.”⁵ 우리는 지명 받은 일을 깊이 생각하고, 함께 상의했으며,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더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계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옵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응답들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신앙을 갖고 전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했을 때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님을 도와 스테이크 회장단을 재조직하는 일을 하도록 지명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접견하고, 연구하고, 다시 기도를 한 후에 벤슨 장로님은 누가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이 되어야 할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그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그분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명의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에게 대회의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말씀을 하도록 부

탁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연사가 말씀을 시작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영은 그가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순간 고개를 돌려 벤슨 회장을 보았는데, 그분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전진하며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계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던 초기에 해롤드 비리 장로님께서 제가 살던 지역에 새로운 스테이크를 조직하러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리 장로님은 그때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새로 지지 받은 감독으로서 자신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젊고 당당한 기자 한 사람이 리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잠시 생각에 골몰하시던 리 장로님은 그를 똑바로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제 오후 세 시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누가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기도를 드렸으며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리 장로님의 대답에 기자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리 장로님이 주님의 뜻을 충실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간증을 하셨을 때 회장장 안에 깃들었던 영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충실한 어린이, 청소년, 부모, 교사, 그리고 지도자로서 우리는 자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자주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깨달을수록 우리의 간증도 커집니다. 감독으로서 저는 와드 회원들에게 부름을 주라는 계시를 받을 때마다 간증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간증은 총관리 역원과 그 밖의 역원들,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이 부름을 받거나 새로운 지명을 받는 것을 볼 때마다 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 남편,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에서 받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 문제로 인도를 구할 때 저희 가정에 깃드는 영의 인도와 지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경전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선지자들이 받는 계시의 형태를 따릅니다. 아담과 이브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했으며 구주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⁶ 에녹, 아브라함,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 간구했을 때 받은 놀라운 계시는 값진 진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⁷ 엘리야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통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고,⁸ 다니엘은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습니다.⁹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는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증을 주었습니다.¹⁰ 리하이와 니파이는 구주와 구원의 계획에 관한 계시를 받았으며, 실제로 성경과 물몬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강화하고, 위로하기 위해 계시를 받았습니다.¹¹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성전에서 많은 기도를 드린 후에 신권에 관한 계시를 받으셨습니다.¹² 핑클리 회장은 더 많은 교회 회원들에게 성전 축복을 주고자 기도를 드렸고, 그분은 소규모 성전 건축에 관한 계시를 받으셨습니다.¹³

선지자들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지상에서의 교회 업무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위해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주 동안 핑클리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발표할 새로운 부름에 대한 계시를 구해 오셨습니다. 한 달 전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매주 목요일에 갖는 성전 모임에서 저는 핑클리 회장이 영적인 인도를 얻기 위해 드린 간절하고 진지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한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발표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계시의 표본이 보이십니까? 그와 같은 계시가 우리 생활의 일부이기도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계시가 속죄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¹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계명을 지킬 때 속죄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침례 받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으며, 매주 성찬을 취할 때 이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무엘과 더불어 “말씀하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¹⁵라고 말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¹⁶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경전을 연구하고, 금식과 기도를 하고, 신앙을 키움으로써 선지자들처럼 개인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신앙이 열쇠입니다. 조셉이 첫번째 시현을 받도록 준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¹⁷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으로 말미암”¹⁸는다는 것을 압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적은 흥해를 가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감옥의 벽을 무너뜨리거나 하늘 사자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가 어떤 생각이나 강한 인상, 확신을 주는 느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어려움을 이겨낼 힘, 실망과 슬픔을 참아 내게 하는 위안 등의 형태로 부드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경전에서 “신앙의 시련”¹⁹이라고 부르는 것을 견딜 때 옵니다. 때로는 응답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그러한 시련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소를 기르던 소년 시절에 증거를 구했으나 그 증거는 나중에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심 많은 청소년기에 초원의 언덕 위에서 드렸던 은밀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진실된 기도는 ‘언젠가, 어디선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되었습니다.”²⁰

응답은 “지금은 아니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언덕이나 들판, 숲이나 골방에서, 지금 혹은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구주의 다음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²¹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명을 받은 한편,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라”²²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은사에는 성신과 개인적인 계시가 포함됩니다. 그 계시는 구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님이] 더 줄 것”²³입니다.

저는 우리가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받기를 간구합니다. 구주께서는 신대륙, 즉 미대륙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이 그 영을 받도록 기도하셨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떠나 기도하시면서 영을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²⁴ 우리도 그분의 모범에 따라 하나님의 영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위대한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고, 살아 계신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저의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힝클리 회장님이 계시를 통해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앨마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 이제 내가 참으로 그러한 것이 참된 줄을 스스로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 그것들을 내게 나타내 주셨음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계시의 영이니라.”²⁵

우리 각자가 그 영을 받고, 개인적인 계시의 축복을 받고, 우리 스스로 이러한 일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주

1. 앨마서 8:24.
2. 요한복음 17:3.
3. 고린도전서 2:11~16 참조.
4. Eliza R. Snow,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년], 8쪽에서 인용.
5. 교리와 성약 9:8.
6. 모세서 5:4~11.
7. 창세기 18:23~33; 출애굽기 3:1~3, 32:31~33; 모세서 1:1~2, 24; 6:26~37; 7:2~4; 아브라함서 1:1~2, 15~19 참조.
8. 열왕기상 19: 11~12 참조.
9. 다니엘 2:16~20 참조.
10. 마태복음 16:15~17 참조.
11. 니파이전서2:16; 11:1~2참조; 추가의 예로 모사이야서 3:1~4; 앨마서43:23; 힐라맨서 7~8장; 힐라맨서 10:2~4; 제3니파이 1:10~13; 볼몬서 8:34~35; 이터서 3:1~6, 13~14, 25 참조.
12. “신권을 통한 계시에 관한 제일회장단의 편지”

Tambuli, 1978년 7월호, 31쪽; *Ensign*, 1978년 11월호, 16쪽 참조.

13. “성전, 개종자 보유, 그리고 선교 사업에 관한 몇 가지 생각,” *Ensign*, 1997년 11월호, 49쪽 참조.
14. 사도행전 9장, 모사이야서 27장, 앨마서 36장 참조.
15. 사무엘상 3:10.
16. 마태복음 13:16.
17. 야고보서 1:5~6.
18. 모로나이서 7:37.
19. 이터서 12:6.
20. Francis M. Gibbons, *David O. McKay Apostle to the World, Prophet of God* (1986년), 50쪽에서 인용.
21. 마태복음 7:7; 누가복음 11:9; 또한 제3니파이 14:7 참조.
22. 교리와 성약 46:8.
23. 니파이후서 28:30.
24. 제3니파이 19:29~23 참조.
25. 앨마서 5:46.

진리: 올바른 의사 결정의 기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가치를 잃습니다.



우리가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반이 진리뿐이라면,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어지럽게 뒤엎힌 미디어, 인터넷, 그리고 기타 수단 때문에 끊임없는 권고와 충고, 선동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도 매우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여러 개의 해법들을 얻곤 합니다. 때로 그 해법들 중에는 완전히 정반대인 것들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것 이어야 한다는 접근법으로 우리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그릇된 방법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회·정치 구조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다르며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의사 결정 방법이 어리석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진리를 찾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그에 근거 되는 법칙을 따른다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타당한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진리를 구하는 데에서 의미 있는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리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절대적인 진리를 밝혀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신중하더라도 간혹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진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진리의 근원에 직접 묻거나 그로부터 받은 영감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¹ 이 방법으로 진리를 구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모든 진리의 근원에 대해 확고부동한 믿음

이 있어야 하며, 또 다른 하나는 주님과 영적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개인적인 계시와 그 계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학적인 접근법²

과학적인 진리 탐구 방법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사실들을 알아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옐로힘께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허락하신 것의 넓이와 깊이, 그 웅장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간다면 우리는 먼저 우주 비행사들처럼 지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볼 것입니다. 그 천체는 아마도 광활하게 펼쳐진 무수한 별들 중에 회전 운동을 하는 작은 물체로 반짝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응축된 중심부 주위를 중력 때문에 일정한 궤도로 도는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수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너머로 우리는 처녀자리 은하단이라 불리는 수많은 은하수 집단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약 5천만 광년 떨어진 우리의 은하수 역시 이 은하단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너머에는 허블 망원경이 찍은 100억 광년 밖에 있는 은하수 집단이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에 빛이 이동하는 거리가 약 11억 킬로미터에 달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거리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고 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끝에 다다랐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이롭고 놀라운 우주의 장관 이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신 능력을 입증하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물질의 구조를 탐구하기 위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여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DNA라고 불리는 두 개의 나선형 분자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NA는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놀라운 분자 구조



덴마크에서는 대회 모임들 사이에 우정 증진을 실시한다.

로서 우리의 신체 구성을 결정합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난다면 우리는 여러분께서 들어 보셨을 법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라는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창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성물의 신비를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물질의 구조에 대해 많은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에 관한 표준이론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쿼크와 렙톤으로 명명된 기본 입자의 존재를 밝혀낸 실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모델은 핵융합과 붕괴의 과정을 밝혀냈지만 여전히 중력의 힘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현 지식을 알기 위해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있어야 기본 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주님의 창조물에 대한 의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우리의 이해력을 놀라울 정도로 넓혀 주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특별히 과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누가 이러한 것들을 창조했는지,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

들이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그 지식의 근원이 주님에게서 왔음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해 주신 이야기는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재능있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뛰어난 과학자들과 가졌던 모임에 대한 경험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이어링 회장의 아버지는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연구가 모든 것을 조직하는 더 높은 예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러한 예지의 존재에 대해 확신한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에 대해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우주가 대체로 비어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망원경이 선사하는 광활한 우주나 현미경 속의 미세한 물질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실재하는 형태로 여기지만 이것들조차도 대부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고귀한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지배하시며 사용하시는 빈 공간입니다.

게시를 통한 진리 탐구 방법

게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수세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

들을 통해 그분의 광활한 창조물을 성신의 도움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³ 에녹은 그러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탄이 자신의 권능과 힘으로 지상의 많은 사람들을 악에 빠뜨리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시며 모든 영원에서 모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온대 어찌 우실 수 있나이까?”

“또 사람이 ... 참으로 이 땅과 같은 수백만의 땅을 셀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창조의 수의 시작도 되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막은 여전히 펼쳐져 있고 아직도 ... 당신은 공의로우시며, 당신은 영원토록 자비롭고, 친절하시니이다.”

“... 또한 오직 평강과 공의와 진리만이 당신 보좌의 초소이며, 자비는 당신을 앞서 나아가며, 끝이 없거늘 어찌 당신께서 우실 수 있나이까?”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이 네 형제들을 보라, 그들은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 ... 그들에게 그들의 지식을 주었고 ... 그의 선택의지를



주었느니라.”

“그리고 네 형제들에게 ... 계명도 또한 주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고,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택하라 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애정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느니라.”⁴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또한 나는 내 자신의 목적이 있어 그것들을 창조하였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독생자니라 ...”

“... 세상이 많으니라 ... 사람들에게는 셀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만물이 헤아려 지나니, 이는 그것들이 내 것이요, 내가 그것들을 알고 있음이니라.”⁵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가치를 잃습니다. 아주 뚱뚱한 한 남자가 제과점 진열대로 다가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더는 저걸 먹지 말라고 했지. 몸에 안 좋은 거야. 저건 단지 순간적인 식욕을 만족시켜 줄 뿐이라고. 먹고 나면 종일 속이 불편할 거야.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잖아.’ 그러나 그는 곧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 아몬드 페이스트리 두 개와 초코 도넛 두 개만 먹어 야지. 한 번 더 먹는다고 해 될 건 없어. 딱 한 번만 더 먹을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신앙과 성품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는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들을 믿는 깊은 신앙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신 것은 여러분의 성품을 갈고 닦기 위해서입니다. 훌륭한 성품은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성신의 인도에 순종하려는 여러분의 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의로운 성품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것과 여러분이 소유한 것, 여러분이 배운 지식, 또는 여러분이 성취해 온 목표보다 더 중요합니다. 의로운 성품은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며 영적인 힘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우리 능력 밖의 문제로 보이는 일이라도 그 시련과 시험의 시기에 매우 중요하고 힘든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사탕이나 그 어떤 세력도 발전하는 여러분의 성품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오직 여러분의 불순종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십시오. 신앙을 행사할 때 성품이 발전합니다. 강화된 성품은 여러분의 능력을 신장시켜 더 큰 신앙을 행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자신감이 커 집니다. 그리고 성품을 강화시키는 과정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강화될수록 더 훌륭한 성품을 위해 더 큰 신앙의 힘을 행

사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이제 아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할 때 오묘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관대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으며 그분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의 계획⁶을 주셨고, 순종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인도와 보살핌 아래 살며 성장하고 발전하여 승영의 길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신 이 창조주께서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믿는 절대적 신앙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우리의 주,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든 능력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강한 사랑을 발휘하시는 그분들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엄숙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드립니다. 아멘. ■

주

1. 야곱서 4:8 참조.
2. 더 자세한 내용은 *McGraw-Hill Concise Encyclopedia of Physics* (2005년); Philip Morrison and others, *Powers of Ten* (1982년); www.particleadventure.org 및 www.atlasoftheuniverse.com 참조.
3. 모세서 1:39.
4. 모세서 7:29~33.
5. 모세서 1:33, 35.
6. 엘머서 42:31 참조.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다니엘 케이 저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

경전과 후기의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강조된 기본적인 교리와 원리,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남 시절에 저희 가족은 유타 남부와 애리조나 북부에서 소와 말을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 한 마리를 붙잡아 올라 타고 싶다면 곡식 한 줌을 양동이에 넣고 몇 초 동안 흔들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들은 우리 안에서나 넓은 벌판에서나 상관 없이 곡식을 먹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들이 곡식을 먹는 동안 살며시 머리 위로 고삐를 씌웠습니다. 저는 그토록 간단한 방법

이 잘 통한다는 사실에 늘 감탄했습니다.

가끔 곡간에서 곡식을 가져오는 것이 귀찮을 때 우리는 양동이에다 흙을 조금 담고 흔들며 곡식이 있는 것처럼 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말들이 우리의 속임수를 알아챘을 때 어떤 말들은 그냥 남아 있었지만 다른 말들은 우리 힘으로 붙잡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말들이 다시 우리를 신뢰하게 만드는 데는 종종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말을 쉽게 다루려면 한결같이 곡식을 주어야 하며 그래야 말들도 더 많은 영양과 힘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장에서 보냈던 그 시절은 아주 오래 전 이야기이지만 제가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볼 때면 그때 그 경험은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리적, 영적 양분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복음의 몇 가지 새로운 측면이나 오랜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경험을 얻으

려고 옵니다. 그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강화하고 소망을 새롭게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늘의 권능으로 강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중에 말씀을 하거나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그러한 것들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¹

구주와 그분의 종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모로나아서 6:4) 되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감 어린 지침을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50편은 그러한 권고들을 제공하는 여러 참조 성구들 중 하나입니다. 교회 초기에 일부 지부들의 격정거리를 아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는 이 질문을 너희에게 하노니-너희는 어떠한 것에 성임되었더냐?”(교리와 성약 50:13) 잘 알려진 주님의 대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 곧 진리를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임되었느니라.”

1831년에 성도들이 겪던 문제의 해답은 바로 성신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교리와 성약 50편은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양분을 줄 수 있는지 몇 가지 핵심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교리와 성약 50:14)는 구주의 권고에서 나옵니다. 경전은 우리가 전파하려는 복음이 “세상의 지혜”(모사이아서 24:7)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리”(니파이후서 31:21)임을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진리를 포용할지라도 모든 진리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습니다.² 구주는 첫째이자 으뜸가는 그분의 복음은 그가 “세상의 구속을 위하여 ... 치르신 속죄의 희생”(교리와 성약 138:2)이라



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끝까지 충실하게 견딤을 통해 속죄의 축복을 받으라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남 시절의 경험에서 말들은 흠보다 곡식에 훨씬 더 마음이 끌린다는 것과 짚보다는 건초가 영양가 있고, 건초보다는 곡식이 더 영양가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무엇을 먹이든 말을 배부르게 할 수는 있지만 영양을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와 지도자로서 덜 중요한 주제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경전과 후기의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강조된 기본적인 교리와 원리,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로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초점을 맞춘 반 토론이 고대 도시인 제이라헤물라가 현재 지리상으로 정확하게 어디 있는가와 같은 주제로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³ 지도자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지도자 모임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을 쌓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단순히 관련된 일 정표에 초점을 두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의미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리와 성약 50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일 주님이 지시하신 방법 대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교리와 성약 50:18)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것과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교리와 성약 52:9)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공과나 우리가 인도하는 모든 모임이 신앙과 회개만을 가르치도록 제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와 유사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사와 참여자들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결심과 신앙이 생기도록 주님의 영을 불러오길 항상 소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⁴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모로나이서 6:4) 되도록 보장하는 두 번째 열쇠는 “영 곧 진리를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교리와 성약 50:14)는 구주의 지시에도 나옵니다. 구주의 말씀은 우리가 준비하고 가르칠 때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지시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가장 효과적인 교사는 영이라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늘의 사자가 직접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진리를 전할 능력이 있습니다.”⁵

몇 달 전에 저는 몇 분의 총관리 역원들이 말씀하는 어느 훈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모임에서 배운 훌륭한 가르침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난 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분은 이미 말씀하신 분들이나 이제 말씀하실 분들의 권고가 중요하듯이 성신으로부터 받게 되는 무언의 느낌들도 주의 깊게 듣고 기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다음 말씀은 영에 의한 가르침에 대해 또 다른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 우리의 교사들이 책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주님과 이 귀중한 사업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대해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이들의 마음에 큰 감화를 줄 것입니다.”⁶

교리와 성약 50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가 가르침, 지도력, 배움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영감 받은 표준도 제공합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생명의 떡과 생수로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이들을 강화함으로써 훌륭하게 돌보고 양육할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 *리아호나*, 1998년 7월호, 26쪽.
2. 에즈라 테프트 벤슨, “그리스도의 새 증인”, *리아호나*, 1985년 1월호, 6쪽 참조.
3. 교리와 성약 33:11~12; 39:6; 76:40~42; 제3나파이 27:13~22 참조.
4. “신권 정원회”,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43~44쪽.
5.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1954~1956년, 총 3권 중 제1권, 47~48쪽.
6.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년, 619~620쪽.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은 ... 모든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감사드리는 것 중 하나는 멕시코시티 성전에서 15년간 성전 사무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회입니다. 다른 모든 성전에서처럼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는 신권의 권능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수행됩니다. 1832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권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

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교리와 성약 84:19~20)

저는 성전 내에서 이 말씀을 입증해 주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1993년, 저는 멕시코 투스틀라 구체어레 이스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한 후 가족과 함께 멕시코 북부에 사셨던 부모님을 뵙기 위해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주님을 섬기며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3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를 보며 느낀 기쁨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받고 신권을 받은 사람들과 성전에 들어가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 받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막내 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봉되어 있어요?” 저는 제 부친이 오랫동안 저를 돌보아주셨던 때부터 그분들이 성전에서 인봉 받지 않으셨다고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부친이 활동적이 되도록 돕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 계획에는 제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제 누나를 교회에 데려다 주기 위해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데려다 주신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모임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다시 그들을 데리러 가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부탁 하나만 들어 주실래요?”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친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들어 주마”라고 대답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할아버지께 함께 교회에 가서 자신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그 달 첫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부친께서 온갖 핑계를 대실 것이라 예상했던 저는 아이들이 설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방에 들어가 있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곧 다가왔습니다. 제 딸 수제너가 할아버지께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부친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가자는 부탁이 나왔고,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그분은 이런 핑계를 대셨습니다. “샤워를 안 해서 갈 수가 없구나.” 바로 그때, 문 뒤에 숨어 있던 아내와 저는 “기다릴게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부친께서 결정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 아내와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하세요! 샤워하세요!” 그런 후 우리가 바랐던 일이 일어났습

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모임에 참석해서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셨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일요일 이후 단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78세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성전에서 인봉을 받으셨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분들에게 인봉되었습니다.

저는 성전 의식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 덕분에 제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부모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음을 압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난을 겪거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극도로 슬퍼했을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전 의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결혼한 지 일 년 반 정도 되었을 때 내내는 우리의 첫 아이 출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태어난 치와와 콜러니스에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멕시코시티에서 일하고 있었고, 내내는 분만 예정일 한 달 전에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분만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에 있던 제게 장인 어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옥타비아노, 자네 아내가 예쁜 딸을 낳았어.”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회사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우리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초콜릿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4층인 회사 건물 전체에 초콜릿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층까지 갔을 때 장인 어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옥타비아노, 자네 내내는 괜찮지만 자네 딸은 세상을 떠났네. 장례식은 오늘이야. 자네는 오기 힘들테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는 제 아내 로사를 바꿔 달라고 했고, 로사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로사는 제가 괜찮다면 그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다음 구절을 떠올리며 구원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아이가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음을 보았느니라.”(교리와 성약 137:10)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소?” 아내는 “네, 믿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해야 하오. 당신을 사랑해요. 괜찮다면 2주 뒤에 휴가를 내서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 멕시코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우리는 성전에서 신권의 권능으로 인봉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딸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계속해서 초콜릿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한 동료는 놀라면서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어떻게 것처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세 시간 정도 시간이 괜찮다면, 자네에게 왜 내가 그리 슬퍼하지 않는지, 그리고 사망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대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 세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이후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는 네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토론 이후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성전 의식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 덕분에 제가 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 아이를 감싸 안을 것이고, 현재 살아 있는 세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저는 영원히 그 아이와도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말라기의 다음 말씀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5~6)

영원한 가족은 신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권은 아들인 제 마음을, 작년에 돌아가신 제 부친에게 돌이키게 해 주며 구주를 통해



그분을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으로 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신권은 아버지인 제 마음을 갖 난이기였을 때 죽은 우리의 두 자녀들에게 돌이킵니다. 그리고 구주를 통해 제가 그들을 만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제 자녀들이 제가 지상에서 그들의 아버지였음을 알게 되리라는 희망이 제 마음에 평화를 갖들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행복을 구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고 하늘에서 매이는 것과 같

이 땅에서도 매이는 그분의 성스러운 의식을 받으러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의 거룩함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에게 볼 수 있게 해 준 것은 바로 이 신권입니다.

저는 성전 사업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구주이시며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참된 선지자이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평범한 남자와 여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아 직까지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결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때 저자가 생각나지 않는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되지 않겠어. 할 수만 있다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권리야.”

비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공적이고 독보적이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구는 제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가 평범한 남자와 여자가 되지 않

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장의 “할 수만 있다면”이란 말은 제가 단순히 침례 받고 확인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중요한 날에 주님과 맺은 약속을 충실히 수행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리하이는 아들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니파이후서 2:27)

분명히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와 영생입니다. 죽음과 악마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니파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라.”(니파이후서 25:23)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일에서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덟 살에 침례받았는데 그 때를 떠올

리면 좋은 기억이 납니다. 침례식은 남미에 세워진 최초의 예배당인 리니어스 지부에서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큰 형은 종종 그랬던 것처럼 저와 씨름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만지지 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말아야!”라고 외쳤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결점과 죄의 결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고통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느끼고, 자신을 낮추며,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보인다면 그분은 놀라운 속죄의 희생을 통해 그 죄들을 지워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시인 호세 헤르난데스는 그의 유명한 책 *Martin Fierro*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때로는 그것들을 다시 찾기도 하지, 그러나 이것을 네게 알려주는 것은 나의 의무이니,
그대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수치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La Vuelta de Martin Fierro*, *Martin Fierro* [1879년] 제2부, canto 32; 2개 국어판, C. E. Ward [1967년] 번역, 493쪽)

죄를 짓거나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뛰어난 사람이 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복음 생활을 하면서 얻는 기회들을 찾고 활용하며, 우리가 가



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것은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책임져야 하는 또 다른 것은 행복의 복음을 모든 인류와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스페인 갈리시아의 라파엘 페레즈 시스네로스 형제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개종 이야기가 담긴 그 편지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이나 가족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선교사들을 제 집에 들여오게 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할 메시지를 나누시죠. 그러나 경고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의 종교를 바꾸게 하지는 못할 거요.’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제 아내와 아이들은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저는 곧바로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젊은이들이 당신의 제자들이고 우리를 도우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꿰뚫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침례 받았고, 저희는 스위스 성전에서 인봉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행복의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얻는 기쁨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충실하게 봉사하시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과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처럼 살아 있는 모범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을

때 저는 제가 만난 회원들과 선교사들의 자질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의 충실한 교회 회원들처럼 위대한 능력과 사랑으로 이 사업을 전진시켰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제가 얼마나 그분들을 존경하고 감탄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그들의 상은 클 것이요, 그들의 영광은 영원하리도다.”(교리와 성약 76:5~6)

니파이의 다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항상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이여! 더 이상 죄 중에 처지지 말지어다. …”

“내 영혼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반석이신 주 안에서 기뻐하리이다”(니파이후서 4:28, 30)

주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이 “평범하지 않은”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길 겸손히 간구하며,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참된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장로
칠십인 정원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신앙과 간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북돋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누구나 그것을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오래 전에 중범죄로 고소당한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사는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세 명의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피고측은 그의 범죄 행위를 목격하지 않은 세 명의 다른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단순한 배심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증인의 숫자로만 본다면 배심원들에게 그 증거는 옳거나 그를 확률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범죄를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나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한 명의 증인만 필요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계획은 궁극적으로 단 한 명의 증인을 요구하지만 그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

신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신앙과 간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북돋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누구나 그것을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빌려 온 불빛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820년, 한 소년이 성스러운 숲에서 걸어 나왔을 때보다 오늘날의 회복된 복음이 더 참된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에 좌우된 적이 없습니다. 조셉이 신성한 숲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 진리를 찾아야 하며, 불타는 간증을 다음 세상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스물세 살의 히버 제이 그랜트는 투윌라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이 참됨을 믿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히버 형제님, 형제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복음이 참됨을 안다는 간증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참됨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히버 형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교회 회장이었던 존 테일러 회장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오늘 아침에 했던 일을 취소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완전하고 변치 않는 간증이 없는 사람

에게 스테이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일러 회장은 “조셉, 조셉, 조셉, 히버 형제도 형제님처럼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 간증은 실현되었습니다. 젊은 히버 제이 그랜트는 완전하고 변치 않으며 절대적인 간증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¹

자신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님을 아는 것, 즉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몇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다른 교회의 존경 받는 지도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신사는 자신의 종교의 역사와 교리를 말하면서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행사해야만 합니다.”라는 익숙한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중에는 신임 선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선생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행사할 만찬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은 어린 아기들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박학다식했던 분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쳐다보더니 “예외가 있어야겠지요. 예외가, 다른 길이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런 길은 없는 것 같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저를 쳐다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회장님,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복음이 있군요, 그렇지요?”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즉 자신이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달콤하고 숭고합니다. 그 간증을 계속 키워갈 때 그것은 튼튼한 외투처럼 힘이 되고 방패가 될 것입니다. 빛을 볼 때 우리는 그 빛에 둘러싸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이해의 빛이 켜지게 됩니다.

언젠가 저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일 년

이상 대부분의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한 훌륭한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 교회가 참된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처럼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실제로 안다’고 일어나 간증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문경을 읽어 보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문경에 대하여 기도해 보았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해 여쭙어 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무심코 읽고 기도한다면 영원히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금식하고 간구한다면 진리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아내에게 금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에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자신만이 치를 수 있습니다. 의식은 대리로 행할 수 있지만 간증을 얻는 것은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엘마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구절로 자신의 개종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그러한 것이 참된 줄을 스스로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 그것들을 내게 나타내주셨음이니”(엘마서 5:46)

분명한 간증이 생기면 그 간증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하는 강한 소망이 생깁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침례를 받은 후에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였고, 내가 이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내 뼈가 내 안에서 소진해 버릴 것만 같았다. ... 내가 처음 전한 설교는 한 시간 이상 걸렸다. 내가 입을 열면 주님께서 채워 주셨다.”²라고 했습니다. 불꽃이 튀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듯이 간증도 표현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후에 브리검 영 회장은 올슨 프랫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올슨 형제가 여러 조각으로 분리된다면 매 조각마다 ‘물문 교회는 참되다’라고 외칠 것입니다.”³ 리하이이는 그의 훌륭한 아들 니파이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그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한 것이 그가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주의 영이었으므로, 그가 입을 다물 수 없었느니라.”(니파이후서 1:27)

간증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와 책임은 가정에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청증인 자녀들에게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조셉이 그의 선지자였음을 간증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귀에 울리는 목소리를, 마음에 전해지는 느낌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자주 이야기해줌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들도 알게 해야 합니다.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경륜의 시대를 확립하기 위해 큰 댓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그들을 만나 그들의 간증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간증을 하라는 지명을 받으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세상에라도 간증이 미약한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영원은 빛 없이 살기

에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등잔에 빛을 밝히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들과 자손들도 어둠 속에서 살게 된다면, 암흑 속에서 사는 그 시간은 더욱 긴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간증, 그리고 덕을 잃지 않도록 기도로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증인은 한 명만 필요하며 그 사람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간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교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히버 제이 그랜트, *Gospel Standards*, G. Homer Durham 편, 1941년, 191~193쪽 참조.
2. *Deseret News*, 1870년 8월 3일, 306쪽에서.
3. *President Brigham Young's Office Journal*, 1860년 10월 1일, 브리검 영 집무실 파일,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현대화된 구두법과 대문자 표기법.

봉사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칠십인 회장단

간단해 보이는 봉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한 번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이 “현재의 나, 또는 앞으로 되고자 하는 나는 모두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입니다.”¹라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에 대한 저의 느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주위 사람들이 지나라고 불렀던 제 어머니 비올라 진 고우츠 스노우는 1929년에 태어나서서 1989년, 예순 번째 생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르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를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셨고 혼계도 하셨습니다. 제 아들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데 고수예요.”라고 말하듯 저의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훌륭한 저의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위대한 본보기이셨으며 저는 거의 매일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워합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매우 용기 있게 투병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저희 가족은 암이 사랑의 병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은 저희들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표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저희는 어린 시절에 살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섬세한 취향의 어머니는 멋진 것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여행을 무척 하고 싶어 하셨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저는 어머니께 후회되는 것이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분명히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이나 한번도 여행을 해 보지 못한 것에 실망과 아쉬움을 토로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더 많이 봉사하고 싶었는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대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이셨고, 주일학교 교사, 방문 교사이셨으며 초등학교에서도 봉사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항상 캐서롤과, 잼, 과일 통조림 병들을 이웃과 교회 회원들에게 전해 주러 다녔습니다. 제가 이런 모든 일들을 상기시켜 드렸을 때도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었는데.”라고만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모범적이고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셨으며, 종종 힘들고 병으로 단축된 삶을 살면서도 많은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충분히 봉사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가장 후회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어머니가 이 지상에서 했던 희생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영접하셨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왜 그것이 맨 먼저 어머니의 마음에 떠올랐을까요? 봉사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우리는 서로 봉사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²

우리는 서로 돕고 봉사할 때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친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돕지 않는 사람은 참된 후기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친절은 복음의 특성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끼리만 살 수는 없습니다.”³

마태복음에는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주께]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를]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⁴

이러한 봉사는 개인의 이득이나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편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봉사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경우와 상관 없이 봉사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병든 사람



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 그 밖의 비탄에 잠긴 사람을 방문하여 단순히 “어떤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화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간단해 보이는 봉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둘째, 교회 회원인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아들이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름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에서 성스러운 사업을 도울 때 우리는 먼저 자신 분들의 삶을 축복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봉사를 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강화하며,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단순한 진리들을 배우게 하며 그들의 삶을 축복할 특권을 갖게 됩니다. 교회 봉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웁니다. 봉사의 위대한 모범이셨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시며 우리들을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왕국에서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⁵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할 책임이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봉사할 책임을 벗어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볼 회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교회의 공식적인 일 때문에 바쁜 나머지 이웃에게 조용히 행하는 기독교인다운 봉사를 할 여유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⁶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역 사회에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학교, 지역 사회와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저

는 우리 가운데서 정당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과 주, 국가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지역 사회와 자신 활동의 대의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바치는 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제 조부님은 일찍이 제게 “우리가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지상의 장소를 위해 해야 할 임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봉사는 이타심, 나눔, 그리고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저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동안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간다의 진자에서 지방부 대회에 참석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았습니. 이른 토요일 아침, 모임 시작 전에 우리는 그 지역의 새 예배당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 건물에 도착하자 서너 살 정도의 어린 남자 아이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그 아이는 무슨 일이 있는지 보기 위해 교회 마당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활짝 웃는 모습에 감동

한 스노우 자매는 지갑 속에서 딱딱한 버터스카치 사탕 한 개를 꺼내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예배당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우리는 열두 명도 넘는 어린 아이들이 미소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이웃인 사탕 아줌마를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사탕을 그 아이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내는 사랑이 더 이상 없어 실망스럽다는 몸짓을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인사했던 그 꼬마 아이는 사탕을 스노우 자매에게 도로 돌려 주면서 사탕 껍질을 까달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시선 앞에서 그 아이가 버터스카치 사탕을 깨무는 소리를 상상하고 있던 아내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사탕 껍질을 벗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아이는 혀를 내밀고 있는 친구들에게 각각 버터스카치 사탕을 한 번 씹 맛있게 훑아 보게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가끔씩 자신도 훑으면서 사탕이 다 녹을 때까지 아이들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 나눔의 행위가 조금은 비위생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도 이 어린 아이가 보인 모범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타심, 나눔, 주는 것이 봉사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아이는 그 교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봉사를 더 많이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된 복음의 충만한 축복과 특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Pathways to Happiness*, Llewelyn R. McKay 편, 1957년, 183쪽.
2. 마태복음 22:39.
3. “후기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심: 봉사”, *Ensign*, 2007년 9월, 49쪽.
4. 마태복음 25:37~40.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킴볼 (2006년), 82쪽.
6.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킴볼*, 82쪽.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더 좋은 것 내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우리 가족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 리 대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생활비를 버는 사람으로, 부모로, 교회 봉사자 내지 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다른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I.

우리는 그저 어떤 것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일들을 다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원리를 마르다의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녀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으나(누가복음 10:40) 동생인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39절) 동생이 준비하는 일을 자기에게만 맡겨두었다며 마르다가 불평하자,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셨으나(41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42절)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 것은 칭찬 받을 일이지만(41절) 위대한 스승에게서 복음을 배우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복되다는 가르침이 경전의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사도행전 20:35; 엘마서 32:14~15 참조)

어린 시절에 했던 한 가지 경험은 저에게 좋은 선택들이 있지만 더 좋은 선택들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2년 동안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읍내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탄절에는 시어스라는 쇼핑몰의 카탈로그를 보고 우편 주문을 하여 쇼핑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이나 카탈로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 농촌 가정에서는 카탈로그 책자가 우리 시대의 쇼핑



물이나 인터넷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책자에 나온 상품에 대한 한 광고 내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제품에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이라는 세 등급의 품질이 있었습니다. 남성용 신발을 예로 들자면, 좋은 것(1.84 달러), 더 좋은 것(2.98 달러), 가장 좋은 것(3.45 달러)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¹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그에 관한 다양한 선택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그저 좋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도 있고, 가장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선택을 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선택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책 또는 잡지 읽기를 선택하는 동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전한 오락물을 시청하거나 흥미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거나 가

장 좋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배움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고리와 성약 88:118)

II.

가장 중요한 선택에는 가족 활동이 포함됩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많은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쉬운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던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직장 일에 더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데 가용 시간을 다 써 버려서, 더 좋거나 가장 좋은 일에 쓸 시간이 부족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기억에 남을 만한 사적 방문 등 여러 차례 여름 휴가 여행에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그는 십대 아들에게 여러 가지 여름 활동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즐거웠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번 여름에 제게 가

장 좋았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잔디에 누워서 별을 보며 이야기했던 밤이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멋진 가족 활동이 자녀들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부모와 일대일로 갖는 시간이 그보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개인 교습, 단체 운동, 학교 및 클럽 활동과 같은 좋은 활동들에 자녀와 부모가 사용하는 시간의 양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뻣뻣한 일정에 쫓기게 될 것이고, 부모는 기진맥진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부모는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소중한 단합의 기회, 가족을 하나로 묶어 주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에 자녀들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개별적인 일대일 시간을 갖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일을 통해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 전문가들은 그들이 “자녀들의 과도한 스케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현 세대의 아이들은 너무나 바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훨씬 적습니다. 우려할 만한 이런 많은 경향들 중의 하나는 조직적



인 단체 운동 시간이 두 배로 늘었지만, 자녀들의 자유 시간은 주당 12시간 감소하고 또 자유로운 야외 활동이 50%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²

“대체로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수가 33% 감소했습니다. 가족이 집에서 식사를 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녀들의 학업 성취와 심리적인 적응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들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³ 가족 식사 시간은 또한 자녀들의 흡연, 음주, 또는 마약 사용을 막는 강력한 보루이기도 합니다.⁴ 부모들에게 주는 다음 조언에는 영감 어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자녀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책임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생의 모든 것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책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호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인 형제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 드립니다. 잠시 멈추어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도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많은 책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영의 속삭임에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지도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⁵

제일회장단은 부모들에게 “복음 원리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가족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이고 다른 어떤 조직도 …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책임 … 에서 가정을 대신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제일회장단은 “다른 요구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더라도, 그것들이 오직 부모와 가족만이 함께 수행하도록 신성하게 지명된 의무들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⁶

III.

만일 와드나 스테이크가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 중에서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모두 행하려고 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모임이나 활동들이 회원들에게 너무 복잡하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도 또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십이사

도 정원회는 교회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영감에 따른 판단을 행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03년 제1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엘 톰 페리 장로님께서는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2004년에 같은 지도자들에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역 상황과 자원에 맞도록 활동을 조정[하십시오]. … 꼭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게 하되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계획하다가 정작 필요한 것이 성취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 해야 할 일들을 너무 크게 벌이지 말고 단순화하십시오.”⁷

지난 해 연차 대회에서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영적인 영양분이 거의 없는 비효율적인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쓸 때 초래하는 가족 관계의 악화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며, 힘을 너무 많이 소진시키는 불필요한 허례허식으로” 교회 봉사를 복잡하게 하는 것에 대해 권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지시는 그것을 미화하고 복잡하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혁신이 반드시 확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단순화를 의미합니다.

... 교회의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되는 통계 수치나 개최하는 모임 자체가 아니라 구주께서 행하신 대로 한번에 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 봉사의 혜택을 받은 개인들이 향상되고 격려되어 궁극적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⁸

스테이크 회장단과 감독단은 때때로 스테이크 및 와드 회원들에게 요구되는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분주함을 없애기 위해 그들의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신성하게 지명된 [가족의] 의무들”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프로그램의 취지를 성취하는 데 가장 좋은(가장 효과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모임과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 특히 부모가 가족이 함께 하는 기회와 일대일 시간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그 의도된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단체 운동, 비디오 게임, 인터넷과 같이 하찮은 오락거리들이 이미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나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 일부 청남 청년들은 축구 리그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오락을 즐기기 위해 교회 청소년 활동에 빠지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가족 시간을 사용하는 데는 더 좋은 것이 있고 또 가장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내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우리 가족을 강화시키기 때 문입니다.

IV.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교회에 속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의무를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려면 거만하지 않게 사랑을 지니고 해야 합니다. 훌륭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형제애를 갖고 [우리의] 선행을 베풀며”⁹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수많은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에게 말씀드리건대, 지명 받은 가족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짧게 방문하여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많은 모임에도 똑같은 과제가 적용됩니다. 즉 모임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고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더 좋은 것이지만, 모임의 결실로서 실제로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2008년이 다가오고 벨기세텍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에서 새로운 학습 과정을 사용할 때가 와서 저는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우리의 조언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영감어린 작업 끝에 이 경륜의 시대를 연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008년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는 이 훌륭한 복음에 대해 더 큰 감사를 느끼도록 영감을 받았으며
고양되었습니다.

것은 교회 도서들 중에서도 특히 획기적인 것
입니다. 과거에는 교재에서 한 장의 내용을 단
지 간략하게 언급하고는 자신이 선택한 공과로
대체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공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일 만한 관행은 아닙
니다. 복음 교사는 영감에 따라 제공된 교재에
서 규정된 주제를 가르치도록 부름 받은 것입
니다. 교사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
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반원들
의 특정한 필요 사항에 잘 맞는 원리에 관한 선
지자의 말씀을 선택하여 인용하고, 그런 다음
그런 원리들을 반원들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토론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간증하고 싶습
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계획은
“영생 ...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에 대해 우리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4:7; 또한 교
리와 성약 76:51~59 참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속죄로 영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지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을 통해 인
도 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
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시어스르빅, 1944~1945년 가을 및 겨울
카탈로그, 316E.
2. Jared R. Anderson and William J. Doherty,
“Democratic Community Initiatives: The Case
of Overscheduled Children”, *Family Relations*,
vol. 54 (2005년 12월), 655쪽.
3. Anderson and Doherty, *Family Relations*,
54:655.
4. Nancy Gibbs, “The Magic of the Family
Meal”, *Time*, 2006년 6월 12일, 51~52쪽
참조; 또한 Sarah Jane Weaver, “Family
Dinner”, *Church News*, 2007년 9월 8일, 5쪽
참조.
5. “각자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00쪽.
6. 제일회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 *Church
News*, 1999년 2월 27일, 3쪽에 인쇄됨.
7. “보조 조직의 교리상의 기초”,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5, 7~8쪽; 또한
Ensign, 2005년 8월, 62, 67쪽 참조.
8. “오 지혜로우라”, *리아호나* 및 *Ensign*, 2006년
11월호, 18~20쪽.
9. “America the Beautiful”, 영문 찬송가, 338쪽.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이
훌륭한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대
회를 치르면서 우리는 교화되고
고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복음에 대
해 더 큰 감사를 느끼도록 영감을 받았으며 고

양되었습니다. 음악, 말씀, 그리고 기도 모두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주의해서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린 경험을
혜손시킬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합시다.

이 대회의 모든 순서는 *엔사인*과 *리아호나*
의 다음 호에 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의 밤에서 그 말씀들을 다시 읽고 가족과 함
계 토론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 말씀들
은 많은 기도와 명상을 통해 준비되었으며 주
의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
니다.

이제 이 대회는 6개월 동안 휴회하겠습니
다. 내년 4월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
합니다. 저는 97세이지만 그때 다시 뵈 수 있
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늘의 축복이 여러
분과 함께하기를 겸손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며,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줄리 비 벅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리고 서로 돕는 일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놀라운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구주는 우리의 지도자요, 모범이며, 반석이고, 힘이며, 중재자이십니다. 주님과 그분이 성임하신 선지자를 돕는 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축복이 됩니다. 저는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에 대해 항상 큰 사랑과 존경을 가져왔으며, 이 교회의 여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여성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훌륭한 여성들인 바로 여러분께 제 사랑을 전합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도 이 교회의 상호부조회에 필적할 만한 조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상호부조회에는 전 세계적으로 오백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 힘이 엄청날 것입니다. ... 교회의 여성들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는 올바르게 합당한 것을 위해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¹

저는 영감에 찬 이 권고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으며, 교회의 여성들이 어떻게 힝클리 회장님의 권고와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 목소리로 말하고 올바르게 합당한 것들을 위해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계획 안에서 후기 성도 여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며 “인류 역사상 매우 어려운 시기”²에 이 지상에 오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획에서 여성으로서 역할을 다하

기 위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리고 서로 돕는 일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성별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뛰어나야 합니다. 상호부조회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행하며,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이 18세이거나 88세이거나, 독신이거나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유타주 바운티플에 살거나 인도 방갈로르에 살거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상호부조회의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첫째, 후기 성도 여성들은 그들의 신앙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실천하고 나누는 일에서 뛰어나야 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킵니다.
2. 주님의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며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3. 경전에 나온 주님의 교리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4. 성신을 느끼기에 합당해지고 성신을 인식하며 따릅니다.
5.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옹호합니다.
6. 진지한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드립니다.
7. 가정의 밤을 합니다.
8. 자립과 검약하는 생활의 원리를 실천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다른 사소한 것들보다 먼저 행해야 합니다. 이 일들은 단순하고 필수 불가결한 것들로서 우리가 말할 때는 그저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언제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표시였습니다. 이 일들은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개인적인** 실천 사항이요 습관이며, 옳은 것에 대해 강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남과 구별 지어 줍니다.

만약 모든 후기 성도 자매들이 성약을 맺고, 새롭게 하며, 충실하게 지킨다면, 만약 모든 자매들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고 성전의 식에 더 자주 참여한다면, 만약 모든 자매들이 경전과 그리스도의 교리를 연구하고 그 내용을 잘 알아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 교리를 가르치고 옹호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모든 자매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진지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이 모두를 합친 우리의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 모든 가족이 매일 가족기도를 하고 매주 가정의 밤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만약 모든 자매들이 자신의 지식과 재능과 자원을 기꺼이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만큼 자립한다면, 만약 모든 자매들의 언어와 복장이 그리스도의 제자답다면, 우리는 옳은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가족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둘째, 후기 성도 여성들은 가족 안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가족을 이루고 돌보는 일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가족을 지탱하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일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1. 여성의 신성한 역할을 이해하고 옹호합니다.
2. 신권의 축복을 향유합니다.
3. 영원한 가족을 이룹니다.
4. 결혼생활의 유대를 강하게 합니다.
5.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6.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7. 자라나는 세대를 의롭게 준비시키는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8. 가족에 대한 교리를 알고, 이를 생활에 실천하며, 옹호합니다.
9. 친지와 조상들을 찾아내어 성전의식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족을 지지하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은 이 교회의 모든 여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성들은 창세 이전부터 받은 고유한 책임이 있으며, 성약을 지키는 후기 성도 여성으로서 여러분은 가족³에 대한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족의 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성의 신성한 역할을 알고 옹호하는 것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헛된 메시지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유명인사들은 자신이 여성들에 대한 권위자이며 대변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그 메시지에는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개인적 성취와 자기 숭배라는 복음을 전파하며, 종종 여성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간과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가장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비참하고 외로움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후기 성도 여성들이 행복의 계획에서 그들

이 맡고 있는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 온전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 교회이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천국전쟁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될 잠재력을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딸임을 알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구원의 계획에서 자신들이 특별한 역할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기뻐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여성들이 가장 잘 해낼 수 있고 그래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저 없이 가르치고 옹호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갖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으로 자녀를 성공적으로 기르고 가르칠 수 있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책임이며, 여성들은 이러한 역할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일 때 행복해집니다! 가족에 대한 진리를 알고 옹호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자매들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가족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상호부조회가 행한 대부분의 훌륭한 사업은 후기 성도 여성들이 가족을 강화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양육하는 기술, 즉 가사기술, 부모로서의 역할, 결혼관계에 관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가족은 일을 수반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일이며 우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잘 하는 분야입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족을 잘 이루고 돌봅니다. 우리는 가족을 지탱하고 양육하며 보호합니다.

서로 돕는 일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셋째, 후기 성도 여성은 서로 돕는 일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



가족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회원들

그대로 상호부조회 즉 서로 돕는 조직이며, 세상 그 누구보다 도움을 잘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우리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Relief(상호부조의 영문 이름)라는 단어는 “들어[올리다], 가볍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다 또는 곤경에서 구하다”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봉사 와 도움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그분의 참되며 회복된 교회의 회원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목적, 즉 상호부조를 뜻하는 이 세계적인 여성 조직에 속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1842년 조셉 스미스는 이 교회의 여성들이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고 모든 박애주의적 목적을 다하기 위해”⁵ 조직되었으며, “단지 빈곤한 자를 돕는 것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⁶ 조직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님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구제 노력에는 “가난의 구제, 질병의 구제, 의심의 구제, 무지의 구제, 여성의 기쁨과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의 구제”⁷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중요한 여러 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업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며, 우리는 전쟁과 소요와 자연재해, 그리고 커져 가는 악의 영향력 속에서 그 준비를 도와야 합니다. 세계를 통틀어 그 어느 시기도 지금처럼 총체적인 구제 노력이 필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분과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구제의 노력에 참여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독특하며 귀중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자신의 짐과 역경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도울 기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훌륭하고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성인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오직 무릎을 꿇고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할까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기혼 자매든 미혼 자매든, 젊은 자매든 나이 든 자매든 누구든지 이 구제

노력에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는 이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해야 합니다.

강하고 흔들림 없는 지도자들

이제 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상호부조회 회장단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상호부조회의 일을 수행하는 즐거운 책임과 성스러운 신뢰를 부여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후기 성도 여성들이 신앙, 가족, 그리고 돕는 분야에서 탁월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성들이 이 복음에 크나큰 관심을 쏟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가사와 부모 역할과 결혼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온전히 발전시켜 각 가정에서 복음대로 충만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름과 안수를 받은 모든 상호부조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봉사하는 자매들의 필요사항을 가장 훌륭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영감을 받은 임무를 수행할 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있습니다.⁸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둘 때 성령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사소한 일들은 내버려 둘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가족들이 이 세상의 폭풍, 즉 중독, 채무, 불륜, 불순종과 같은 폭풍에 시달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시대를 많은 이들이 속임을 당하는 “재난의 시작”⁹이라고 보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전쟁,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묘사하며, 교회의 여성들이 이 모든 일을 준비할 책임을 지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상호부조회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각 와드와 지부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자매님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시기에 자신과 가족들을 지탱해 줄 돈과 식량을 비축하고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립 팸플릿 등을 제공하는 등 큰 도움을 여러분에게 주어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특권은 바로 신권 지도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 의논하며 그러한 폭풍에 대항해 방어진과 피난처를 구축하며, 여러분 지역의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 노력을 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정이 싹트고, 서로간의 교제가 증대될 것이며 그것은 인생을 훨씬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상호부조에 집중하면 언제나 사람들을 사귄 수 있지만, 서로 사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에 집중한다고 해서 언제나 상호부조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호부조회 회원으로서 어떠한 목적으로 모이건, 소중한 시간과 헌납된 기금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자매들을 도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갖는 상호부조회 시간의 개최 순서는 간단하고 영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복음을 공부하는 데 할애함으로써 우리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상호부조회 대회, 활동, 모임 등은 자매들이 그들이 해

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핑클리 회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참된 최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

“...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도움과 힘과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일어서서 나아가야 합니다.”¹⁰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제가 마음을 다해 지지하는 선지자께서는 세상의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여성들에게 의를 위해 함께 일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 힘은 측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지자께서 교회의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을 믿는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정을 지탱하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데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도움의 손길을 뻗는 데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 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의 가장 필수적인 사업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전세계 지도자 훈련모임, 2004년 1월 10일, 20쪽.
2. 전세계 지도자 훈련모임, 2004년 1월 10일, 20쪽.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참조.
4. Online Etymology Dictionary, “relief”, “relieve”, www.etymonline.com 참조.
5. *History of the Church*, 4권, 567쪽 참조.
6. *History of the Church*, 5권, 25쪽 참조.
7. *Evidences and Reconciliations*, Durham, 3 vols. in 1 (1960), 308쪽.
8. 리차드 지 스코트, “보조 조직의 교리상의 기초”, 전세계 지도자 훈련모임, 2004년 1월 10일, 8쪽 참조.
9. 마태복음 24:8, 또한 3~7절 참조; 디모데전서 4:1~2; 디모데후서 3:1~5.
10.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0쪽.

내 양을 먹이라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매달 담당하는 자매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우리는 사랑과
우정과 신뢰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제 마음속의 느낌들을 전하게 된 이 기회를 생각하면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저는 매우 평범한 여성이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특별한 기회와 매우 소중한 은사들로 항상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진실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하심 그리고 그분의 속죄 희생의 진실을 알게 되는 은사를 받았습니 다. 저는 겨우 열네 살의 나이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몰몬경을 읽은 이후로 성신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제 간증은 늘 제 마음에서 불타고 있으며 제 신앙은 확고합니다. 이 신앙과 간증의 은사는 제 삶을 크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귀한 여성들 앞에 서 있으며 아울러 이 순간 제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하도록 영감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상호부조의 역사와 목적에 대해 연구하고 상고해 왔습니다. 이 독특한 조직은 교회의 여성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 성스럽게 조직되었습니다. 이 영감에 찬 기원은 당시 여성들의 마음속에 담긴 부드러운 소망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두 가지 매우 분명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조직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¹

백 자매님은 이 교회의 여성들이 잘 할 수 있고 또 잘 해야 하는 한가지 일은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으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그분의 양을 먹일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방문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방문 교육의 목적은 각 자매끼리 보살피는 관계를 구축하고 지지와 위안과 우정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² 이러한 목적들을 완수하기 위해, 방문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1. “방문 대상 자매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가능하면 매달 그 자매의 집에서 한다.)
2. “그 자매와 가족의 영적 및 세상적인 필요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3. “적절한 도움을 준다.”
4. “일례 메시지로 영적인 가르침을 준다.”³

주님은 사랑, 동정심, 친절, 자애라는 신성한 성품으로 여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방문 교사로서 우리는 월례 방문을 통해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동정심과 자애라는 은사를 선물함으로써 각 자매들을 축복할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보살필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중남미의 여러 나라와 카리브 해, 그리고 스페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가깝거나 먼 거리를 도보로, 혹은 버스나 전철 또는 기차를 이용해 방문교육을 충실하게 행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제 친구 아나는 코스타리카에 사는 젊은 어머니였는데, 여러 차례 폭우 속을 걸으며 매달 방문 교육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삼십 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가 된 그녀는 계속 충실하게 방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의 삶을 축복해 왔습니다.

매달 담당하는 자매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우리는 사랑과 우정과 신뢰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



서로간의 친목 도모의 기회가 우정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을 배운 덴마크의 두 자매들

가 그와 같은 신성한 속삭임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시간을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잣대는 얼마만큼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베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방문 교육은 서로의 신체적, 영적, 정서적 필요사항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고 있을 때 저는 셋째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막 퇴원한 한 자매님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의 건강하고 침착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다른 두 아이들은 아직 매우 어렸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시작한 지 몇 분쯤 지났을 때, 그녀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며칠 동안 매일같이 그녀를 도우러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안심할 수 있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

는 사랑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방문 교사들은 항상, 제가 코스타리카 산 호세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집에 올 때마다 저를 방문하기 위해 찾아오고 식사를 가져다준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상호부조회에서 하는 봉사는 각 자매들을 영화롭고 성스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상호부조회 봉사는 다른 모든 사회 단체나 그와 비슷한 조직의 일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⁴

방문 교육은 지속적인 활동과 재활동화 노력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한 독신 성인 자매가 다음과 같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리아호나에서 제일 회장단 메시지를 읽는 동안, 저의 방문 교육 임무가 떠올랐습니다. 제 동반자는 친한 친구였지만, 우리의 일정은 늘 서로 맞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무작정 제 담당 자매님께 전화를 걸

어 약속을 잡기로 결정하고, 그 약속 시간이 제 동반자의 일정과 맞기를 바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동반자는 시간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몇 명의 룸메이트들에게 함께 방문을 하자고 했지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방문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전화를 걸어 취소할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담당 자매님들을 방문하지 않고 또 한 달을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혼자서라도 방문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알레한드라 자매의 집에 도착해서 초조하게 문가로 다가가며 그 자매를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전화로는 매우 다정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본 적이 있는 자매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알레한드라 자매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 주며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알레한드라 자매는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자신의 소망에 대해 말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식이라도 방문이 있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방문 교사 방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복음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월례 방문 교육 메시지에 대한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주에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 친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알레한드라 자매와 저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방문 교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납니다. 알레한드라 자매는 교회와 가정의 밤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며 종교 교육원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문 교육에 대해 전보다 더 강한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성신의 인도하심과 알레한드라 자매와 같이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친구에게 인도해 준 그분의 미묘한 속삭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서로 강화되었으며 우리 둘 다 영적 발전을 위해 이러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⁵

목자가 돌볼 때, 길을 헤매고 있는 많은 이들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으

로 돌아오라는 권고에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모로나이서 6장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침례 받은 이들을 기억하고 양육 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방문할 때 우리가 나누는 월례 복음 메시지는 신앙과 간증을 키워 줍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복음 원리와 경전,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개인적인 통찰력과 경험들을 나누면서 서로 고양됩니다.

부가적으로 오는 또 하나의 축복은 이러한 심부름을 하는 동반자인 두 자매 사이에 생기는 친밀한 우정과 교화력입니다. 우리는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서로에게서 배우며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선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신성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문교육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 영양과 영적인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을 경감시키고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신회원과 저활동 회원, 심지어는 온전히 활동적인 회원들을 강화시키고 양육시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타적이며, 조용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양떼를 보살피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고하는 따뜻한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방문 교육을 할 때, 서로를 축복하고 돕고 강화시키는 사랑과 동정을 베풀겠다는 더 큰 다짐을 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History of the Church*, 5권, 25쪽 참조.
2. *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1998년], 제3장, "상호부조회", 199쪽.
3. *교회 지침서 제2권*, 200쪽.
4. "한 무리가 된 자매들", *성도의 벗*, 1981년 4월호, 188쪽.
5. 개인 서한.

내가 너를 곧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가족을 강화하는 일에서 우리가 갖게 될 가장 큰 도움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백 자매님은 제게 저의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했던 경험에 대해 좀 이야기 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독신 여성으로 자녀가 없습니다. 백 자매님은 제가 자녀들에게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족에 관해 말씀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그 점에 대해 자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며 수년 동안 많은 가족들을 돌봐 왔는데, 그들 대부분 어려움과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신체

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은 몇몇 가슴 아픈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부모들의 물질 남용이나 중독으로 인해 아이들이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위탁 보호를 받아 오다가 지금은 자신들을 도와줄 따뜻한 가족의 지원이나 후원도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18세 청소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가족을 확대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은 질병과 사망, 불순종, 재정 문제 등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몇 가지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안정된 가족과 문제가 있는 가족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간단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누가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온 여러 사항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탄은 가족을 공격하기 위해 초과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결혼은 중요하지 않으며,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 없으며, 또 가족의 강한 유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도덕적 가치관은 낡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명성과 재물로 우리를 유혹하고 쉽게 사는 법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공격하고, 심지어 가장 유대가 강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가족도 낙담시키려 애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굴복할 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안정된 가족과 문제가 있는 가족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안정된 가족의 일원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 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족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며, 계획도 없고, 중심도 없으며, 방향 설정을 위한 핵심적 가치관이나 표준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족의 부모들 중 일부는 좋은 가치관을 배웠으나 술, 마약, 또는 중독 등 좋은 판단력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들로 인해 그릇된 길에 들어 섰 습니다. 안정된 가족 안에서는 사랑이 많은 부모들이 모범으로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

이들과 함께 행하며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간단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소중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이 힘든 역경을 헤쳐 나오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팔로 그들을 감싸주세요. 적절한 신체적 애정 표현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일하는 방법을 모범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가족을 결속시키는 경험이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나이 많은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¹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 주십시오. 경전을 읽어 주십시오. 경전이 온 생애 동안 그들을 이끌어 주리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가정의 밤을 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하십시오.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와 부모가 범하는 실수를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더 빨리 용서하고, 잊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 때 사과하십시오. 자녀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방식을 고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소중한, 화나게 하고, 실망시키고, 때로는 말썽까지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행동이나 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심과 자제심이 필요합니다. 때로 부모들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잠시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제심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방에서 나와 있는 것도 종종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있는 권고보다 더 훌륭한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² 그 선언문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가족의 표준으로 삼으십시오. 몇 차례에 걸쳐 가정의 밤 공과 주제로 삼아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영위되는지에 관해 온 가족이 이해하게 하십시오.

누가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자녀를 가르치고 가족을 강화하는 첫 번째 책임은 분명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1995년 9월에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가족에 관한 선언문을 처음으로 발표하셨을 때 태버내클 안에 있었습니다.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은 부모에게 훌륭한 지침이자 또한 큰 책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순간 저는, 제 자신이 미혼이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하지만 그건 내게도 관련이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 가족의 일원이야. 딸이고, 언니이고, 이모이고, 사촌이고, 조카딸이고, 손녀인걸. 나는 한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책임도 있고 축복도 받고 있어. 내가 만약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가족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고, 다른 가족을 강화하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강화하는 것은 부모, 자녀, 친인척, 지도자, 교사 또는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³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 가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직책에서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자매님들은 젊은 엄마와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조언과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청년 지도자 또는 초등학교 교사는 부모가 가르치려고 애쓰는 내용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것을 말해 주고 또 행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친구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특정한 부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강화하는 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고 따르며, 우리를 도와 주시도록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어린 소년과 소녀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 일해 오면서 이런 가족들이 구주에 관해 알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좋겠다는 소망을 자주 품었습니다.

“또 보라, 그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과 육신의 고통, 주림, 갈증과 피로를 겪으리니”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경전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에 관한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⁵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들림을 받을 것임이니라.”⁶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

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⁷

“네가 물을 때마다 너는 나의 영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⁸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에 충실하고 부지런하라. 그리하면 나는 나의 사랑의 팔로 너를 안아 주리라.”⁹

힝클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필수입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 이 생이 끝날 때,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가족 관계입니다.”¹⁰

우리 구주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그런 다음 13절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14절에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주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 차례 저를 도와주셨으며,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가족이 직면하는 도전”,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쪽.
2. 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참조.
3. “가족을 강화함: 우리의 거룩한 의무”, 리야호나, 1999년 7월호, 37쪽.
4. 모사이야서 3:7.
5. 마태복음 11:28~30.
6. 알마서 36:3.
7. 교리와 성약 112:10.
8. 교리와 성약 6:14.
9. 교리와 성약 6:20.
10.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6월 21일, 22쪽.
10.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기쁘게 여감”,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6월 21일, 22쪽.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의 영향력은 여러분과 자신의 가정을 넘어 지구촌 곳곳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닿은 듯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영감에 찬 메시지를 듣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있습니다.

줄리 벡 자매님, 실비아 얼리드 자매님, 바바라 톰슨 자매님, 자매님들의 존경하는 부모님과 교사, 청소년 지도자, 그리고 자매님들의 잠재력을 알아 볼 수 있었던 기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 소녀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결코 모르니,
그것을 보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네

하지만 고귀한 위치에 있는 여성도
한때는 한낱 소녀였지요.¹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제게 큰 특권입니다.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여러분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성 중계를 통해 이 대회를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니, 저는 이곳에 있는 소수의 남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남자가 서점에 들어가서 여자 점원에게 도움을 청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남자가 “남성, 여성의 주인이라는 책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점원은 그 남자를 뻔히 쳐다보더니 비꼬는 투로 “소설 코너에서나 한번 찾아보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여성들인 여러분을 제가 존중하고, 또한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지배하는 손이다”라는 윌리엄 알 윌레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을 오늘 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²

1901년에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과 미망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흠 없이 지켜 왔습니다. 저는 상호부조회의 대열 안에 있는 여성들보다도 세상에서 더 순수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³

스노우 회장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서도 방문을 가고 인사를 나누고 굶주린 영혼을 먹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고 제 마음이 겸허해졌습니다. 오늘날의 상호부조회에 대해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인도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1.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2.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3.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이 목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세상의 구주께서는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⁴ 또한 “너희가 [경전]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경전을] 연구하거나 이 [경전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이셨습니다.⁵

경전 공부는 우리와 우리 가족의 간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옳은 것을 버리고, 그 대신, 세상의 쾌락을 따르도록 촉구하는 음성에 둘러싸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굳은 기초와 진리에 대한 간증 그리고 의롭게 생활하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그러한 영향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들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은 인터넷을 포함하여 대중매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평균적으로 약 네 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프로그램이 폭력과 술, 마약 남용과 성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네 시간 외에 영화를 보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 데에도 시간을 사용합니다.⁶ 다른 선진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통계가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영화 그리고 다른 대중 매체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간직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



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교리를 지키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어떤 외부의 힘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곳곳에 난무하는 악에 맞설 수 있는 영적 및 도덕적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니파이후서 제9장에 언급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 사람들의 헛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이여! 그들이 학식을 얻으며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아는 듯 여겨 하나님의 권고를 옳으로 체쳐놓음이라. 그런즉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 그들이 멸망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으리라.”⁷

세상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표준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래 전에 제일회장단에 계셨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경우, 믿지 않는 동료들의 비웃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수정하거나, 틀리게 설명하거나, 부정적으로 희석하거나, 심지어 멀리 던져버리는 책해야 한다고 느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⁸

신약전서의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성구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 [을] ...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에 관해 공부하는 것 외에도, 세상의 학문 또한 필수적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언젠가 남편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을 경우 혹은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받고 있

지 않다면, 여건상 필요한 경우가 올 때, 재정적으로 부양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공부하고 배울 때 여러분의 재능은 커질 것입니다. 가족이 공부할 때 더 잘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며, 인생에서 여러분이 겪을지 모를 만일의 경우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면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영을 네게 부어 주리니, 네 복이 크리라”⁹

기도해야 하고 또 가족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요즘처럼 컸던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유혹을 막는 방어책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세상이라 부르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 여행에서, 우리의 길을 가는 데 필요한 축복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지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말과 모범 둘 다를 통해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 제게 보낸 한 어머니의 편지에서 볼 수 있는, 모범을 통해 가르치는 것에 관한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문슨 회장님, 저는 때로 제 자녀들의 생활에 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 두 직장에서 일하는 편모로서, 집에 오면 이따금 혼란에 휩싸이지만 결코 희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편지는 이어서 그녀와 자녀들이 연차 대화를 어떻게 시청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시청하던 그 대화에서 저는 기도에 관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이미 기도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녀가 “무슨 뜻이지?”하고 묻자, 아들은 “엄마가 이미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방법을 보여주셨다고요. 요전 날 밤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엄마 방으로 갔더니 엄마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엄마에게 중요한 분이려면, 제게도 중요한 분이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해 온 것을 우리 스스로 행할 때,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보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 소년단 연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솔트레이크를 막 떠나기 전, 저는 뉴이러를 충분히 가져가서 이 멋진 출판물을 소년단 관계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애틀랜타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잡지 꾸러미를 열었습니다. 제 비서가 별다른 이유 없이 성전 결혼을 특집으로 다룬 6월호를 여분으로 두 권 더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분의 두 부를 호텔 방에 놓아 두고 계획대로 나머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저는 예정된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호텔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섰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애틀랜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지역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한 뒤 열 살 된 그녀의 딸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고 그녀는 남편과 아들 딸을 데리고 곧 제 방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저는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의장의 박수 소리는 사라지고 그 대신 기도와 함께 찾아온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저는 훌륭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열 살 된 딸이 목발을 짚고 걸어왔습니다. 암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했지만, 얼굴은 빛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고, 아버지와 제가 귀여운 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제 손에 떨어진 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영원한 의식과 가족의 승영에 관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도록 권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축복을 끝낼 때, 저는 그러한 성전 방문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성전에 관해 질문을 받

았습니다. 제가 하늘의 음성을 듣거나, 시현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뉴이러를 참고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랍 쪽을 쳐다보았고, 거기에는 성전에 관해 다룬 여분의 뉴이러 두 권이 있었습니다. 딸과 그 부모에게 각각 한 부씩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족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으며,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당장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다시 한 번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에 적합한 일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에 대한 성과가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선을 위해 싸우는 강력한 군대, 즉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은 여러분과 자신의 가정을 넘어 지구촌 곳곳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길 건너, 도시와 나라와 대륙과 대양을 가로질러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상호부조회의 주제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위에는 봉사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소 압도된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봉사의 기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도 가끔은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본 모든 필요사항 중에서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고양시키고 축복하는 데에는 작은 봉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자주 있는데, 가족의 안부를 묻는 질문, 짧은 격려의 말, 진심 어린 칭찬, 간단한 감사의 글귀, 짧은 전화 통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인식한다면, 또한 우리에게 오는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면, 여러 좋은 일들을 성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어린 자녀들을 둔 한 어머니가 받게 된 친절한 봉사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밤 늦게까지 어린 자녀들의 필요사항을 자주 돌봐 주곤 했습니다. 종종 길 건너 사는 그녀의 친구가 다음 날이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는 네가 아이들과 함께 깨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내가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다가 몇 시간 동안 봐 줄 테니 낮잠 좀 자 뒤.” 그 말이 너무도 고마웠던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반가운 배려가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면 마찬가지로 그 친구도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깨어 있었던 것이며, 나처럼 낮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그 이후로는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처럼 저도 주위를 살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들이 제공한 봉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제 사촌의 손녀딸인 앤젤라를 도와준 두 교사에 관해 들었습니다. 앤젤라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었습니다. 앤젤라의 남편과 남편의 친구는 스노우모빌을 타러 갔다가 그만 눈사태로 사망했습니다. 두 남편에게는 각각 임신 중인 아내가 있었는데, 앤젤라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였고, 다른 집에는 이미 어린 자녀가 하나 있었으며,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앤젤라의 남편 장례식에서 감독은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앤젤라의 집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앤젤라의 두 방문 교사가 서 있었습니다. 감독은 두 사람이 진심으로 앤젤라에게 자신들의 사랑과 동정심을 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세 여성은 함께 울었으며, 이들 두 훌륭한 방문 교사가 앤젤라를 깊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여성만이 그렇게 할 수 있



으리라 보이는데, 교사들은 묻지도 않고 그들이 제공할 도움을 부드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앤젤라가 교사들을 필요로 하는 한 그들이 곁에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감독은 그들이 앞으로도 그녀에게 참된 위안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교회의 훌륭한 방문 교사가 베푸는 동정과 사랑의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항상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보살핌과 애정에 찬 관심을 지니고 굶주린 이를 먹이고, 벗은 이를 입히며, 집 없는 이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봉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양시키고자 하는 소망, 돕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 주고자 하는 관대함은 사랑으로 가득찬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도 여러분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강하고, 우아하고, 평화롭고, 선하고, 그리고 덕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어떤 신성한 것을 여성들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¹⁰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혼이거나 독신이지

나,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축복하시어, 여러분이 세상의 구주께서 주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¹¹라는 영화로운 인사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앞열에 함께 앉아 계신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의 사랑스러운 아내, 루스 자매님과 가족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Nobody Knows What a Boy Is Worth,” in *Best-Loved Poems of the LDS People*, ed. Jack M. Lyon and others (1996년), 19쪽.
2. “The Hand That Rocks the Cradle Is the Hand That Rules the World,” in *The World’s Best-Loved Poems*, comp. James Gilchrist Lawson (1955년), 242쪽.
3. *The Teachings of Lorenzo Snow*, ed. Clyde J. Williams (1984년), 143쪽.
4. 교리와 성약 88:118.
5. 요한복음 5:39.
6.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Television and the Family,” 1, www.aap.org/family/tv1.htm.
7. 니파이후서 9:28, 29.
8. The Charted Course of the Church in Education, 아스펜 그로브에서 열린 브리검 영 대학교 하계 학교 교사들에게 행한 말씀, 1938년 8월 8일, in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1975년), 6:52.
9. 교리와 성약 19:38.
10.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년), 387쪽.
11. 마태복음 25:21.

변화시키는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1920~2007년)

제일회장단 제2보좌

파우스트 회장은 2007년 8월 10일 별세하기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했다.

변화시키는 힘은 매우 실질적이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위대한 영적 은사입니다.



우 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별적인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부분에서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좀 더 친절해야 하며, 덜 이기적이고, 더욱 경청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사려 깊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즉 바뀌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변화하기 위해 큰 충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사울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의 제자 등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사도행전 9:1)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사도행전 9:4~5)

아마도 사울의 마음은 폭도들이 스테반을 동네에서 내쫓고 돌로 치며 그들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을 때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놀라 떨며 말하되, 주여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사도행전 9:6) 사울이 일어났을 때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으며, 다메섹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력을 회복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사도행전 9:20)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바울로 알려지게 된 사울은 총체적이고 절대적이며 완전한, 죽는 날까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개종을 통한 변화

여러분들은 분명 이와 같은 경험을 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겪는 개종은 덜 극적이지만 이러한 개종도 극적인 것 못지 않게 위대하고 의미심장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개종자들은 보

통, 자신의 침례식에서 영적인 느낌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저는 제 영혼에 머물렀던,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 그 느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¹

진정한 개종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 청년은 자신이 어린 소녀였을 때 그녀의 가정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주정뱅이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고통당할 때 내가 참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그녀가 열네 살 때, 누군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녀는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생이 되고,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딸이 되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목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18세가 되자, 그녀는 특별한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3주 후, 집에 다니러 왔을 때 일어났던 일을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나를 맞으셨다. 나는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공부하러 간 이후로 아버지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셨단다.’”

“... 어머니는 내가 떠난 날 밤에 어떤 물론 선교사들이 왔다고 말씀하셨다. ...”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되셨다. 나는 그분의 눈에서 회개와 겸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완전히 변한 것이다. 아버지는 한꺼번에 술, 담배를 끊고 선교사가 가르쳐 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다. 아버지는 나를 마치 여왕처럼 대하셨으며 어머니와 동생들을 왕족같이 대하셨다.

“... 우리 가족 모두가 침례를 받았다. ... 아버지는 40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셨다.”²

복음의 힘은 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들을 슬픔과 좌절로부터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변화

범법은 고통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쓰디쓴 담즙과 죄악의 결박”(모사이아서 27:29)으로부터 빠져 나올 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쁜 생각과 느낌들을 물리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깜깜한 암흑”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모사이아서 27:29)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지금은 총관리 역원에서 해임 되신 매리온 디 행스 장로님이 하룻밤 사이에 회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한 남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야구 토너먼트 경기에 참가하는 동안 그의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한 가정에 아들을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 집에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을 주저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이 사람들이 그간 자신의 아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문가로 다가가 노크하자, 그 아들은 잔뜩 긴장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안으로 들어가자, 집주인 가족은 아들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했으며 아들 역시 분명, 그들을 무척 따랐습니다.

“나중에 다시 아들을 데리고 오는 길에, 혼란에 빠진 아버지는 그가 보인 이상한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 아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깜박하고 그 집에서 욕을 하실까 봐 두려웠어요. 그 사람들은 집에서 욕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상냥한 말을 쓰고 많이 웃어요. 식사할 때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기도하고 제가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소년이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나쁘게 비춰지지 않기를 바랄 만큼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이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던 성실한 사람들을 부인해 왔지만, 어린 아들의 따스한 영에 의해 감화되었습니다.”³

변화시키는 힘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이 아버지는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크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중독을 극복함으로써 오는 변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종류의 변화는 우리를 옹아매는 습관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에는 알코올, 마약, 담배, 음식물 섭취, 도박, 합당치 못한 성행위, 외설물을 보는 것과 관련된 장애들이 포함됩니다. 저는 최근에 출판된,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중

독에 관한 책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약물 남용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예방 가능한 질병과 사망의 주원인이다. 약물 오용은 가정을 파괴하고, 생산성 저하로 막대한 비용 손실을 초래하며, 건강 관리체계를 손상시키고, 삶을 마감시킨다.”⁴ 그것은 사회악입니다.

중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심각한 중독에 빠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항 정신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중독에 관한 최근 신문 기사에는 “중독자의 경우 합리적 사고로써 충동적 행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저하되게 된다.”⁵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중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택의지를 앗아가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서운 도구 중 하나는 우리를 지배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완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영원에 관한 축복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영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제어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그것은 쓰라림과 고통의 끔찍한 대가를 가져올 것이며, 그것은 심지어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독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므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변화하겠다는 결심을 통해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 스스로 중독을 극복해 낸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교회에는 알코올 중독 방지회의 12단계 초안을 교회의 교리와 믿음에 맞게 적용시킨 중독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12가지 단계는 신권 지도자와 기타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A Guide to Addiction Recovery and Healing*[중독의 회복과 치유에 대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이러한 해로운 중독을 극복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중독적인 물질이나 행위든 그것에 가담하는 일을 완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만둘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약 상용 습관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인 수잔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 주말에만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자녀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약을 그만두라고 애원했습니다. 삼 년 후, 자녀들, 특히 일곱 살 난 아들의 특별한 도움과 지지 속에서, 그녀는 마약을 끊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해보며,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이끌어 주셨으며 복음을 들도록 준비시켜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제 마음과 외모와 태도와 감정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저는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저를 도와 주십니다. ... 이제 저는 걸을 때마다, 고개를 들고 걷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걸음 걸음마다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오, 이것은 새로운 날입니다. 저는 마약을 갈망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파트를 잃었고, 아들은 화재로 인해 거의 죽다시피 했으며, 결혼생활을 잃었습니다. 행복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시작할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새롭습니다. 내적으로도 그리고 외적으로도 저는 완전히 새롭습니다.”⁶

매일 시작되는 새로운 나날들은 변화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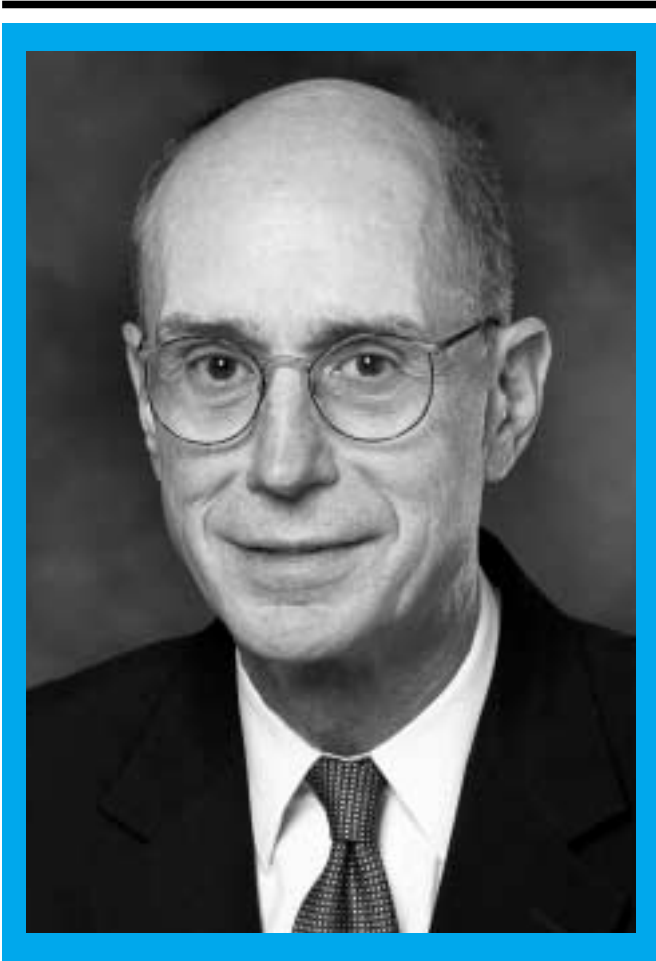
작할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낡은 습관들을 새로운 것으로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순수한 생각과 고귀한 행위를 통해 우리의 성품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자가 이렇게 표현했듯이 말입니다. “평화와 행복, 더 나은 삶의 방식에 대한 감추어진 약속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⁷

중독은 영을 거스릅니다. 어떤 중독들은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신권 축복과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도움을 등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디서 12:27) 변화시키는 힘은 매우 실질적이며, 하나님에게서 온 위대한 영적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회개와 그에 수반되는 의로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우리의 몸에 궁극적인 변화가 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몸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빌립보서 3:21)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주

1. Vivian Ford, “Ask and Ye Shall Receive”, *No More Strangers*, 4권, Hartman Rector Jr. and Connie Rector 판, 1971~1990년, 3:175.
2. Estilla Ayala, “The Change in My Father”, *Ensign*, 1975년 2월호, 42, 43쪽.
3. “Fitting into Your Family”, *New Era*, 1981년 6월호, 8쪽.
4. Lynn R. Webster and Beth Dove, *Avoiding Opioid Abuse While Managing Pain*, 2007년, 11쪽.
5. Michael D. Lemonick and Alice Park, “The Science of Addiction”, 2007년 7월 16일자 *Time*, 44쪽.
6. LaRene Gaunt, “Testimonies from the Inner City”, *Ensign*, 1992년 4월호, 40쪽.
7. Joseph Walker, “The Miracle of Change”, *Ensign*, 1992년 7월호, 12쪽.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헨리 베니엔 아이어링 회장은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예기치 않았던 인생 행로를 되돌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완전하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미소를 지었다.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되는, 그가 “중대한 책임”이라고 말한 이 부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아이어링 회장은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다. 아이어

링 회장은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2007년 8월 10일 별세함에 따라 생긴 빈 자리를 대신했다.

이 부름을 통해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그리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더 자주 접촉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그는 한편으로 파우스트 회장을 그리워했다.

“저는 파우스트 회장님을 대신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분은 제일회장단 제2보좌 직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셨고 그 직을

훌륭히 성취하셨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10월 6일 그의 부름이 발표되고 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이어링 회장은 1995년 4월 1일 그가 처음으로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고서 파우스트 회장의 집무실에 초대되었던 때를 회상했다. 기대했던 부름에 대한 조언과 격려 대신, 파우스트 회장은 손을 위로 들어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위에 계신 그분께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기 보다는, 그분은 저를 하나님께 보내셨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은 그렇게 세심하고 친절할 은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요 최고의 조언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신 신뢰와 힝클리 회장이 그에게 가진 확신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로서 지지하는 분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특권입니다.”

주님의 지지하시는 손길을 받아들이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힝클리 회장님은 항상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대한 책임 앞에서, 저 또한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1933년 5월 31일 뉴저지 주 프린스턴에서 태어

난 헨리 비 아이어링은 헨리와 밀드레드 베니엔 아이어링 사이에 태어난 세 아들 중 둘째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화학자인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에게 과학도로서의 길을 걷도록 격려했다. 아이어링 회장은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마쳤으나, 미 공군에서 2년간 복무한 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그는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여름 하버드에 있는 동안, 그는 여름 학기를 수강하러 보스턴에 와 있던 캐슬린 존슨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여름 동안 데이트를 했으며, 그녀가 고향인 캘리포니아로 돌아간 후에는 편지를 교환했다. 1962년 7월, 그들은 유타주 로간 성전에서 결혼했다. 같은 해 아이어링 회장은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조교수로 임명되어 1962년부터 1971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다.

아이어링 회장은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항상 제가 스스로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



입니다.” 그녀의 그러한 특성은 다음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1971년 어느 날, 그녀는 한밤중에 아이어링 회장을 깨워서는 “지금 당신은 인생에서 당신이 해야 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세요?” 그런 뒤 그녀는 그가 당시 교회 교육 기구 교육 총감이었던 날 에이 맥스웰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아이어링 회장은 당시 스탠포드에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처가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지내며 스탠포드 제1와드의 감독으로도 봉사하는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그 질문으로 인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이어링 가족은 맥스웰 교육 총감을 잘 알지 못했으나, 며칠 사이에 맥스웰 총감이 전화로 아이어링 회장을 솔트레이크시티로 초대했고, 거기서 맥스웰 총감은 그에게 리스 대학, 지금의 BYU 아이다호의 총장을 맡아달라고 제의했다. 아이어링 회장은 그 제의를 받아들였으며 곧 네 명의 아들, 두 명의 딸, 그리고 25명의 손자손녀를 데리고 아이다호 렉스버그 지역

으로 이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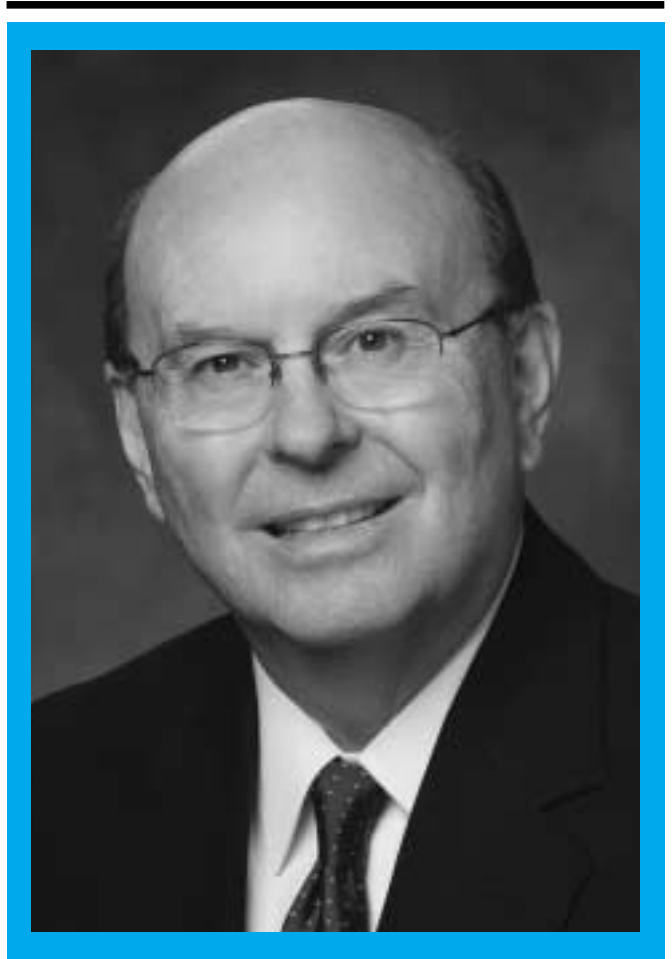
그는 6년 후 교회 교육 기구의 교육 총감 대리가 되었으며, 다시 3년 후 교육 총감으로 임명되어 1985년 4월 그가 관리 감독단의 제1보좌로 부름 받을 때까지 봉사했다. 1992년 9월, 그는 교회 교육 기구 교육 총감으로 재 임명되었으며, 한 달 후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 받아 두 직책에서 동시에 봉사했다.

가슴을 울리는 가르침과 부드러운 영으로 잘 알려진 아이어링 회장은, 12년간의 십이사도 정원회에서의 봉사가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돕는 것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알게 해 주었다고 말한다.

“십이사도로서의 경험을 통해 제가 더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 온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우리의 삶을 변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겸손을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비록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의 부름이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부름이었지만, 쿠엔틴 라마 쿡 장로는 어렸을 때부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평생 동안 저는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축복을 받았습
니다.”라고 쿡 장로는 말한다.

1940년 9월 8일 유타 주 로간에서 제이 버논과 버니스 쿡 사이에서 태어난 쿡 장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구주를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해 감사한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자매에게도 감사하며, 특히 열다섯 살 때 그의 형 조와 함께 나누는 심각한 대화를 통해서 구주에 대한 간증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형인 조는 선교 사업을 위해 의과 대학 과정을 미룰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 대화 이후로, 이 교회의 참됨과 예수 그리스도



의 신성에 대한 제 기도를 통해 받은 확증은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은 결국 영국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쿡 장로도 그곳에서 봉사했다. 당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매리온 디 행스 장로를 포함하여 그의 선교부 회장들은 쿡 장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구주에 대한 간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는 그러한 특성을 지닌 매리 가디를 만나, 1962년 11월 30일 유타 주 로건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는 유타 주립대학교를 졸업하여 정치학 학위를 받은 후, 다시 캘리포니아로 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쿡 장로는 경영법 분야에서 일했고, 샌프란시스코 항만 지역 법률 회사의 경영 파트너가 되었다. 그 뒤에도 그는 캘리포니아 의료 시스템의 사장과 CEO를 역임했고, 마지막으로 수터 의료 시스템의 부의장을 지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감독으로, 스테이크 회장과 보좌로, 지역 대표 및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했다. 스테이크 회장단으로 봉사하는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와드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통가어, 사모아어, 타갈로그어, 중국 표준어와 광둥어를 사용하는 회중들도 관리했다.

“우리는 회원들의 다양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굳은 결심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제 삶에 참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쿡 장로는 대부분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과 직장 생활을 함께했다. 그는 “교회 밖에도 구주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역시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말은, 세상에서 동떨어져 회원들끼리만 교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1996년 4월 칠십인 제이 정원으로 부름 받고, 그 후 1998년 4월 다시 제일 정원으로 부름 받은 쿡 장로는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했고, 또

한 태평양 지역과 북아메리카 북서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봉사하는 동안 그는 “어디를 가든지 구주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의 믿음을 더 깊이 확인했다. 쿡 장로는 복음대로 겸손하게 살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쿡 장로는 “저는 대부분의 후기 성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회원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를 이야기 하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후기 성도임을 밝히고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훨씬 적게 생깁니다.”

그는 2007년 8월 칠십인 회장단으로 부름 받기 전 선교사부 집행 책임자로 봉사하면서 그와 같은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더 훌륭한 회원 선교사임을 또한 알게 되었다.

2007년 10월 6일 사도로 지지 받은 후 첫 대회 말씀에서 쿡 장로는 회원들의 문제가 “위장”이라고 말했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살 것을 촉구했다.

“조롱할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라고 그는 인정한다. “크고 넓



은 건물도 실재합니다. 그러나 크고 넓은 건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교리와 성약 123:12) 있지만, 진심으로 쇠막대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친절하고 인내를 보이며 솔직하게 생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쿡 장로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부름을 받은 자신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해주기를 바랐다. 그가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하며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쿡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마쳤다. “저는 구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월터 페르민 곤잘레스 장로는 봉사가 축복을 가져온다는 확고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우리는 항상 주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봉사보다 받는 보상이 항상 더 크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곤잘레스 장로의 봉사를 위한 준비는 그가 교회 회원이 되기 전이었던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다. 그가 아홉 살이 되자,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영어를 배울 것을 제안했다. 비록 부모님이 회원은 아니었지만, 그는 어머니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서 그가 나중에 받게 될 부름을 위해 그를 준비시켰다고 믿고 있다.

“아무도 제가 9년 후에 교회 회원이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언젠가, 총

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고 영어로 말씀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1952년 11월 18일, 우루과이 몬테 비데오에서 빅토리아와 페르민 곤잘레스 사이에 태어난 곤잘레스 장로는 18세에 침례를 받았다. 그는 1975년 2월 28일, 몬테비데오에서 줄리아나와 결혼했다. 그들은 1979년 워싱턴 디시 성전에서 인봉되었으며 네 자녀의 부모이다. 그들은 다가오는 첫 손주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다.

곤잘레스 장로는 우루과이에 있는 공립 대학교와 아르헨티나에 있는 프라데르니다드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블루밍턴에 있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곤잘레스 장로는 2007년 10월 6일에 칠십인 회장단으로 지지 받았다. 그는 과거에 브라질 북, 남미 서 지역 회장단과 남미 북, 브라질 북 지역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또한 그는 남미 북 지역에서 지역 칠십인, 예콰도르에서 선교부 회장, 우루과이에서 스테이크 회장, 남미 북 지역에서 공보 책임자로 봉사했다.

그는 교회 교육 기구에서도 일하면서 남미 북 지역의 지역 책임자로 일했다.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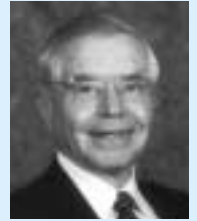
주일 학교



다니엘 케이 저드
제1보좌



에이 로저 메릴
회장



윌리엄 디 오스월드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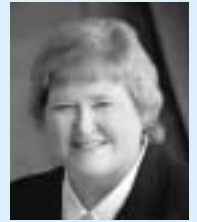
상호부조회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제1보좌



줄리 비 벡
회장



바버라 톰스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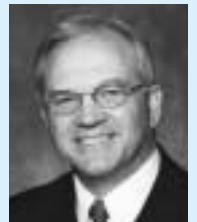
청남



단 알 버게스
제1보좌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회장



마이클 에이 나이더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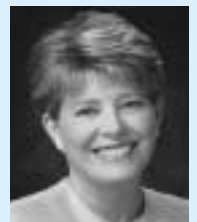
청녀



일레인 에스 돌튼
제1보좌



수잔 더블류 태너
회장



메리 엔 쿡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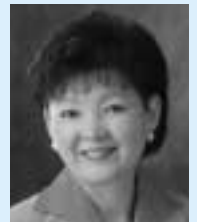
초등회



마거릿 에스 리퍼스
제1보좌



체릴 시 렌트
회장



비키 에프 미즈모리
제2보좌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멜 기세택 신권 및 상호부조회의 넷째 주 일요일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에서 주어진 한 가지 이상의 말씀으로 각 공과를 준비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해당 일요일에 동일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한 후 공과 시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격려한다.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한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때로는 연차 대회 말씀을 제쳐 놓고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회 말씀은 승인된 교과 과정이다. 여러분의 임무는 교회의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배운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원리 및 교리를 찾아본다. 또한 여러분이 원리 및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및 문구들을 말씀에서 찾아본다.

원리 및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교안을 만든다. 교안에 적절한 질문을 포함시킴으로써 반원들의 다음 사항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한다.

-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에서 원리 및 교리를 찾는다.
- 원리 및 교리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원리 및 교리들에 대한 이해, 생각, 경험 및 간증들을 나눈다.
- 이러한 원리 및 교리들을 생활에 적용한다. ■

기간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07년 11월 ~ 2008년 4월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에 실린 말씀*
2008년 5월 ~ 2008년 10월	리아호나 2008년 5월호에 실린 말씀*

*이 말씀들은 인터넷 www.lds.org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 및 청년 참고 지도서

다 음 참고 자료들은 아론 신권 교재 3과 청년 교재 3에 있는 공과들에 대한 참고 자료일뿐 대체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 지도서에 열거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개인 발전* 활동의 일부를 공과 시간에 활용하거나 가정에서 달성하도록 정원회 회원 또는 반원들을 격려할 수 있다.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친다. 교재에는 부활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다. 부활절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주의 생애와 사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성구, 대회 말씀, 교회 잡지 기사, 그림 및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참고 지도서를 찾으려면 www.lds.org로 가서 “Languages”를 클릭하고 언어를 선택한다. “Liahona”를 클릭한 후, 2007년 11월호를 클릭한다. 영문 참고 지도서들은 www.lds.org 상에서 “Gospel Library”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화면 오른쪽 칼럼에서 대부분의 현행 참고 지도서를 찾아볼 수 있다.



아론 신권 제3과경

제1과: 신회

고든 비 힝클리, "저는 이 세 분을 믿습니다",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2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신회의 구성에 관한 토론을 강화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영적인 발전", 3번; *(교사)*, "영적인 발전", 4번; *(제사)*, "영적인 발전", 10번

제2과: 구원의 계획

엘 톰 페리, "구원의 계획",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9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영광과 승영을 위한 것임" 편의 토론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정원회 활동", 6번

제3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제프리 알 홀런드, "하나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0쪽.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과 속성" 편의 토론을 강화하기 위해 이 기사를 활용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영적인 발전", 10번.

제4과: 나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

로버트 디 헤일즈, "스스로 행한 선택의지의 은사와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 편의 토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제5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멜린 에이치 옥스, "속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3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사탄의 방법" 편의 토론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6과: 아담의 타락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안전한 귀환 지점",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99쪽. 이 말씀으로 회개에 관한 편을 보충할 수 있다.

제7과: 속죄는 사랑과 자비를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줌

보이드 케이 패커, "내가 다니는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25쪽. 패커 회장 말씀의 결론 단락으로 공과를 끝맺을 수 있다.

제8과: 부활과 심판

토마스 에스 몬슨, "내 구주 살아 계시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22쪽. 가족에 관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이야기로 공과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정원회 활동", 6번.

제9과: 공의와 자비

리차드 지 스코트, "평안과 행복을 확실하게 해 주는 속죄",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40쪽. 공의와 자비에 대한 스코트 장로의 설명을 활용하여 공과를 끝맺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영적인 발전", 1번.

제10과: 큰 변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9쪽. "큰 변화" 편을 활용하여 공과의 시작 부분에 있는 조셉 스미스의 인용문을 부연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가족 활동", 3번

제11과: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신앙

헨리 비 아이어링, "어린이와

같이",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4쪽. "잠든 신앙은 신뢰와 확신을 필요로 함" 편을 하는 동안, 밤새 기도했던 아이어링 장로의 기사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영적인 발전", 3번; *(제사)*, "영적인 발전", 1번과 10번.

제12과: 회개

리차드 지 스코트, "평안과 행복을 확실하게 해 주는 속죄",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40쪽. 이사야 1장 18절을 토론한 후에 암벽 등반에 관한 스코트 장로의 비유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사), "가족 활동", 3번; *(제사)*, "가족 활동", 5번.

제13과: 우리가 용서하는 대로 용서 받음

제임스 이 파우스트,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67쪽. 헝스 장로의 인용문을 나눈 후에, 암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비극에 관한 파우스트 회장의 기사를 읽어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사), "가족 활동", 3번.

제14과: 성찬식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의 신성한 신권 책임",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54쪽. 기사 끝부분에 있는 몬슨 회장의 두 이야기를 "제사는 회중을 위해 일함" 편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정원회 활동", 7번; *(제사)*, "정원회 활동", 1번.

제15과: 끝까지 견딜

헨리 비 아이어링, "주의 힘을 의지하여",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6쪽. 아이어링 장로가 제시한 네 가지 단순한 일을 벤슨 회장의 말씀 뒤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16과: 세상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조셉 비 워스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6쪽. 그리스도의 빛에 관한 워스린 장로의 설명을 공과의 첫째 토론 편에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영적인 발전", 1번.

제17과: 성신

헨리 비 아이어링, "어린이와 같이",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4쪽. 성신에 관한 아이어링 장로의 설명과 예를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하는 것을 고려한다.

글렌 엘 페이스, "알고 계십니까?",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78쪽.

페이스 장로의 경험을 "인간에게 미치는 성신의 영향력" 편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영적인 발전", 6번.

제18과: 기도

리차드 지 스코트,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쪽. 기사의 몇몇 부분을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서 공과를 보충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사), "가족 활동", 3번

제19과: 금식

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56쪽. 이 공과를 끝맺기 위해, 집사들을 복지 광장으로 데려갔던 감독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정원회 활동", 2번.

제20과: 십일조-영적인 시험

다니엘 엘 존슨, "십일조의 율법",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35쪽. 공과에 있는 퀴즈를 십일조에 관한 존슨 장로의 세 가지 질문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21과: 정원회의 역할

엘 톰 페리, "정원회란 무엇입니까?",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23쪽. 페리 장로의 목록과 예를 활용하여 "신권 정원회에 소속됨으로써 얻는 유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고려한다.

헨리 비 아이어링, "신권 정원회",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43쪽. 정원회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어링 장로의 말씀에 있는 예들을 활용할 수 있다.

제22과: 제사의 임무

제임스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52쪽. 외형적 의식을 집행할 관능을 갖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토론할 때, 아론 신권을 지닌 청년들에게 어떻게 권세와 책임이 주어지는지에 관한 파우스트 회장의 말씀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23과: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함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의 신성한 신권 책임",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54쪽. 공과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대체하기 위해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것에 관한 몬슨 회장의 경험과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다.

제24과: 선지자를 따름

제프리 알 홀런드, "그 땅에 다시 선지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104쪽. 연차 대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들에 관한 홀런드 장로의 목록에 있는 첫째 사항으로 공과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25과: 모든 청남은 선교 사업을 해야 함

엠 러셀 벨라드, “한 사람만 더”,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69쪽. “우리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여야 함” 편을 보충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준비하기 위해 했으면 하고 바랐던 것들의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청녀 교재 3

제1과: 하나님 아버지

고든 비 힝클리, “저는 이 세 분을 믿습니다”,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2쪽. “그분의 형상대로” 편을 활용하여 공과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며 자녀임” 편을 뒷받침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1번

제2과: 구주를 알게 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9쪽. “큰 변화” 편을 활용하여 소개 부분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로버트 디 헤일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0쪽. 헤일즈 장로가 제안한 방식을 활용하여 칠판 설명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청녀 몇 명을 초대하여 이 방식을 따른 결과를 나눌 수 있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5번.

제3과: 매일마다 복음대로 생활함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우리를 들어올려 주는 힘”,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00쪽.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 사이에 관해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제시한 관계를 활용하여 공과의 날말 스트립 편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1번과 2번.

제4과: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준비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리아호나*, 2007년 4월호, 2쪽. 브래드와 케이디의 이야기를 읽은 후에, 그들이 파우스트 회장의 여섯 가지 질문을 활용했다면 그들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인가에 관해 토론할 수 있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2번.

제5과: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엠 러셀 벨라드, “복음을 나누는 가정을 만듦”,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4쪽. 벨라드 장로의 말씀을 활용하여 “영적인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편을 보충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선행 가치관 경험”, 4번.

제6과: 여성의 가르치는 책임

엠 러셀 벨라드, “부모의 성스러운 책임”, *리아호나*, 2006년 3월호, 10쪽.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룸” 편을 활용하여 크로프트 장로의 이야기를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2번.

제7과: 인생의 목적

엘 톰 페리, “구원의 계획”,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9쪽. 페리 장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야기로 공과를 소개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1번.

제8과: 영원한 가족

러셀 엠 넬슨, “결혼 생활을 보살핌”,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6쪽. “우리는 지금 영원한 가족 생활을 준비해야 함” 편을 보충하기 위해 결혼 생활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넬슨 장로의 세 가지 제언을 나눌 수 있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3번.

제9과: 가족의 단합

더블류 더글라스 섬웨이, “결혼과 가족: 우리의 성스러운 책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94쪽. 섬웨이 장로의 가정의 밤 이야기로 앤의 이야기를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3번.

제10과: 즐거운 가족 활동을 장려함

엘 톰 페리, “가족의 중요성”,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40쪽. 페리 장로의 지침에 기반을 둔 가족 활동에 대한 청녀들의 제언으로 가족 놀이 자루 활동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3번.

제11과: 대가족 관계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53쪽. 파우스트 회장이 서두에 전한 이야기로 페더스톤 장로의 이야기를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5번.

제12과: 신권의 축복

델린 에이치 옥스,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4쪽. 옥스 장로의 말씀을 활용하여 이 공과에 있는 인용문과 이야기를 새로이 할 수 있다.

제13과: 신권을 통해 가족들이 축복 받을 수 있음

제임스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52쪽. 신권 소유자가 어떻게 자신의 가족을 인도해야 하는지에 관해 토론하면서 파우스트 회장의 여덟 가지 약속을 나누는 것을 고려한다.

제14과: 훌륭한 유산을 받음

엘 톰 페리, “회복의 메시지”,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5쪽. 복음의 회복을 설명하는 페리 장로의 말씀에서 발췌한 부분으로 공과의 셋째 편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활동”, 셋째 항목.

제15과: 이스라엘 지파의 축복

리처드 지 힝클리, “회개, 회원됨의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8쪽. 공과를 소개하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 적음으로써 힝클리 장로의 모범을 따르라고 청녀들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6과: 성전 엔다우먼트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로 묶인 마음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77쪽. “성전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음” 편에 있는 토론과 인용문을 아이어링 장로가 할아버지와 가졌던 경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경험”, 1번.

제17과: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함

조셉 비 위스린, “인생의 교훈”,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45쪽. 성전에 참석하는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것의 비유로서 미식축구 라이벌 팀과의 경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서 공과를 끝맺을 수 있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활동”, 넷째 항목

제18과: 성전 결혼

러셀 엠 넬슨, “결혼 생활을 보살핌”,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6쪽. 결혼 생활을 강화시키는 것에 관한 넬슨 장로의 제언을 실물 공과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3번.

제19과: 유산

제프리 알 홀런드, “청녀들에게”,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8쪽. 첫째 인용문을 홀런드 장로의 말씀에 있는 넷째 단락으로 대체하고, 그 의미를 토론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5번.

제20과: 선교사의 책임을 이해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선교사가 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4쪽. “자주 묻는 질문들” 편에 있는 베드나 장로의 권고로 공과 소개 부분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21과: 복음 나누기를 배움

제임스 이 파우스트, “여러분의 빛—영국을 위한 기”,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11쪽. 개신교 목사의 이야기를 비기의 이야기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선행 가치관 경험”, 7번.

제22과: 영원한 관점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시작부터 끝을 보십시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2쪽. 공과에 들어갔던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경험을 공과의 소개로서 나누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5번과 6번

제23과: 고난을 이겨냄

리처드 지 스코트, “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 잘 사는 방법”,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0쪽. 스코트 장로가 전하는 이야기와 조언으로 공과의 여러 편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2번.

제24과: 선택의지

로버트 디 헤일즈, “스스로 행함: 선택의지의 은사와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쪽.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되찾는 방법에 관한 헤일즈 장로의 제언으로 공과의 끝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3번.

제25과: 순종

헨리 비 아이어링,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7쪽. 허버 제이 그랜트의 인용문 뒤에서, “빠르게 실천하고 꾸준히 순종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관한 아이어링 장로의 말씀을 토론할 수 있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7번.



색인

일화 색인

메리 앤 쿡 자매님의 오빠가 가족들에게 쓴 편지, 11
 여섯 살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스테이크 대회에서 할 말을 일러주다, 14
 우리와 신앙을 달리하는 여성이 부활에 관한 연차 대회 말씀을 듣다, 21
 아픈 아내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남편, 28
 "프레드 삼촌"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다, 35
 엘 톰 페리 장로가 높이뛰기 선수인 그의 아들에게 바를 더 높이도록 격려하다, 46
 가족 조리법 과제 제출을 미루던 소년, 49
 카리브해의 고기잡이 뗏, 51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미국 내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에게 말씀하다, 55
 올림픽 예선전 경기 중 신발이 벗겨진 육상 선수, 59
 통가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를 찾다, 59
 가정복음 교사들이 스텐을 방문하여 활동화되도록 돕다, 78
 한 기자가 해롤드 비 리 회장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았는지 질문하다, 86
 곡식이 든 양동이를 흔들면 달려오는 말, 93
 할아버지가 교회에 참석하도록 조르는 손자들, 95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장로가 그의 첫째

아이를 잃다, 95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젊은 시절 그가 강한 간증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100
 선교사가 간증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다, 100
 죽어가면서 더 봉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던 어머니, 102
 사랑 하나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던 소년, 102
 아들이 여름 휴가에서 최고의 순간은 아버지와 별을 보던 순간이라고 말하다, 104
 방문 교육을 가면서 친구를 얻게 된 자매, 113
 한 자매가 토마스 에스 몬스 회장에게 그녀의 딸을 축복해달라고 부탁하다, 118
 이웃의 아기를 돌보아주고 도움을 주었던 한 자매, 118

주제 색인

가르침, 73, 76, 93, 104
 가정의 밤, 108
 가족, 11, 25, 33, 73, 76, 95, 104, 109, 115
 간증, 14, 78, 83, 98, 100
 감사, 31, 66
 개종, 78, 100
 결심, 37
 결혼, 62
 경전, 43, 118
 계시, 86, 90
 교리, 25
 교육, 118
 교회 잡지, 108
 교회의 성장, 83

기도, 55, 59, 86, 118
 기쁨, 18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33
 노여움, 62
 동정심, 28, 35, 102
 모범, 11, 25
 목격자, 43, 100
 몰몬경, 43, 78
 미루는 것, 49
 방문 교육, 113
 복음, 18
 봉사, 6, 9, 35, 53, 102, 109, 113, 118
 부활, 21
 사랑, 9, 28, 70, 73
 상호부조회, 109
 선교 사업, 33, 35, 46, 70
 성경, 43
 성신, 37, 55, 66, 93
 성약, 16
 성전, 11, 14, 37, 95
 속죄, 40, 80
 순결함, 51, 80
 순중, 16
 신권, 14, 55, 59
 신뢰, 93
 신앙, 16, 25, 59, 70, 109
 신뢰, 40
 약속, 16
 어머니(모성), 76, 109, 115
 역경, 9, 53
 연차 대회, 108
 예수 그리스도, 21, 40, 115
 의설물, 51
 우선 순위, 104
 우정, 113
 위안, 95
 유희, 51
 의로움, 53
 이혼, 62
 인격, 90
 인내, 9, 18, 98
 일, 55
 일지, 66
 자녀, 76, 115
 자애(사랑), 28
 자유, 98
 정확, 78
 죽음, 21
 준비, 49, 53, 86
 지도력, 6, 55
 진리, 90
 축복, 66
 평등, 6
 표준, 46
 합당함, 46
 확산, 55
 회개, 31, 49, 80, 98
 회복, 40, 83
 회원, 18
 희생, 31



연사들 (가나다 순)

고든 비 힝클리, 4, 62, 83, 108
 다니엘 케이 저드, 93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100
 도널드 엘 홀스트롬, 49
 맬린 에이치 옥스, 10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80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18
 러셀 엠 넬슨, 43
 로버트 디 헤일즈, 86
 리차드 시 애즐리, 9
 리차드 지 스코트, 90
 마이클 제이 테, 35
 메리 앤 쿡, 11
 바버라 톰슨, 115
 보이드 케이 패커, 6
 브루스 디 포터, 31
 스티븐 이 스노우, 102
 스펜서 제이 콘다, 16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113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33
 엔리케 알 팔라벨라, 14
 엘 톰 페리, 46
 엘 휘트니 클레이튼, 51
 엠 러셀 벨라드, 25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95
 윌터 에프 곤잘레스, 53
 제프리 알 홀런드, 40
 조셉 비 워스런, 28
 줄리 비 백, 76, 109
 쿠엔틴 엘 쿡, 70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78
 클라우디오 디 지빅, 98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73
 키스 케이 힐버그, 37
 토마스 에스 몬스, 21, 59, 118
 헨리 비 아이어링, 55, 66